

제3편

도시화와
도시개발

제1장 도시개발의 배경과 과정

제2장 인구의 변동과 특성

제3장 토지이용의 변화

제4장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제1장 도시개발의 배경과 과정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1. 도시화의 배경과 특징¹⁾

군포 지역은 역사적으로 과천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군 남면으로 편제되었다. 이후 남면이 1979년 군포읍으로 승격하면서 비로소 군포란 행정 지명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이 지역이 서울 이남 지역의 영향권과 수도권 남서부 지역의 영향권이 만나는 경계에 있음으로써 중심성이 있는 정주지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군포 지역이 현대적인 정주지로 발전한 것은 한말에 경부선 군포장역이 설치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이 일대의 중심지는 역 인근으로 점차 옮겨가다가 1925년 12월에 호계동에 서던 군포장이 군포역전으로 이전하면서 군포역 주변은 명실상부한 지역 중심지로 떠올랐다. 산본 신도시 건설 이후에도 군포역 일대는 신시가지와 대비되는 구시가지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경부선이라는 강력한 교통축상에 놓이게 된 군포 지역은 인근의 안양 지역과 강한 도시적 연계를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안양이 급성장하자 군포 지역은 일종의 주변부적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서울의 서남부 지역(예를 들어, 구로동)에 밀집한 산업활동이 1970년대 중반에 경부

¹⁾ 이 글에 제시된 통계자료의 출처는 시흥군 및 군포시의 통계연보, 『산본신도시 개발사』(대한주택공사, 1997) 등 해당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및 문서 등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출처 표기는 생략하였다.

축을 따라 확산되면서 안양은 수도권 남부 산업지대로 급부상했고, 군포는 안양 도시성장권의 외곽지로 포섭되었던 것이다. 1974년 수도권 전철개통은 이러한 공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했다.

시로 승격하기 직전인 1988년 군포읍은 20.69km²의 면적에 8만 3,785명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인구밀도는 4,050명/km²이었고,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은 18.1%, 인구가동률은 56%였다. 이 같은 인구 관련 지표는 1980년대 군포의 급격한 팽창을 시사한다. 이 팽창은 군포 일대가 수도권 외곽 산업지대에 편입된 데 따른 지역산업의 빠른 성장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산업활동 관련 인구지표에서도 확인된다. 1988년 군포읍의 총 2만 3,303가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1.7%(403가구)에 불과했고, 나머지 98.3%(2만 2,900가구)는 비농가였다. 지역 소재 제조업체는 총 198개였는데, 그 종사자는 1만 6,760명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화학 분야가 48개 업체로 2,628명, 기계 분야가 71개 업체로 4,139명을 고용해, 이 양 부문이 전체 제조업체의 60%,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40.4%를 차지했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종업원 301명 이상)은 16개 업체(8.1%)에 불과했고, 중소기업(종업원 51~300명)이 47개 업체(23.7%), 나머지 68.2%인 135개 업체는 50명 이하의 소기업 형태였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인구의 빠른 증가와 높은 이동률, 제조업 고용부문의 급성장은 지역에 대한 많은 개발수요를 야기했다. 대표적인 것은 주택 부족에 따른 개발수요였다. 1988년 당시 군포의 주택 총수는 8,906호였다. 이중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3,628호와 3,413호로 전체 주택의 79%를 차지했고, 이 밖에 연립주택 1,488호, 다세대주택 377호가 있었다.²⁾ 주택 보급률



준공 후의 산본 신도시(1995년 6월)

2)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29쪽.

이 38.2%로 아주 낮은 상태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주택유형(특히 공동주택)이 그만큼 부족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지역 여건과 수도권 전체의 주택 부족을 고려하여 정부는 1989년 20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한 5개 신도시의 하나를 군포시 산본동 일대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989년 2월 27일 건설부고시 제70호로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당동 일원이 군포산본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기본 계획 기준으로 총 425만 8,000㎡에 4만 2,500호의 주택(17만 명 수용)을 공급할 계획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산본 신도시 건설은 1995년 1월 완료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군포는 비약적 성장의 기회를 맞았다. 오늘날의 군포시 모습은 바로 이때부터 본격화된 도시 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군포 지역의 도시화는 1970년대 수도권 남서부의 팽창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양산본지구 택지개발, 산본 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계획적 개발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이렇듯 외부기관에 의해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본격화된 이 지역의 도시화는 도시발전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의 틀을 갖추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시 승격, 행정구역의 확대, 도시계획권의 독립 등이 바로 이러한 틀이 되었다.

‘과대 읍의 시 승격’ 방침에 따라 시흥군 군포읍은 1989년 1월 1일에 시로 승격되었다. 읍이 된 지 10년 만이다. 시 승격과 더불어 군포는 주거, 행정, 교육, 공업, 유통 등 복합적 도시기능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행정구역도 20.69㎢에 6개 행정동을 가진 독자적인 도시 세력권으로 형성되어 갔다. 산본 신도시 건설로 늘어난 인구의 재배치를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행정동 분리와 통합이 실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 제14434호에 의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1994년 12월 26일 당시 군포시 면적의 74% 정도이던 화성군 반월면의 속달리·둔대리·도마교리·대야미리와 안양시 안양동·호계동의 일부가 군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행정구역의 면적은 시 승격 당시의 20.69㎢에서 36.08㎢로 기존에 비해 1.7배 확대되었다. 이후 2005년 6월 의왕시와 행정구역 조정(군포 1·2동 일부 변경)을 거치면서 군포시는 36.362㎢ 면적에 11개 행정동을 거느린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표 1〉 시 승격 및 신도시 건설 전후 인구 추이

(단위 : 명)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인구	83,785	104,595	99,956	107,387	130,937	178,076	223,606	245,190

출처 :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때 군포시의 인구는 시 승격 직전인 1988년도보다 무려 2.9배 늘어났다. 그 덕택에 군포시는 24만 5,000여 명의 인구를 가진 수도권의 주요 도시로 급부상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에 속했던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분리 요구가 지역 내부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고, 1997년 7월 8일 경기도고시 제24호에 의거하여 안양도시계획구역이 안양, 군포, 의왕으로 분리되면서 군포시는 비로소 행정권역과 일치한 도시계획구역을 가지게 되었다. 도시계획권을 획득한 후 수립된 군포도시기본계획은 2000년 1월 1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얻었고, 이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수도권 내의 주요 도시로서 군포시의 위상을 확립시켰다. 그 후 7년 뒤인 2007년 11월 8일에 군포도시기본계획은 변화한 도시현실을 반영하여 재수립되었다.

시 승격, 행정구역 확대, 도시계획구역의 독립 등과 같은 일련의 변화를 거치면서 군포시는 3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도시로서 스스로의 발전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외생적으로 이루어진 군포 지역의 도시화도 내생적인 정주여건과 자치역량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군포시의 도시관리 중심도 그간 외부기관에 의해 신시가지지를 조성하거나 건설하는 것에서 군포시가 주체가 되어 급격한 성장을 거친 도시의 내부문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옮겨 갔다. 이를테면 구시가지에 속하는 당동 일대의 (재)개발, 산본 신도시 건설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재건축, 금정역 주변의 뉴타운 사업, 공업지역 정비 등은 군포시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관리 분야다. 이러한 주체적·내생적 도시관리로 군포시는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족적이고 자율적이며 개성적인 도시로 변화하는 내생적 도시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견된다.

2. 신도시 건설 이전 도시개발

1989년 시 승격과 함께 인구 17만 명을 수용할 산본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그해 8월부터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군포시는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산본 신도시 건설에 의한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은 기존 시가지의 상대적 낙후성을 부각시켜 신규 시가지가 분리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구시가지는 대부분 경부선축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신도시 건설 이전에 이미 다양한 개발을 통해 조성된 측면도 적잖게 있었다. 신도시 건설 이전에 군포 지역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 '안양산본지구 택지개발'을 꼽을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도시의 적극적인 개발이라기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재의 개발을 억제하고 유보지로 녹지를 보전해 미래의 도시적 수요에 부응하는 소극적 개발의 의미를 띤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지역과 구분되어 도시개발의 공간적 틀 자체를 규정하기도 한다. 군포의 경우,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도시권역의 많은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북부의 개발지와 남부의 보전지로 나누어지는 '개발의 공간적 틀'을 갖게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보안상의 필요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1971년에 도입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기본 틀은 3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 의해 개선되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0년의 도시면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군포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71km²로 전체 면적 36.08km²의 68.48%를 차지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크게 두 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고시 제729호에 의해 당리, 당정리, 산본리, 부곡리 일원의 7.95km²가 지정된 것이다. 두 번째는 1976년 12월 4일 건설부고시 제92호에 의해 부곡리, 대야미리, 둔대리, 속달리, 도마교리 일원의 16.75km²가 지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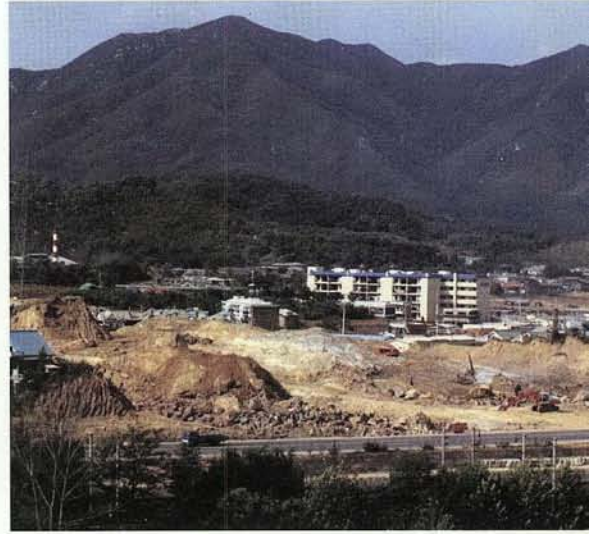
이렇게 해서 군포시 남측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시 전체가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구역으로 양분되었다. 군포 지역의 도시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북측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공간적으로 편향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고밀도 위주가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개발을 위한 공간적 틀이 되었다는 것은 이를 두고 표현하는 것이다. 시가화구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개발만큼이나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전적 관리는 도시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군포시의 도시개발에서 특히 그러하다.

2)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979년 5월 1일에 읍으로 승격한 군포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1980년 3월에 6년 계획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었다. 당시 군포읍은 안양시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군포읍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안양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추진되었다. 군포읍 당리·금정리·산본리뿐만 아니라 안양시 안양6동과 안양8동, 호계동 일부 등이 지구로 지

정되었고, 그 전체는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이라 명명되었다.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면적 219만 170㎡(66만 2,526평)를 크게 3개 공구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제1공구는 주로 안양시 지역을 포괄했는데, 그 면적은 총 49만 490㎡(14만 8,373평)에 달했다. 제2공구는 군포읍 산본리 일대를 포괄했으며, 그 면적은 총 45만 9,210㎡(13만 8,911평)에 달했다. 제3공구는 군포읍의 당리와 금정리 등을 포괄했는데, 그 면적은 총 124만 470㎡(37만 5,242평)에 이르렀다. 군포 지역의 사업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군포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사업비는 440억 2,7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실제 사업기간은 1980년 3월 17일부터 1990년 12월 28일까지였다. 확정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제1공구는 1987년 1월 26일, 제2공구와 제3공구는 1990년 12월 29일에 종료되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면적의 44.23%는 주택용지, 6.53%는 상업용지, 14.36%는 공업용지, 나머지 34.88%는 학교·공원·도로·공용청사·하천 수로 등 공공용지로 배정되었다.



안양8지구 중 금정리 일대

〈표 2〉 안양8지구의 토지이용 현황

구분	면적		구성비(%)	
	㎡	평		
합계	2,190,169.80	662,526.40	100.00	
주택용지	968,771.50	293,053.40	44.23	
상업용지	143,027.00	43,265.60	6.53	
공업용지	314,423.00	95,113.00	14.36	
공공용지	소계	763,948.30	231,094.40	34.88
	학교	54,691.10	16,554.10	2.50
	공원	44,136.10	13,351.20	2.02
	도로	572,093.40	173,058.30	26.12
	공용청사	18,024.10	5,452.30	0.82
	하천, 수로	75,003.60	22,688.60	3.42

출처 : 군포시, 1999, 『군포시사』, 408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일단의 토지를 구획하여 필요한 용도와 시설을 설치한 뒤 체비지 등으로 확보한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인소유의 땅은 비율대로 원소유주에게 돌려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재정 투입 없이 토지의 계획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도시개발수단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의 강남개발과 같은 대규모 신규 토지개발에 주로 적용된다.

군포 지역도 읍 승격과 함께 도시기반시설 정비차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 부지의 확보가 여의치 않았고, 절토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구릉지 형태로 택지가 조성되었으며,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공원 조성이 미흡하여, 그 추진과정에서 재정비가 요구되기도 했다. 특히 읍 승격과 함께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사업 종료 시에 이미 시로 승격된 군포의 도시 발전 조건과 맞지 않아, 용도지역과 도시개발 부지면적의 재조정 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 조건들은 사업종료 시점에 시작된 산본 신도시 개발과 연계되어 지구 내 재정비 사업에 반영되었다.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읍 승격에 따른 군포읍의 도시정비를 위해 착수되었지만, 시 승격과 더불어 실시된 산본 신도시 개발로 이어짐으로써 사실상 산본 신도시 건설의 전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안양산본지구 택지개발

1982년 건설부는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배제된 시흥군 군포읍 금정리(현 금정역 주변)와 산본리 일부 지역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로 지정했다. ‘안양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의 목적은 서민주택용지의 대량공급, 군포 일원의 공업단지 배후 주거지 조성, 산본천 정비를 통한 상습적인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었다. 사업지역은 군포읍 산본리와 금정리 일원으로 그 면적은 41만 3,578.8㎡(12만 5,108평)에 달했다. 1982년 8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실시된 이 사업은 총 2,400가구, 8,700명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해 시행되었고, 총사업비는 81억 8,200만 원이 소요되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총 41만 3,578.8㎡ 중 주택건설용지가 68.7%, 상업용지가 1.5%, 공공시설용지가 29.8%로 배정되어 있었다. 이는 택지개발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임을 확인시켜 준다.

〈표 3〉 안양산본지구 택지개발 기본계획

부문	계획지표	기본계획
택지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인구 및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00명 - 2,400가구(인구밀도 306명/ha) 배분 : 단독 46%, 공동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밀도 및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 198인/ha, 650가구 - 공동 : 415인/ha, 1,750가구 가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가로 폭원 : 6m, 8m, 10m - 격자형 : 단변 40~60m, 장변 100~140m 획지 규모 : 인접한 안양8지구와의 연계 감안, 50~60평 규모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량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간선도로 : 2노선 758m 국지도로 : 3노선 1,009m 구획도로 : 43노선 5,204m
공원·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공원 500m 이내(1만㎡ 이상) 어린이공원 250m 이내(1,5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소 1만 271㎡(금정공원과 인접한 지역) 3개소 5,194㎡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 기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설 : 초등학교 1개소 1만 3,987㎡
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본계획상 지표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수인구 : 1만 명 1인 1일 평균 급수량 : 220ℓ 급수관망 : Ø 20~250m/m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본계획상 지표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량 산정은 합류식 사용 합류식(인접지역의 배수계통상)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 총수요량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소요량 : 1일 전기 수요량 세대당 5kwh 기준으로 1만 2,000kwh 변전소 위치 : 안양 변전소로부터 loop형 공급방식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 지표상의 전화 보급률 및 소득수준 향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양전화국으로부터 2,500회선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률 강수량 : 50년 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곡형을 직류형으로 하폭 및 하상 정리 홍수량 계산은 Kajiyama 실험식 사용 낙차공을 두어 하상의 침식 방지

출처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토지개발사업총람 I (1976~1985)』, 514~516쪽.

〈표 4〉 안양산본지구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13,578.8	100.0		
주택건설용지	소계	284,119.7	68.7	
	단독주택지	130,756.6	31.6	
	공동주택지	소계	153,363.1	87.1
		임대주택지	-	-
		국민주택지	153,363.1	37.1
		분양주택지	-	-
근린생활시설용지	-	-		
상업용지	6,072.1	1.5		
공공시설용지	소계	123,387.0	29.8	
	도로	75,656.7	18.3	
	공원	15,875.3	3.8	
	학교용지	12,212.0	3.0	유치원 포함
	하천	19,643.0	4.7	

출처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토지개발사업총람 I (1976~1985)』, 523쪽.



1:25,000 지형도 상의 안양산본지구 위치도



안양산본지구 개발 후 토지이용 상황도³⁾

안양산본지구 택지개발의 사업 지구는 동측으로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류 1호선과 경부선 철도 및 경수간 전철이 남북으로 접하며, 남측과 북측은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와 접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이 독자적인 택지개발사업이라기보다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동되어 있었고, 새로 승격한 군포읍의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안양시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것이라면, 안양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중앙정부기관, 즉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한 것이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구획과 체비지를 활용한 공공시설의 설치, 개발 후 사적 소유 토지를 원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일단의 토지를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택지개발은 중앙정부기관, 즉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토지를 전면 수용하고 여기에 택지를 조성한 뒤 주택건설업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이란 단일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양 지역에 상이한 개발방식이 적용된 것은 이렇듯 각 개발지에 부여된 개발의 목표와 내용이 상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구시가지의 연접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틀 내에서는 상호 연속적이면서 보완적인 것으로 기능했다. 즉, 안양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완하거나 이에 연계되어 1980년대 군포읍의 기존 시가지 주변을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실제 안양산본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이용은 인근의 다른

3)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토지개발사업총람 | (1976~1985)』, 527쪽.

개발지와 연계되어 전체로서 향후 조성될 신도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3. 산본 신도시 건설

1) 사업 추진 경위

계획적 개발로 현재의 도시적 모습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군포시의 발전은 주로 신도시 개발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획은 1980년대 후반에 시행된 산본 신도시 건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신도시는 말미 신도시이지 1980년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주거단지에 불과하다. 이 같은 개발방식은 성장기 동안 주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에서는 산본 신도시 건설 이전에도 이미 시행되었던 것이다.

동일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1989년부터 시행된 산본택지개발사업을 신도시 건설로 명명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200만 호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수도권 일원에 이른바 5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에 의한 것이다. 1989년 발표된 5개 신도시는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고양 일산 등 5개 지역으로 총 1,473만

〈표 5〉 기본계획 당시 5개 신도시 건설지표

(단위: 천명, 호, 천명)

구분	합계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고양 일산
개발면적	계	14,739	1,288	5,552	1,496	4,758
	주택건설용지	5,344	611	1,993	595	1,599
	상업용지	1,276	69	530	61	460
	공공시설용지	8,119	608	3,029	840	2,699
주택건설	294,000	42,500	97,500	42,500	42,500	69,000
수용인구	1,176	170	390	170	170	276
사업시행자		주택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부천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개발기간		1989.8.30~1992.12.31	1989.8.30~1992.12.31	1989.8.30~1992.12.31	1990.2.8~1992.12.31	1990.3.31~1992.12.31

출처: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36쪽.

제1장 도시개발의 배경과 과정

9,000평에 29만 4,000호(117만 6,000명 수용)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5개 신도시 중 산본 신도시는 1989년 2월 27일 건설부고시 제70호로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당동 일원을 군포산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조성된 대규모 주택단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신도시 건설은 건설부가 지구 지정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산본 신도시의 경우 <표 6>과 같은 과정으로 추진되었다.

<표 6> 산본 신도시 사업 추진 경위

시기	내용																												
1988. 8. 17.	• 시흥산본 택지개발추진계획(안) 수립																												
1988. 9. 20.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면적 4,330,000㎡)																												
1988. 11. 12.	• 시흥군과 무허가 건물 단속 협약체결																												
1988. 11. 28.	• 지형측량 착수(대한조선공사에 1989년 2월 15일까지 용역 줌)																												
1988. 12. 21.	• 택지개발예정지구 793,000㎡ 지정(건설부고시 제655호)																												
1989. 2. 27.	• 택지개발예정지구 3,537,000㎡ 지정(건설부고시 제70호)																												
1989. 3. 2.~1989. 6. 24.	• 환경영향평가 실시(삼우기술단)																												
1989. 3. 9.	• 택지개발기본계획 확정(주택공사)																												
1989. 4. 3.~1989. 6. 14.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안) 지자체 사전 협의(군포시, 안양시)																												
1989. 4. 3.~1989. 8. 30.	• 인구 및 교통 영향평가 실시(국토개발연구원)																												
1989. 6. 27.	• 택지개발 기본계획 제1차 변경(대한주택공사)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업지구 내 통과에 따른 진입도로 등의 변경																												
1989. 7. 26.	• 인구영향평가심의 완료(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1989. 8. 2.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환경청)																												
1989. 8. 16.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안양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1989. 8. 30.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492호) - 개발계획면적 : 4,330,000㎡ → 4,258,000㎡(감 72,000㎡) - 주택건설계획 : 42,500호(단독주택 1,000호, 공동주택 41,500호) - 개발기간 : 1989년 8월 30일~1992년 12월 31일																												
1989. 9. 30.	• 택지개발 기본계획 제2차 변경(대한주택공사) - 토지이용 변경																												
1989. 10. 11.	• 도시설계 수립 지시(건설부 신건 30324-23380) - 대상면적 : 4,189,365㎡																												
1989. 12. 10.	• 특별주택사업구역 지정공고(건설부 신건 30324-30718)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당초</th> <th>변경</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4,258,000</td> <td>4,258,000</td> <td>0</td> </tr> <tr> <td>주거지</td> <td>2,019,348</td> <td>2,015,328</td> <td>△ 4,020</td> </tr> <tr> <td>상업지</td> <td>226,870</td> <td>229,940</td> <td>3,070</td> </tr> <tr> <td>공공시설</td> <td>641,050</td> <td>640,110</td> <td>△ 940</td> </tr> <tr> <td>공원, 녹지</td> <td>601,710</td> <td>608,530</td> <td>6,820</td> </tr> <tr> <td>교통시설용지</td> <td>769,022</td> <td>764,092</td> <td>△ 4,930</td> </tr> </tbody> </table>	구분	당초	변경	증감	합계(㎡)	4,258,000	4,258,000	0	주거지	2,019,348	2,015,328	△ 4,020	상업지	226,870	229,940	3,070	공공시설	641,050	640,110	△ 940	공원, 녹지	601,710	608,530	6,820	교통시설용지	769,022	764,092	△ 4,930
	구분	당초	변경	증감																									
	합계(㎡)	4,258,000	4,258,000	0																									
	주거지	2,019,348	2,015,328	△ 4,020																									
	상업지	226,870	229,940	3,070																									
	공공시설	641,050	640,110	△ 940																									
공원, 녹지	601,710	608,530	6,820																										
교통시설용지	769,022	764,092	△ 4,930																										

시기	내용
1989.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855호) - 개발계획면적 : 4,258,000㎡ ⇒ 4,189,365㎡(감 68,635㎡) - 주택건설계획 : 42,500호(단독주택 1,000호, 공동주택 41,500호) - 개발기간 : 1989년 12월 30일~1992년 12월 31일
1990. 3.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1단계 분양지구 도시설계 지침 승인(건설부 신건 30324-6087)
1990. 4.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1단계 임대지구 도시설계 지침 승인(건설부 신건 30324-9927)
1990.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4,573호 건축 착공(주택공사)
1990.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6월 택지공급 민간업체 도시설계지침승인(건설부 신건 30324-16712)
1990.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7월 이후 택지공급 민간업체 도시설계지침 승인(건설부 신건 30324-18771)
1990.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건설부고시 제1012호) - 주택건설계획 : 42,500호 ⇒ 41,021호(단독주택 765호, 공동주택 40,256호)
1991.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2, 3단계 공동주택단지 도시설계 지침 승인(건설부 신건 30420-21631) - 승인면적 : 1,677,900㎡
1991.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건설부고시 제677호) - 주택건설계획 : 41,021호 ⇒ 42,039호(단독주택 556호, 공동주택 41,483호)
1991.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 및 공공부문 도시설계 지침승인(건설부 신건 30420-33461)
1992.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건설부고시 제843호) - 주택건설계획 : 42,039호 ⇒ 42,083호(단독주택 573호, 공동주택 41,510호) - 개발기간 : 1989년 8월 30일~1992년 12월 31일 ⇒ 1989년 8월 30일~1993년 12월 31일
1993.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건설부고시 제337호) - 개발계획면적 : 4,189,365㎡ ⇒ 4,190,988㎡(증 1,623㎡)
1993. 9.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건설부고시 제380호) - 개발계획면적 : 4,189,365㎡ ⇒ 4,190,988㎡(증 1,623㎡) - 주택건설계획 : 42,083호 ⇒ 41,990호(단독주택 579호, 공동주택 41,411호)
1993.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건설부 신택 58425-373) - 개발기간 : 1989년 8월 30일~1993년 12월 31일 ⇒ 1989년 8월 30일~1994년 6월 30일
1994.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건설부고시 제226호) - 개발기간 : 1989년 8월 30일~1994년 6월 30일 ⇒ 1989년 8월 30일~1994년 12월 31일
1994.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건설부고시 제339호) - 개발계획면적 : 4,190,988㎡ ⇒ 4,203,186.5㎡(증 12,198.5㎡) - 주택건설계획 : 41,990호 ⇒ 41,974호(단독주택 577호, 공동주택 41,397호)
1994.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건설교통부 택지 58541-3) - 개발기간 : 1989년 8월 30일~1994년 12월 31일 ⇒ 1989년 8월 30일~1995년 1월 31일
1995.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 준공(건설교통부고시 제58호)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53~55쪽.

2) 지구 지정과 변경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산본리 일원의 433만㎡(130만 9,825평)를 1988년 9월 20일 건설부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하였다. 지구 지정은 두 차례에 걸쳐 승인되었다. 1차 지정은 1988년 12월 21일 시흥군 군포읍 산본리 일원의 79만 3,000㎡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루어졌고, 2차 지정은 시 승격 후인 1989년 2월 27일에 군포시 산본동·금정동 및 안양시 안양동 일원의 353만 7,000㎡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루어졌다. 산본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이렇게 하여 총 433만 ㎡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1989년 8월 30일 제1차 변경을 시작으로 1994년 9월 10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지구 지정이 변경되었다. 그 결과 지정 면적이 당초 433만 ㎡에서 420만 3,186㎡로 12만 6,814㎡가 줄어 2.9% 축소되었다.

개발지구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지정 당시 토지이용은 전 23.0%, 답 19.8%, 대지 4.1%, 임야 45.8%, 기타(도로, 하천 등) 7.3%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발지구는 국도1호선을 중심으로 서측에 위치하며, 국도1호선 동측은 공업지역, 서측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로 형성되어 있었다.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동측은 주거 및 공업지역으로, 서측 및 남측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구 내 지장물로는 가옥 등 약 7,055건이 산재되어 있었고, 고압송전 첩탑(154kV)이 남북으로 5주, 동서로 6주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1988년 10월부터 개통된 금정~안산 간 전철이 지구 내 남측 부분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었고, 국도1호선에 진입하는 도로가 3개소 개설되어 있었으며, 각 폭원은 30m로 지구경계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지구 내에는 자연마을을 연결하는 농로 형태의 소로만 불규칙하게 개설되어 있을 뿐, 도로망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였다. 지형지세를 보면, 개발지구는 서·남·북측이 표고 100m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산지로 둘러싸인 평탄지로서, 서측은 고지대, 동측은 대부분 저지대의 지형적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빼어난 자연 경관을 이루고 있었으며, 자연 상태의 소나무, 오리나무, 잣목이 주종을 이루었고, 사업지구 복단 일부 지역은 밤나무 단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3)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산본 신도시 개발을 위해 최초로 승인된 기본계획에서는 425만 8,000㎡(128만 8,045평) 면적에 4만 2,500호를 건설하여 인구 17만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개발기간은 1989년 8월 30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40개월이었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구조

- 3개 노선의 주진입로를 신규로 개설하여 산본과 서울, 안산을 연결하고 간선도로와 그 연결 도로를 '井' 자형 가로망으로 구성한다.
- 중심부에 전철역 및 시청이 연결되도록 하여 정연한 모양을 갖추면서 중심성을 높이도록 하

고, 외곽에는 지형에 순응하는 도로를 개설한다.

- 지역을 도심, 도심외곽 및 외곽지역으로 구분하고, 용도, 밀도, 주택규모에 차등을 두도록 하되 동서남북의 4개 생활권으로 묶도록 한다.
- 중심지에는 시청, 도서관, 종합병원, 경찰서 등과 중심상업 업무기능을 유지하고 4개 생활권마다 가구(佳區) 센터를 배치한다.

〈표 7〉 산본 신도시 기본계획상의 주택공급

(단위: 호, %)

건설주체	주택유형	건설호수	구성비	비고
합계		42,500	100.0	
주택공사	소계	27,830	65.5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주택	14,070	33.1	
	국민주택	13,760	32.4	
민간	소계	14,670	34.5	전용면적 25.7평 이상
	분양주택	13,670	32.2	
	단독주택	1,000	2.3	

출처: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57쪽.

②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밀도 배분에서는 중앙 평탄지는 고밀도, 산록과 안산 방향 골짜기는 중밀도로 개발한다.
- 이주단지는 50평 기준, 총 1,200필지로 책정하고, 신시가지 안양 쪽 입구 측의 기존 마을 부분과 군포 연결 도로변, 두 지역에 조성한다.
- 개발밀도는 종속형 신도시(상계)와 독립형 신도시(과천) 중간수준으로 유지한다.
- 인구계층이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소형 임대주택에서부터 민간대형 분양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택유형을 공급한다.
- 중심업무지역은 계획면적의 5% 내외로 확보한다.
- 독립 시로서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한다.
- 공원 및 녹지는 계획면적의 15% 내외로 확보한다.
-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6개소 등 총 26개소를 확보한다.

③ 도로계획

- 폭원 30m 2개 노선, 35m 1개 노선 등 3개의 주진입로를 고가전철과 평행하도록 개설한다.
- 주거단지와 주진입로들을 연결하는 집분산로(集分散路)를 폭원 20~35m로 하여 300~5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수리산 기슭의 자연녹지 경계를 따라 폭원 15m 순환도로를 설치한다.

④ 시설계획

- 학교는 약 3,500호 규모의 소생활권별로 초등학교 1개소, 중생활권별로 중·고등학교 각 1개소를 배치한다.
- 시청 등 군포시가 요청한 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주로 중심지에 배치하되, 면적 및 정확한 부지 위치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확정한다.

⑤ 공원·녹지계획

- 산본 신시가지 중심부 산을 중앙공원으로 조성하고,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공공이용시설을 배치한다.
- 산록 부분 주거지에는 낮은 산을 일부 보존하고, 중앙 평탄지 주거지에는 보행 체계와 연결, 가구 중심부에 근린공원을 배치한다.
- 고가 전철 양쪽 구릉지는 전철 소음 차단을 위해 보존한다.

⑥ 광역교통체계

- 현재 안양권 내 간선도로는 정상 처리용량의 1.5배에 달하는 교통집중으로 교통체증이 심하고, 산본, 평촌 개발완료시(1992년)에는 2.5배의 교통집중으로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교통영향평가 시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하여 검토하되, 연차별 교통량 발생 및 도로이용률을 감안하고 광역도로 개설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경수 신고속도로, 시흥~안산 간 고속도로 및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필요시기에 개설하도록 수도권 교통대책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토록 한다.

⑦ 진입로

- 1992년까지 편도 총 12개 차선, 2001년까지는 총 20개 차선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5개 차선이 개설 또는 계획 중이다.
- 우선 필요한 서울 방향 3개 노선 편도 7개 차선과 군포역 방향 1개 노선 편도 3개 차선 및 안산 방향 1개 노선 편도 3개 차선은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개설하고(총 402억 원 소요 추정), 경수 간 신고속도로 및 2개 노선 편도 5개 차선은 군포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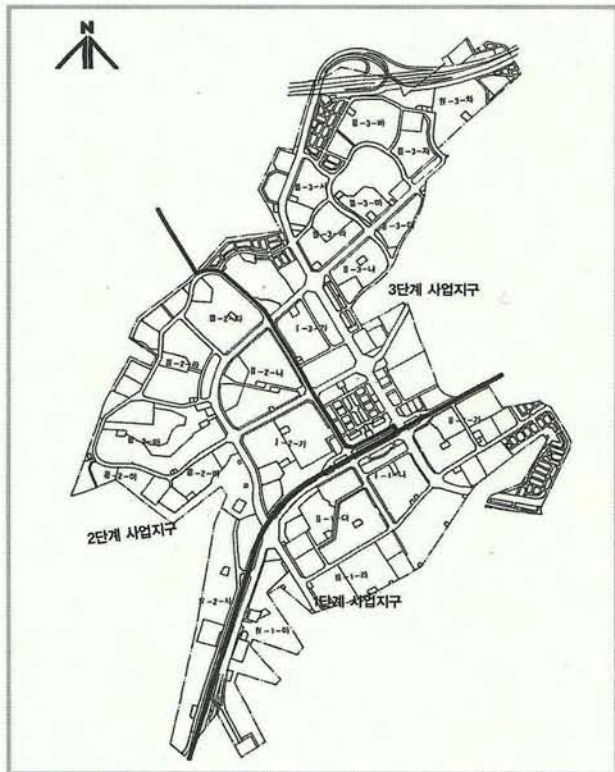
⑧ 기존 도시계획시설 처리

- 지구 지정 협의 시 군포시로부터 군포고등학교, 산본중학교, 종합사회복지원(엘림복지원) 및 유진운수 버스정류장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한다.
- 엘림복지원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서울시가 제공한 약 2만 평의 부지에 120억 원을 투입, 1988년 7월에 준공한 시설로서, 현재 불우청소년 및 무의탁 노인을 수용·보호중인바, 강제철거 시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되며, 존치한 상태에서도 개발계획 수립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존치토록 한다.
- 군포고등학교, 산본중학교는 현 위치에 두고 이용하도록 하고, 버스정류장은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에 맞추어 위치를 이전한다.
- 사업지구 내 한국어린이선교원신학교는 대한기독교연합회 총회재단 소유로 문화공보부가 허가한 종교·교육시설이고, 철거·수용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부지를 정형화하여 존치하도록 한다.

⑨ 난방대책

- 폐쇄적인 지형여건으로 재래식 난방방식 채택 시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 및 굴뚝 난립에 의한 도시경관의 손상이 우려된다.
- 종래의 단지별 중앙난방 방식을 지양하고, 광역지역난방, 산본 독자적인 고온수(高温水) 난방 또는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난방 등 공해의 우려가 적고 비용이 저렴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추진한다.

기본계획에서는 택지 매수, 지장물 철거, 대지 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 설치는 일괄적으로 시행하도



산본 신도시 건설 단계별 사업구분도⁴⁾

4)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60쪽.

록 계획되었다. 이 외에 사업의 핵심인 주택건설은 블록별 주택유형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지구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계획되었다.

4)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

(1) 토지이용 및 공종별 계획

산본 신도시 개발을 위해 최초로 승인된 실시계획에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은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의 개발공급이다. 사업지구의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당동 및 안양시 안양동 일원' 이고, 면적은 418만 9,365㎡(126만 7,283평) 규모였다. 사업기간은 1989년 12월 30일

〈표 8〉 산본 신도시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	평			
계	4,189,365	1,267,283	100.0		
주택용지	소계	1,911,930	578,359	45.7	
	공동주택	1,680,630	508,391	40.2	
	단독주택	231,300	69,968	5.5	
상업용지	소계	228,000	68,970	5.4	
	중심상업	100,320	30,347	2.4	
	일반상업	100,280	30,335	2.4	
	근린상업	27,400	8,288	0.6	
공공시설 용지	소계	2,049,435	619,954	48.9	
	학교	324,750	98,237	7.7	
	공원·녹지	636,285	192,476	15.2	
	운동장	82,220	24,872	1.9	종합운동장(1개소)
	도로	544,520	164,717	13.0	
	광장	191,050	57,792	4.6	
	자동차정류장	20,900	6,322	0.5	
	철도용지	39,530	11,957	0.9	
	공용청사	87,100	26,348	2.1	시청 외 7개소
	업무시설	17,200	5,203	0.4	전신전화국, 한전
	전기공급시설	7,200	2,178	0.2	변전시설
	종합의료시설	7,100	2,148	0.2	종합병원(1개소)
	사회복지시설	58,600	17,727	1.4	엘림복지원 정형화
	시장	6,460	1,954	0.2	소매시장(1개소)
	종교시설	22,940	6,940	0.5	선교원 정형화
주차장	3,580	1,083	0.1	노외주차장	

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기본계획보다 4개월 정도 줄어든 36개월이었다.

한편, 이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전체 면적의 48.9%를 차지하여 가장 넓게 계획되었다. 주요 공공시설로는 시청을 비롯한 공용청사가 7개소, 종합운동장 1개소, 전화국과 병원 등이 계획되었다. 공공시설용지 다음으로는 주택용지가 45.6%, 상업용지가 5.4%를 차지하였다.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의 경우, 주택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공급하되, 민간기업과 협동개발로 조성하는 택지와 이주대책용지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주택공사)가 직접 국민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계획되었다. 유상시설용지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단위 시설별로 관계법령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상업시설용지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계획되었다. 이 외에 공공시설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해당 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계획되었다.

한편, 공종별(工種別) 사업시행계획은 <표 9>와 같다. 사업지구에 대한 용지매입 및 보상을 1989년 9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16개월로 계획하였고, 이를 위한 조사설계는 1988년 11월부터 1990년 4월까지 18개월로 계획되었다. 사업의 핵심인 택지조성공사는 1989년 12월 시작하여 1992년 12월까지로 계획되었다.

<표 9> 공종별 사업시행계획

구분	사업량	사업기간	
용지매입 및 보상	4,189,365m ²	1989.9 ~ 1990.12.	
조사설계	지형 측량 등	1988.11 ~ 1990.4.	
택지조성	대지조성공사 성토 : 8,617,000m ² 절토 : 7,859,000m ² 옹벽 : 2,437m	1989.12 ~ 1991.6.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7,060a	1989.12 ~ 1991.6.
	상수도 간선공사	44,565m	1989.12 ~ 1991.3.
	하수도 간선공사 오수 : 44,450m 우수 : 35,365m 암거 : 12,323m		1989.12 ~ 1991.3.
	조경공사	공원, 녹지, 도로, 상업용지 등	1990.10. ~ 1992.12.
	전력간선 지중화 공사	1식	1990.4. ~ 1991.3.
	지구외 진입도로 공사	1식	1990.3. ~ 1992.12.
	기타	1식	1989.12. ~ 1992.12.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쪽.

(2)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산본 신도시 건설을 위한 용지매수 및 보상내역을 보면, 총 4,097억 3,000만 원으로 계획되었고, 그중 토지 보상비는 3,668억 5,500만 원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하였다. 택지조성에는 총 2,226억 3,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의 부문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용지매수 및 보상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량	금액
계			409,730
보상비	소 계		391,327
	토 지	4,189,365m ²	366,855
	지장물	가옥 등 약 7,055건	24,472
대체농지조성비		1,829,549m ²	5,057
부대비			13,346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1쪽.

② 택지조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공사비
합계		222,639
조사설계비	지형측량, 기본설계	1,110
대지조성공사	절토, 성토 : 16,476,000m ² 옹벽 : 2,437m(H=1.0~8.0m)	24,830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7,060a	18,933
상수도 간선공사	44,565m(D80~600m/m)	1,395
하수도 간선공사	우수 - 배수암거 : 12,323m(1.5×1.5m, 5련 3.5×3.0m) - 배수흡관 : 35,365m(D450~D1, 350m/m) 오수관 : 44,450m(D350~D900m/m)	16,730
하수처리 부담금	1식	21,000
조경공사	공원, 녹지, 도시계획도로, 상업용지	8,641
전력간선 지중화 공사	전력간선, 통신간선, 가로등	7,000
과천선전철 부담금	1식	40,000
지구외 진입도로 공사	5개 노선 약 4,010m	46,000
산본역사공사	1식	6,800
기타	1식	30,200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2쪽.

③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 연도	합계	1989	1990	1991	1992
합계	6,324	2,272	2,939	668	445
용지매수 및 보상비	4,097	2,049	2,048	-	-
조성비	2,227	223	891	668	445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2쪽.

④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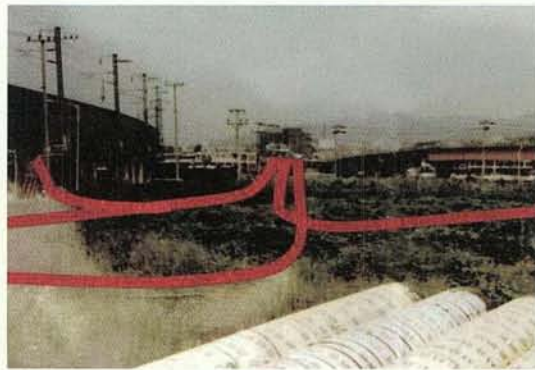
구분 \ 연도	합계	1989	1990	1991	1992
합계	6,324	2,272	2,939	668	445
민간합동개발용지 매각	2,124	1,487	637	-	-
국민주택기금	1,303	295	277	325	406
주택공사 자체자금	2,897	490	2,025	343	39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2쪽.

(3) 세부 시설계획

산본 신도시 시설계획을 보면, 기반시설로서 도로는 54개 노선에 총 연장 2만 4,600m가 계획되었다. 인구 증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학교수도 크게 늘리도록 하였는데, 초등학교 13개소, 중학교 7개소, 고등학교 6개소 등 총 23개 학교가 계획되었다. 공용청사로는 시청을 비롯하여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주요 공공시설이 모두 계획에 포함되었다.

세부 시설계획의 부문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본 진입도로 중 금정C교 공사현

제 1 장 도시개발의 배경과 과정

① 도로계획

(단위 : m, 개, m²)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	면적	사용형태	기능
합계			54	24,600	544,520		
광로	3	40	1	750	30,288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대로	1	35	4	4,573	159,693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대로	2	30~35	3	2,207	70,88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대로	3	25	1	1,138	30,131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중로	1	20	9	6,753	134,31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중로	2	15~18	7	2,363	41,005	일반도로	국지도로, 구획도로
중로	3	12	12~30	3,994	51,093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국지도로, 구획도로
소로	1	10	10	1,578	16,385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구획도로
소로	2	8~22	4	961	9,218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구획도로
소로	3	4~6	3	283	1,512	보행자전용도로	구획도로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3쪽.

비고 : 간선도로는 외부도로와의 연결기능을 담당하고, 신도시 중심지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국지도로는 간선도로에서 각 주거단지로의 연결 기능을 담당한다.

② 공원녹지계획

(단위 : 개소, m²)

시설명		수량	면적
합계		66	636,285
공원	소계	42	354,030
	근린공원	11	296,020
	어린이공원	31	58,010
녹지	소계	24	282,255
	완충녹지	12	96,685
	경관녹지	12	185,570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3쪽.

③ 학교시설계획

(단위 : 개소, m²)

시설명	수량	면적	비고
합계	26	324,750	
초등학교	13	147,220	
중학교	7	87,910	기존 산본중학교 정형화
고등학교	6	89,620	기존 군포고등학교 정형화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3쪽.

④ 공용청사계획

(단위: 개소, m)

시설명	수량	면적	비고
합계	8	87,100	
시청	1	40,000	보건소 포함
교육청	1	5,000	
세무서	1	3,000	
경찰서	1	12,350	
소방서	1	4,000	
등기소	1	2,000	
우체국	1	3,750	
시민회관	1	17,000	

출처: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4쪽.

⑤ 업무시설계획

(단위: 개소, m)

시설명	수량	면적
합계	2	17,200
전신전화국	1	9,900
한전	1	7,300

출처: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4쪽.

⑥ 광장계획

(단위: 개소, m)

시설명	수량	면적
합계	13	191,050
교통광장	7	181,950
미관광장	6	9,100

출처: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4쪽.

⑦ 자동차 정류장계획

(단위: 개소, m)

시설명	수량	면적
합계	3	20,900
시내버스 터미널	2	16,900
시외버스 터미널	1	4,000

출처: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4쪽.

(4)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산본 신도시 개발 당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이 인정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관계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협의 매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총 2,972필지 418만 9,365㎡에 대해 4,097억 3,000만원이 토지 매수 및 보상금으로 계획되었다.

〈표 10〉 토지매수와 보상 현황 및 추진계획

(단위 : 필지, ㎡, 백만원)

구분		필지수	면적	금액	추진계획	
합계		2,972	4,189,365	409,730		
토지	사유지	2,587	3,808,846	366,467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불성립 및 불능 시 수용	
	국공유지	소계	385	380,519	388	
		유상	4	5,379	388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에 반영 후 매입조치
		무상	381	375,140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지장물		7,055건	-	24,472	관계법에 따라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대체농지조성비			1,829,549	5,057		
기타		1식		13,346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5쪽.

한편, 이주대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 처리하여 수립되었다. 이주대책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상자 : 동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준용)
- 이주방법 : 사업시행자가 동 지구 내 건설하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용지 공급
- 대상자 선정 : 현지 조사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행방안 별도 수립
- 기타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 별도 협의 조치

위와 같은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있어 그 대상은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공시송달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지 및 당해 지방지 일간 신문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다.

(5) 공공시설·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공공시설·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을 보면, 우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 무상 귀속될 기존 공공시설부지는 총 190필지에 21만 4,753㎡로 계획되었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될 신설 공공시설부지는 137만 1,855㎡로 계획되었다.

공공시설·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의 부문별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시행자(주택공사)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 공공시설부지

(단위 : 필지, ㎡)

구분	합계		건설부		경기도		군포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90	214,753	136	210,743	3	663	51	3,347
도로	146	92,149	92	88,139	3	663	51	3,347
구거	24	34,038	24	34,038	-	-	-	-
하천	20	88,566	20	88,566	-	-	-	-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6쪽.

②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될 신설 공공시설 부지

(단위 : m, 개소, ㎡)

시설구분	폭원	수량	연장	면적
합계		133	161,303	1,371,855
도로	4~40	54	24,600	544,520
광장		13		191,050
공원·녹지		66		636,285
• 근린공원		11		296,020
• 어린이공원		31		58,010
• 경관녹지		12		185,570
• 완충녹지		12		96,685
상수도			44,565	
하수도			92,138	

출처 :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6쪽.

5) 사업평가와 건설효과

(1) 신도시 건설사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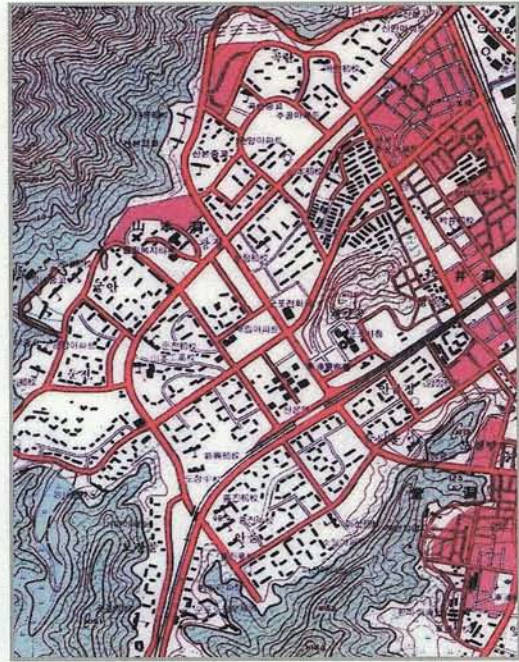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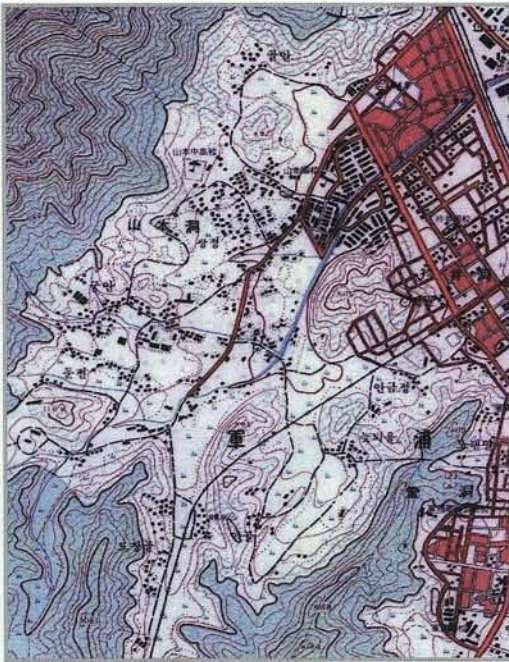
산본 신도시 건설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의해 추진되었던 만큼, 그 추진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효과를 거두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 준공'을 비교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사업기간을 보면 당초 계획에선 1989년 8월 30일에 착수하여 1992년 12월 31일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1995년 1월 31일에 준공됨에 따라 2년여가 더 소요된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용지는 201만 9,348㎡에서 181만 544.7㎡로 10.3% 줄었고, 상업용지도 22만 6,870㎡에서 16만 591.7㎡로 29.2% 축소되었지만, 공공시설용지는 201만 1,782㎡에서 223만 2,050.1㎡로 10.9%가 늘었다. 주택 및 인구수용 계획을 보면, 건설호수는 4만 2,500호에서 4만 1,974호로 1.2% 줄었고, 수용인구도 17만 명에서 16만 7,896명으로 1.2% 줄었다. 용지보상면적은 425만 8,000㎡에서 420만 3,000㎡로 1.3% 줄었고, 조성공사면적도 425만 8000㎡에서 420만 3000㎡로 1.3%로 줄었다. 투입된 자금은 5,937억 원에서 9,033억 원으로 52.1% 증액되었다.

설치된 시설물을 보면, 도로의 경우 노선수가 41개소에서 140개소로 241.4%나 늘었다. 도로연장은 2만 2,851m에서 3만 7,143m로 62.5% 증가했고, 도로면적은 60만 3,189㎡에서 63만 9,193.1㎡로 6% 정도 늘었다. 공원·녹지의 경우, 수량은 61개소에서 71개소로 16.3% 늘었고, 면적은 60만 1,710㎡에서 64만 9,379.3㎡로 7.9% 늘었다. 학교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은 당초 계획대로 26개가 설치되었다. 공용청사(시청,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우체국, 시민회관 등)의 수는 8개소에서 28개소로 250% 늘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파출소 6개소, 동사무소 10개소, 우체분국 2개소, 소방파출소 2개소가 각각 추가 설치되었다. 업무시설(전신전화국, 한국전력, 관세청 등)은 2개소에서 4개소로 100% 늘었다. 전기공급시설(변전시설, 송전시설)의 수는 1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에 없던 송전시설 15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복지원, 노인정, 탁아시설)도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다. 광장(교통광장, 미관광장)의 수는 10개소에서 17개소로 70% 늘었는데, 특히 미관광장이 배나 늘어났다. 기타 공공시설(종교시설, 종합의료시설, 시장, 운동장,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철도용지 등)은 26개소에서 37개소로 42.3%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산본 신도시 건설이 주택의 대량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사업 내용에서 주택시설은 당초대로 공급된 데 비해 주거활동을 돕는 공공시설부분이 대폭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도시가 자족적인 거주지로 기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함에서 바람직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산본 신도시 건설기 지형 변화

두 지도는 1:25,000 지형도의 군포 도엽 중 산본 신도시 일대에 해당한다. 좌측은 1991년 수정(1992년 발행)지도이고, 우측은 1996년 수정(1997년 발행)지도이다. 도로를 비롯해서 각종 공공시설과 아파트 단지의 입주로 몇 년 사이에 지형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대한주택공사의 사업평가⁵⁾

① 개발계획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산본 신도시에 대단위 택지를 개발하고 신시가지로 계획적으로 조성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가격안정이라는 당초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도로계획과 단지계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고, 다양한 주택 수요에도 부응하기 위해 평형도 12평에서 56평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공급되었다. 그러나 가용택지의 한계로 고밀도 주거단지를 양산하였고, 아파트 층고도 고층 일변도여서 시각적 안정감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산본 신도시 내에는 1백 년 빈도의 홍수량을 대비하기 위한 홍수조절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는 기존 산본천을 복개하여 홍수 시 안양천 범람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야공원과 중앙공원 내에 각각 조절지를 건설하였으며, 평소에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례는 학술적, 정책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5) 대한주택공사, 1997, 『산본신도시 개발사』, 712~718쪽.

중심상업지역 내 쇼핑몰은 지역적, 문화적 단층현상을 극복하고자 전통방위 개념과 음양오행의 개념을 도입하여 건설하였는데,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군포시의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로교통망계획도 서울과의 원활한 통행 확보에 초점을 두어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였고, 기존 시가지와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6개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 또한 인근 도시와의 연결도로망도 설치·확장하였다.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역내 도로를 접속시켜,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의 교통흐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② 주택공급

산본 신도시에 건설된 주택은 총 4만 1,974호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98.6%(4만 1,397호)로 월등히 높고, 단독주택은 1.4%(577호)에 불과하다. 공동주택 중 67.1%(2만 7,772호)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였고, 나머지 32.9%(1만 3,625호)는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였다. 건설된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이 전체 공급물량의 20.1%(8,303호)를 차지하고 있고, 분양주택은 79.9%(3만 3,094호)가 건설되었다.



완공 직후 신도시 13단지 아파트

이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가 72.9%(3만 195호)를 차지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도 27.1%(1만 1,202호)가 건설되었다. 특히 전용면적 18.2평 이하가 35.3%(1만 4,615호)로 5개 신도시 중 소형주택이 가장 많이 건설되었다. 이 밖에도 전용면적 18.2평 이상 25.7% 이하의 국민주택이 37.6%(1만 5,580호) 건설되었다.

이 같은 물량의 주택은 군포시의 주택보유 총수 5만 3,872호(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54.3%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포시의 주택난 해소와 주택 보급률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산본 신도시와 함께 다른 신도시에서도 주택의 대량공급이 일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1991년 5월부터 전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12월부터는 하향국면으로 접어들어 주택가격 안정세는 빠르게 안착되었다.

③ 주거환경

산본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보다 시청사 등 공공시설과 금융기관, 쇼핑몰 등의 편의시설이 일찍

들어섰다. 또한 입주와 동시에 안산-산본-과천-사당 방면의 전철이 개통되어 운행되었고 금정역에서는 경부선 철도와도 연결되었다. 안양 평촌 신도시와 연계되는 도로망이 형성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해소되었다. 한편 산본 신도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43.6%가 서울에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중 50%가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들 중 53.9%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산본 신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 우려가 일찍부터 지적되었다.

산본 신도시 입주민들의 입주 전후 주거수준을 비교해 보면, 가구당 사용방수는 0.5개, 사용면적은 4.5평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목욕탕 보유 비율도 각각 22.8%, 30.3%, 41.6%로 크게 증가하여, 입주가구의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공사시공

건설공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구를 48개로 분할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공구 구분은 우선 현지 여건과 시공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진입도로, 단지형태, 지형상태, 아파트의 구조유형, 임대 및 분양 등 사업유형별로 공구를 구분한 후, 시행업체의 장비 및 기능, 인력수급, 공정관리 등 공사수행능력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로 다시 분할했다. 그리고 공정이 부진한 공구와 시공 상태가 미흡한 공구는 특별대책반에서 관리하였다.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시공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시공업체의 시공능력과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게는 혜택을 주고 부실한 업체에게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저가낙찰이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져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 공구는 특별관리공구로 지정하여 착공단계에서부터 중점 관리하였다. 시공업체가 공사 중 부도가 났을 때에는 입주차질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특별관리공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미관개선을 위해 건물외관과 각종 시설물의 형태, 색상에 대한 종합적인 디자인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변화 있는 단지조성을 위해 구릉지 등 지역여건이 특수한 공구는 단지별로 설계를 추진하여 시공하였다. 또한 양호한 수목은 보존활용하고 경사와 구릉지 지형에 맞는 시설물 배치 등 단지환경보존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그 밖에도 설문조사, 주부모니터링 운용 등을 통해 입주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설계에 반영하였다.

(3) 신도시 건설의 효과

준공된 산본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지역이 43.1%, 상업지역이 3.8%를 차지했다.

이는 산본 신도시가 기존 시가지를 확장하면서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신시가지로 조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주거기능 중심의 신도시 건설은 해당 사업이 처음부터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 수용하되, 특히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당초 목적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려 준다.

산본 신도시는 안양과 연계된 건설로 도시기능이 대폭 제고되어 당초 건설목적인 인구유입과 정착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은 서울 및 인근 지역의 인구를 신도시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배가시켰다. 그 결과, 입주 첫해인 1992년에는 전년 대비 21.9%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고, 1993년에는 36%, 1994년엔 25.6%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표 11〉 산본 신도시 건설 후 군포시 인구 및 가구 증가 추세

(단위: %)

연도	인구		세대수		주택수	
	명	증가율	세대	증가율	호	증가율
1991	107,387	-	34,689	-	13,886	-
1992	130,937	21.9	40,806	17.6	25,091	80.7
1993	178,076	36.0	55,255	35.4	40,420	61.1
1994	223,606	25.6	70,128	26.9	52,729	30.5
1995	245,190	9.7	78,036	11.3	53,872	2.2

출처: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군포시, 『군포소식』 1996년 4월 3일.

비고: 인구 및 세대수는 「인구 및 가구」, 주택수는 「주택 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995년 주택수는 1996년 4월 3일자 『군포소식』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산본 신도시는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로 균형적인 인구구조가 구축되고, 인구이동이 방지되며, 계층 간 갈등소지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도시 내에 임대주택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이 골고루 공급되고, 평형도 소득계층에 따라 거주할 수 있도록 12평에서 56평까지 다양하게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쇼셜 믹스(social mix) 효과' 라 부른다.

〈표 12〉 평형별 주택공급 현황

(단위: 호)

구분	계	12~19평	20~32평	33~40평	41~50평	51평 이상
계	41,397	13,793	16,402	6,031	3,898	1,273
임대주택	8,303	7,405	898	-	-	-
국민주택	21,892	6,388	15,504	-	-	-
민영주택	11,202	-	-	6,031	3,898	1,273

출처: 건설교통부, 1994, 『택지개발변경승인서』; 대한주택공사, 1996, 『주택통계편람』.

비고: 분양면적 기준, 단독주택용지 577필지 제외.

또한 산본 신도시 건설 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도시성격이 중소규모의 경공업 중심 도시에서 주거 중심의 도시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수도권 배후 거점도시로서의 서울 및 인근지역의 인구분산에 기여하는 주요 위성도시로 부각되었다.

〈표 13〉 산본 신도시 입주 전의 거주지 분포

(단위: %)

구분	합계	서울	군포시	수도권 도시	인천	기타
구성비	100.0	43.6	10.9	38.8	5.5	1.2

출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4, 『신도시중간종합평가』.

산본 신도시 건설로 지역의 교통체계도 크게 개선되었다. 산본 신도시에는 신·구 시가지를 잇는 효율적인 간선 도로망이 구축되어 서울을 비롯한 지방의 어느 곳이라도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다. 동서로는 금정역을 분기점으로 하여 과천선(사당~금정)과 안산선(금정~안산)이 운행되고 있고, 남북으로는 국도47호선과 경부선 철도(서울~수원 간 전철)가 도심을 십자형으로 교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진입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신도시 북측의 산본IC와 연결되어 있어 교통의 요충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와의 단절된 지역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된 6개선의 진입도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시청 등 28개 공공기관이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안양 지역에까지 가서 각종 민원업무를 보아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완화되었다. 그리고 인근 안양권을 포함하는 군포권역의 상권을 신도시로 흡수하기 위하여 시청 등 공공업무시설과 전철 등의 대중 교통수단을 상업지역과 연결시켰다. 그 결과 산본 신도시는 지역행정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중심상업지역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수리산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보전녹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금융기관, 종합병원, 쇼핑몰, 시민회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모두 신도시에 수용되었다. 그 결과 문화적 환경조성과 서울 및 인근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졌다.

이렇듯 산본 신도시는 상업, 행정, 업무, 환경 등 현대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능적 시설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은 단순히 건설 공사의 완료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철저히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형 첨단업종도 유치하여, 시 승격 이후 매년 낮아지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경제적 자족 기반도 다져야 한다.

4. 신도시 건설 후 도시개발과 정비

1) 용도지역관리

일상적인 도시개발과 관리의 핵심 수단은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이다. 용도지역지구제(zoning)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은 토지의 용도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현재 군포시의 도시계획면적은 36.362km²인데, 그중 녹지지역이 25.439km²로 70.0%를 점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인 22.94km²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시가화 구역 면적은 10.98km²(30.1%)로 주거지역 7.69km², 상업지역 0.602km², 공업지역 2.63km²로 구성되어 있다. 산본 신시가지 개발로 단핵 도시구조에서 양핵 도시구조로 도시개발의 공간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녹지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자원의 고갈 문제가 군포 도시개발의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표 14〉 도시계획면적

(2008년 기준, 단위: km²)

구분	총계	녹지	주거	상업	공업
면적	36.362	25.439	7.691	0.602	2.630

출처: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61쪽.

〈표 15〉 용도지역 결정 현황

(2008년 6월 기준, 단위: km², %)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36.362	100.0
주거지역	소계	7.691
	일반주거지역	7.536
	준주거지역	0.155
상업지역	소계	0.602
	중심상업지역	0.120
	일반상업지역	0.462
	근린상업지역	0.020
공업지역	소계	2.630
	일반공업지역	2.450
	준공업지역	0.180
녹지지역	소계	25.439
	자연녹지지역	25.383
	보전녹지지역	0.056

출처: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61~462쪽.

한편, 용도지역의 하위 단위인 용도지구는 중심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가 5개소씩 상업지역 및 간선도로변에 폭 15m로 지정되어 있고, 특정 용도제한지구가 대림아파트 및 층무아파트 일원에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도시의 기능 증진 및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정비를 통해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3개소에 지정되어 있다.

〈표 16〉 용도지구 결정 현황

(2008년 기준, 단위: km)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계	18	0.234	
미관지구	10	0.147	중심지 5, 일반 5
특정용도제한지구	8	0.087	궁내, 광정, 산본, 금정1, 금정2, 재궁, 군포, 대야 지구

출처: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63쪽.

〈표 1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현황

(2008년 기준, 단위: km)

구분	지구명	면적	계획수립	비고
택지개발	산본	4,203,186	1991. 11. 30.	도시설계
택지개발	군포	282,677	1994. 8. 31.	상세계획
택지개발	군포부곡	473,328	2003. 6. 20.	
국민임대주택사업	군포당동2	436,017	2005. 8. 4.	
국민임대주택사업	송정	513,587	2007. 12. 24.	
지구단위계획	대야	13,600	2004. 4. 12.	대야동,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산본2	194,942	2005. 10. 10.	(구)주공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산본3	38,965	2007. 1. 29.	서진산업 부지
지구단위계획	둔터	67,221	2008. 2. 4.	
지구단위계획	대감	73,704	2008. 2. 4.	
지구단위계획	납다골	45,097	2008. 2. 4.	
지구단위계획	덕고개	29,110	2008. 2. 4.	
지구단위계획	속달	42,329	2008. 2. 4.	

출처: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63쪽.

「도시계획법」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현황(2008년 현재)을 보면, 총 도시계획시설 종류 52가지 중 19가지 종류가 군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 565개소, 주차장 21개소, 자동차 정류장 5개소, 철도 8개소, 광장 25개소, 공원 90개소, 녹지 43개소, 하천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개소, 시장 3개소, 수도 6개소, 공동구 1개소, 전기공급설비 16개소, 가스공급설비 3개소, 운동장 2개소, 공용의 청사 38개소, 학교 41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종합의료시설 2개소에 이른다.

〈표 18〉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단위 : 천㎡)

시설명	개소	면적	시설명	개소	면적
도로	565	2,862	수도	6	113
주차장	21	46	공동구	1	18
자동차 정류장	5	438	전기공급설비	16	10
철도	8	798	가스공급설비	3	14
광장	25	499	운동장	2	972
공원	90	548	공용의 청사	38	141
녹지	43	412	학교	41	584
하천	1	41	사회복지시설	2	62
폐기물처리시설	2	27	종합의료시설	2	14
시장	3	11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65쪽.

2) 토지개발

산본 신도시 건설 이후에도 군포 지역에서는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개발이 계속 추진되었다. 1981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과 함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년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흡수 폐지)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개발의 핵심 수단이다. 전자는 대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토지를 일괄매수(수용)해 택지를 획일적으로 조성한 후 개발업자들에게 분양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후자는 소유관계를 그대로 둔 채 토지를 구획정리한 후 체비지로 공여받은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소유권자에게 돌려주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택지개발사업

①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산본 신도시가 건설되던 시점과 비슷하게 군포시 당동 일원에 ‘군포지구 택지개발’이 실시되었다. 사업지구 동측으로 경부선 전철이 통과하고, 남측으로는 안양컨트리클럽(현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이 위치하고, 북측으로는 밀집된 기존 주택지로 둘러싸인 완경사 농경지가 펼쳐 있었다. 사업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에 해당되었다.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면적 28만 2,677㎡(8만 5,509평)에 3,452호의 주택건설과 1만 3,158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1992년 12월 24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총 사업비는 978억 1,000만 원이 소요되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1989년 6월 10일 건설부고시 제



군포지구 택지개발사업

306호로 이루어졌지만, 택지개발계획은 1992년 12월 24일 경기도고시 제565호로 승인되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2개 공구로 나누어 사업이 실시되었다.⁶⁾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용지가 전체의 51.7%를 차지했고, 나머지 48.3%는 공공시설 및 기타 용지였다. 총 주택용지 14만 6,262㎡ 중 92.0%가 공동주택용이고 나머지 8.0%가 단독주택용이었

〈표 19〉 군포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단위 : ㎡,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합계	282,677	261,116	21,561	100.0		
주택건설용지	소계	146,262	146,262	-	51.7	
	단독	11,714	11,714	-	4.1	
	공동	134,548	134,548	-	47.6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	소계	136,415	114,854	21,561	48.3	
	공용청사	1,380	1,380	-	0.5	문화복지회관
	업무시설	984	-	984	0.3	
	운동시설	689	-	689	0.2	
	판매시설	3,899	3,899	-	1.4	6필지
	주유소	1,317	1,317	-	0.5	
	학교	48,248	48,248	-	17.1	초 2, 중 1, 고 1
	사회복지시설	3,408	3,408	-	1.2	
	도로	58,446	41,359	17,087	20.7	
	공원	8,239	8,239	-	2.9	어린이공원 5개
	완충녹지	8,109	5,308	2,801	2.9	5개소
	주차장	1,696	1,696	-	0.6	

출처 : 군포시, 2000, 『시정백서』, 550쪽.

6) 대한주택공사, 2005,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 총람(2000~2004)』, 79~82쪽.

다.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 중에서는 도로와 학교 용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②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자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에 친환경적인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업지구는 2002년 6월 28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건교부고시 제 2002-130호), 2003년 3월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은 2003년 6월 20일(건교부고시 제 2003-157호) 이루어졌다.⁷⁾

2008년 12월 31일 최종변경승인일 기준으로 이 사업의 규모를 보면, 군포시 남동부의 의왕시와 연결한 부곡역 일원 47만 3,328.3㎡(14만 3,182평)이고, 건설호수는 2,769호(단독 111호, 공동 2,658호)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20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이다. 현재 사업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 중 단독주택용지 6.0%, 공동주택용지 33.1%, 근린생활용지 0.5%, 상업용지 1.1%, 공공시설용지 59.3%로 구성되어 있다.

〈표 20〉 부곡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단위: ㎡, %, 세대)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73,328.3	100.0	2,769
단독주택용지	28,338.1	6.0	111
공동주택용지	156,816.1	33.1	2,658
근린생활용지	2,374.6	0.5	
상업용지	5,199.7	1.1	
공공시설용지	280,599.8	59.3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사업안내' → '녹색도시' → '택지개발사업'.

부곡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 및 이용이 되도록 MA(Master Architect) 설계방식을 도입하여 최적의 단지로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을 완비하여 주택수급의 안정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계획기법으로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부곡 역세권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군포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본 사업이 기여하도록 노력하였다.

③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군포당동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군포 당동2지구에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 「당동2국민임대주택개발계획(안)」은 2004년 11월 1일에서 16일 사이에 주민공람을 거쳤고,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은 2005년 8월 4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7호에 의해 이루어졌다.

2007년 11월 9일 최종변경승인일 기준으로, 이 사업의 규모는 당동과 부곡동 일원 43만 6,017㎡ (13만 2,126평) 부지에, 건설호수는 2,893호(단독 113호, 공동 2,780호)이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4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 중 단독주택용지 6.7%, 공동주택용지 34.8%, 준주거용지 1.3%, 공공시설용지 57.2%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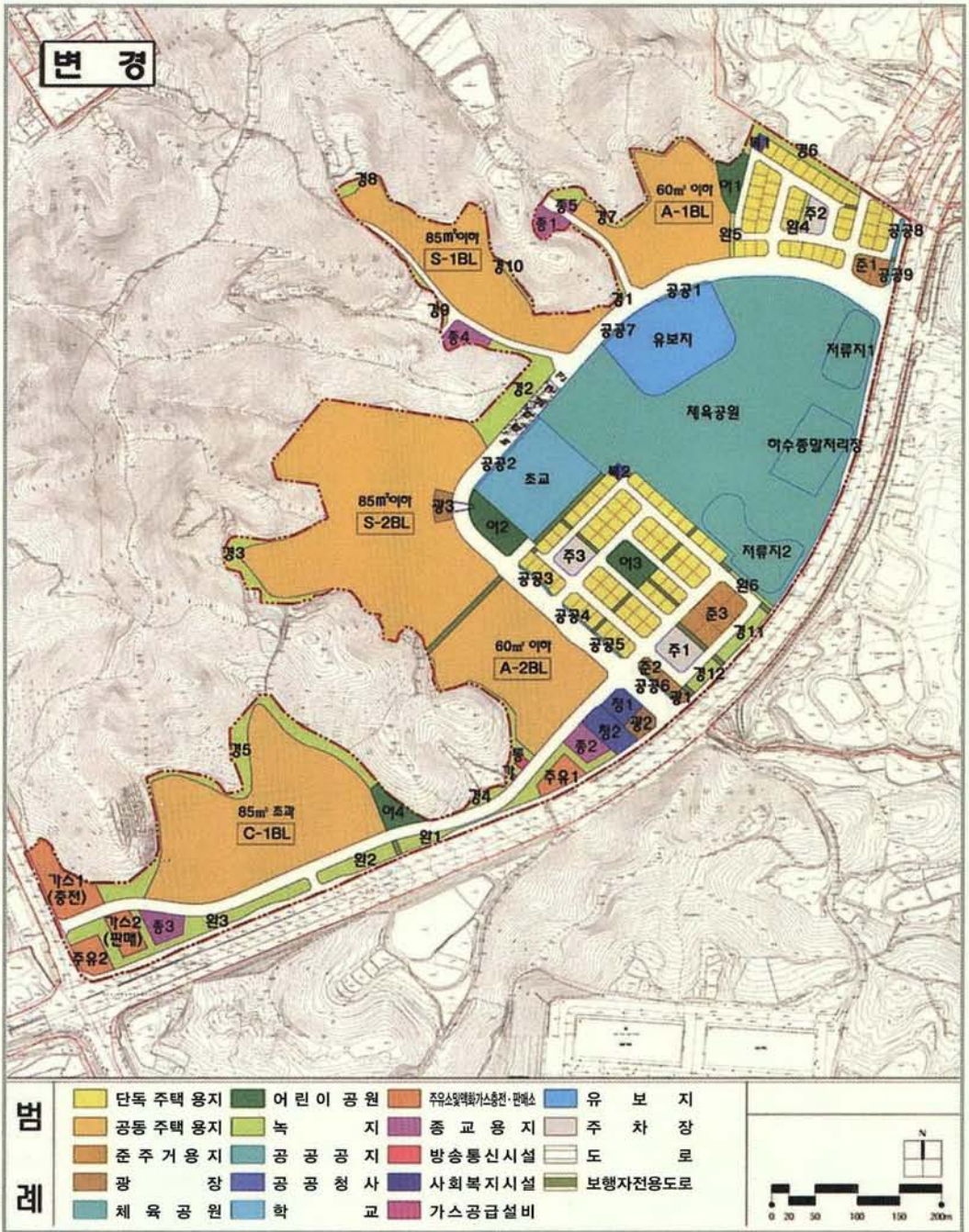
〈표 21〉 군포당동2 국민임대단지예정지구 토지이용계획

(단위: ㎡, %, 세대)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36,017.6	100.0	2,893
단독주택용지	29,356.3	6.7	113
공동주택용지	151,649.5	34.8	2,780
준주거용지	5,608.9	1.3	
공공시설용지	249,402.9	57.2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사업안내' ⇒ '녹색도시' ⇒ '택지개발사업'.

군포당동2지구는 군포시청으로부터 남측 약 2.5km 지점에 위치하며, 기존 시가지 및 산본 신도시와 연결하고 있다. 지구 동측에 경부선 철도(군포역, 당정역)가 있으며, 남측으로 영동고속도로(군포IC) 및 국도47호선, 서측으로는 수도권전철 안산선(대야미역, 수리산역) 및 영동고속도로(반월IC)와 인접하여 대중교통 및 생활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또한 주변경관이 수려한 수리산 자락에 입지하여 주거단지로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임을 감안하여 공원 녹지율을 29% 이상 확보하고 15층 이하의 아파트와 저층 위주의 주택을 건설하는 등 친환경적인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건설 단계까지 이어지는 MA 설계기법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토지이용계획도

④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군포송정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송정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송정 국민임대주택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은 2006년 6월 23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실시되었고,

예정지구 지정은 2007년 6월 4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7호로 이루어졌다.

2007년 12월 24일 최종변경승인일 기준으로, 사업규모는 도마교동, 대야미동 일대 51만 3,587.5㎡(15만 5,182평), 건설호수는 3,400호(단독 75호, 공동 3,325호), 사업기간은 2007년 6월 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다. 토지이용계획은 단독주택용지 3.7%, 공동주택용지 35.2%, 준주거용지 1.3%, 공공시설용지 59.8%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 군포송정 국민임대단지예정지구 토지이용계획

(단위 : ㎡, %, 세대)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513,587.5	100.0	3,400
단독주택용지	18,990.9	3.7	75
공동주택용지	180,893.7	35.2	3,325
준주거용지	6,688.1	1.3	
공공시설용지	307,014.8	59.8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사업안내' ⇒ '녹색도시' ⇒ '택지개발사업'.

송정지구는 군포시 남측 경계인 안산시 인접 지역에 위치한 수도권 서남부 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군포IC), 국도47호선, 국철 1호선 의왕역 및 지하철 4호선 연장노선인 안산선 대야미역, 반월역과 인접해 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 때문에 송정 국민임대단지는 군포 인근 공단종사자의 임대수요와 안양시 등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분양수요를 수용하게 된다. 주변 산지를 활용해 공원 녹지율을 30% 이상으로 확충하고, 건물도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배치한다. 또한 기존 시가지와 분리된 생활환경 보안을 위해 초·중·고등 교육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시설설계 과정에서 확보하게 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① 금정지구

금정지구의 남측과 서측은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북측은 산본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이곳은 1987년 12월 1일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며, 주택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이 사업지구에서 시행되었다.

이 지구의 위치는 금정동 315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만 2,676㎡(6,859평), 수용인원 240세대 860명이다. 사업비는 23억 1,2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1993년 9월 5일부터 1997년 8월 26일까지였

으며, 사업시행자는 군포시다.

② 당동지구

당동지구의 서측과 북측은 안양 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남측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사업이 실시 중이었다. 이에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여 주택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이 사업지구에서 실시되었다.

당동지구의 위치는 당동 249번지 일대였고, 면적은 19만 1,578㎡(5만 7,959평), 수용인원은 2,258세대 7,900명이다. 사업비는 159억 5,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1995년 1월 4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였다. 사업시행자는 군포시다.

③ 당동2지구

좁은 면적에 많은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여 인구밀도가 크게 높아진 군포시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개발 가능지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였다. 이에 1994년 3월에 변경 승인된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당동2지구가 속해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이듬해 1995년 4월 25일(경기도고시 제128호) 안양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다. 용도변경과 함께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를 위해 부과된 조건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토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지구의 위치는 당동 51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2만 6,970㎡(9만 8,907평), 수용인원 3,686세대 1만 1,796명이다. 사업비는 630억 5,6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1999년 5월 10일부터 2006년 5월 8일까지였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군포시다.

④ 당정지구

당정지구는 당동2지구와 동일한 배경과 이유로 같은 날짜에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의 지정과 함께 사업 결정(1996년 9월 25일 경기도고시 제258호)이 이루어졌다.

이 지구의 위치는 당정동 604-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9만 6,460㎡(15만 178평), 수용인원 4,026세대 1만 3,459명이다. 사업비는 721억 8,6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1999년 5월 10일부터 2007년 5월 9일까지였고, 사업시행자는 군포시다.

⑤ 대야지구

대야지구는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에서 군포시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6월 26일(경기도고시 제155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었다.

이 지구의 위치는 대야동 38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5만 7,319㎡(7만 7,839평), 수용인원은 3,946세대 1만 2,627명이다. 사업비는 284억 4,6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1998년 8월 12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시행자는 군포시다.

〈표 23〉 1990년대 이후 주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구분		당동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	
사업개요	위치	당동 249	당동 517	당정동 604-1	대야동 380	
	면적	㎡	191,578	326,970	496,460	257,319
		평	57,959	98,907	150,178	77,839
	수용규모	세대	2,258	3,686	4,026	3,946
		명	7,900	11,796	13,459	12,627
	평균 감보율(%)	37.5	49.8	43.9	40.0	
	사업비(백만원)	15,958	63,056	72,186	28,446	
	사업기간	1995. 1. 4~ 2000. 12. 31.	1999. 5. 10~ 2006. 5. 8.	1999. 5. 10~ 2007. 5. 9.	1998. 8. 12~ 2007. 12. 31.	
시행자	군포시	군포시	군포시	군포시		
토지이용	계(㎡)	191,578	326,926	496,459	257,310	
	주거용	소계	132,463	197,541	259,699	167,337
		일반	132,463	67,462	157,412	67,196
		공동	-	130,079	102,287	100,141
공공용지	59,115	129,385	236,760	89,973		
추진사항	사업결정	1992. 10. 17.	1996. 9. 25.	1996. 9. 25.	1996. 6. 26.	
	지적고시	1993. 3. 11.	1996. 10. 11.	1996. 10. 11.	1996. 8. 14.	
	사업시행명령	1994. 3. 28.	1997. 11. 18.	1997. 11. 18.	1997. 1. 23.	
	교통영향평가심의필	1992. 1. 24.	1997. 12. 29.	1997. 12. 24.	1997. 10. 2.	
	환경영향평가승인	-	1998. 11. 3.	1998. 11. 30.	-	
	사업시행인가	1995. 1. 14.	1999. 5. 10.	1999. 5. 10.	1998. 8. 12.	
	환지계획인가	1995. 10. 13.	2000. 1. 29.	2000. 1. 29.	1999. 6. 23.	
	공사착공	1995. 7. 29.	2000. 8. 1.	2000. 7. 31.	1999. 8. 12.	
사업완료	2000. 12. 31.	2004. 12. 31.	2004. 12. 31.	2004. 12. 31.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68~469쪽.

3)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 관리

1971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큰 변동 없이 유지, 관리되고 있다. 2000년 전후의 제도 완화 조치에 의해 군포시의 개발제한구역도 일부 해제되어, 총 면적 기준으로 2000년 24.71km²에서 2008년 23.01km²로 줄었고, 시 전체 면적 비중으로 2000년 67.9%에서 2008년 63.1%로 줄었다. 이는 1ha당 20호 이상, 10호 이상인 취락지와 조정가능지 중에서 지역현안사업(부곡택지, 당동2·송정 국민임대, 복합터미널 확충) 부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11개 동 중 9개 동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구역 내 건축물은 371동으로 군포시 전체 인구의 0.1%에 해당하는 234명이 상주하고 있다. 구역관리를 위해 초소 1개 가 운영되고 있고, 경계표석이 1,041개 설치되어 있으며, 4명의 인원이 관리를 맡고 있다.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전과 답이 21.4%, 임야가 6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구분	행정구역		개발제한구역					관리직원(명)
	행정동수	면적(km ²)	관할동수	면적(km ²)	건축물(동)	초소(개소)	경계표석(개소)	
현황	11	36.362	9	23.013	371	1	1,041	4(일반직 2, 청경 2)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70쪽.

〈표 25〉 개발제한구역의 동별 면적

(단위 : km²)

구분	면적	구분	면적
군포1동	0.521	수리동	1.624
군포2동	3.688	궁내동	1.650
산본2동	0.280	광정동	0.052
재궁동	0.083	대야동	14.568
오금동	0.485	계 : 9개 동	22.942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70쪽.

〈표 26〉 토지이용 현황

(단위 : 필지, km²)

구분	합계		임야		전		답		대지		잡종지		기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현황	7,048	23.013	1,617	15.131	1,650	2.042	1,900	2.312	77	0.231	57	0.203	1,747	3.095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71쪽.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신규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 도로 등 공공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 남측의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신갈~안산 간 고속도로, 국도47호선, 복합화물터미널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 남아 있는 취락지들은 대개 농경지를 연접하여 지형, 지세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 자연마을들이다.

시가지와 비교할 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기반 및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쾌적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래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개발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개발을 억제하고 유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 면적 중에 63.1%가 개발제한구역이란 것은 미래를 위한 유보공간 관리가 군포 도시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뉴타운 사업

뉴타운 사업의 정식 명칭은 2006년 6월에 제정된 「재정비축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축진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소규모 지역적 개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적·체계적인 계획하에서 효율적으로 기존 도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기성 시가지 정비사업이다. 종전의 민간주도 개발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성 위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뉴타운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지역별 특성에 걸맞은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불합리한 공간구조 개선과 함께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와 개선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격 주거공간을 구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부터 급격한 도시화를 겪어 온 군포시도 2000년대 들어와 기성 시가지의 노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뉴타운사업’ 방식의 도입을 통한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군포시에 뉴타운 사업 지원법인 「재정비축진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지구, 정확히는 ‘재정비축진지구’ 두 곳이 2007년에 지정되었다. 하나는 2007년 9월 10일에 지정 고시된 ‘금정역세권재정비축진지구’(이하 ‘금정뉴타운’)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 11월 15일에 지정 고시된 ‘군포역세권재정비축진지구’(이하 ‘군포뉴타운’)이다. 금정뉴타운은 산본동과 금정동 일원의 2,719필지, 87만 2,082㎡에 지정되어 있고, 군포뉴타운은 2,677필지, 81만 2,088㎡에 지정되어 있다. 지구 지정에 앞서 토지투기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고, 재정비축진계획에 관한 용역이 수행되었다.

〈표 2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현황

(단위 : 동, 필지, ㎡)

구분	지구	지구 현황			지정 경과
		건축물	필지	면적	
현황	금정 역세권	2,157	2,719	872,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정·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2006년 10월 4일) - 면적 874,170㎡ • 금정·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2006년 11월 13일) • 금정역세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확대 지정(2007년 6월 11일) - 면적 : 295,112㎡ • 금정역세권 건축허가제한구역 확대 지정(2007년 8월 6일) - 면적 : 295,112㎡ • 금정·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2008년 10월) - 면적 : 1,684,170㎡
	군포 역세권	2,110	2,677	812,0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정·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2006년 10월 4일) - 면적 874,170㎡ • 금정·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2006년 11월 13일) • 군포역세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확대 지정(2008년 1월 21일) - 면적 : 561,329㎡ • 군포역세권 건축허가제한구역 확대 지정(2008년 3월 3일) - 면적 : 561,329㎡ •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2008년 7월 8일) - 면적 : 812,088㎡ • 금정·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2008년 10월) - 면적 : 1,684,170㎡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72~473쪽.

한편, 2006년 10월 4일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시작으로, 그해 11월 13일에 두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 두 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승인 고시될 예정이다.

〈표 28〉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

구분	시기	내용
금정역세권	2006. 10. 4.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2006. 11. 1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06. 11. 17.	경기도 뉴타운사업 예정지구 지정
	2007. 1. 26.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 착수
	2007. 6. 18~7. 3.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주민공람
	2007. 7. 19.	지방의회 의견 청취
	2007. 7. 3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 경기도)
	2007. 9. 1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경기도)
	2010년 상반기	재정비촉진계획 승인 고시(예정)

구분	시기	내용
군포역세권	2006. 10. 4.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2006. 11. 1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07. 11. 15.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 착수
	2008. 1. 2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2008. 3. 3.	건축허가제한구역(확대) 고시
	2008. 4. 10~25.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주민공람
	2008. 7. 8.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0년 상반기	재정비촉진계획 승인 고시(예정)	

출처 : 군포시청(<http://www.gunpo21.net>) '군포 뉴타운'.

5) 공업지역 정비

(1) 기존 공업지역 정비

당정동 등 군포시의 주요 공업지역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개별공장의 입주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도로, 주차장,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생산환경의 급속한 악화와 함께 무분별한 개별입지 개발이 방치됨으로써 공업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나아가 도시환경 전반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재정비하여 지역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도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시급한 시정과제다.

〈표 29〉 공업지역 분포

(단위 : m²)

구분	계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비고
계	2,613,211.6	2,450,126.9	163,084.7	
당정동	1,729,872.5	1,696,579.4	33,293.1	
산본동	121,158.0	82,192.9	38,965.1	
금정동	505,735.0	414,908.5	90,826.5	신환아파트(16,880.4m ²)
당동	256,446.1	256,446.1	0.0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76쪽.

공업지역정비사업은 당동, 당정동, 금정동 일원의 기존 공업지역 261만 3,211.6m²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재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환지 또는 혼용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을 위해 2007년 10월 18일부터 2008년 4월 17일 사이에 산업재배치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7월 28일 사업시행 예정자 공모, 2008년 11월에 재정비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거쳐, 2010년 6월에서 2011년 5월 사이에 재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 부곡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기능의 정비와 도시시설의 적정배치로 군포시의 공업지역 면적은 계속 감소해 왔다. 이에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체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 고용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부곡동 522번지 일원 26만 8,000㎡(이주단지 3만 3,000㎡ 포함)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사업비는 1,24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다.

이 사업은 광역도시계획(2007년 7월 4일)과 군포도시기본계획(2007년 10월 18일)에 반영되어 있다. 산업재배치 타당성에 관한 분석은 2008년 4월 17일에 완료되어, 2008년 5월 26일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다. 2008년 7월 사업시행 예정자 모집 공고가 있었고, 2008년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이 있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2009년 12월에 신청하고, 용지보상 및 문화재시굴 등이 2010년까지 완료되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주변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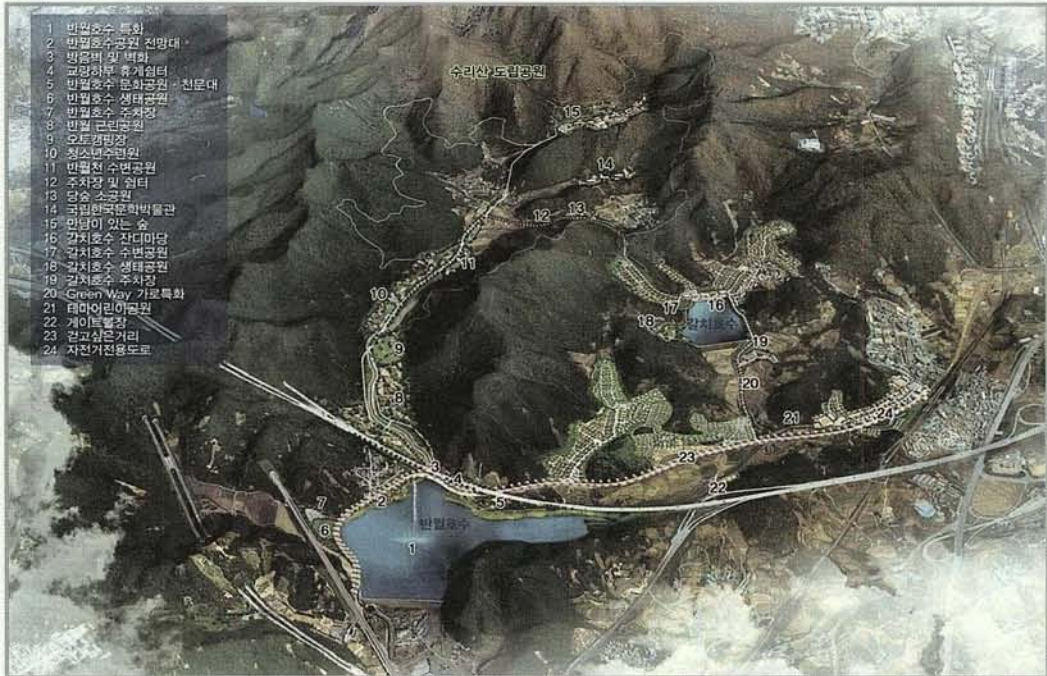
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6) 대야특화발전계획 및 연계 사업

대야특화발전계획은 대야동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생활의 질 개선과 함께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 있는 정주여건 창출을 위해 반월·갈치 저수지 주변 및 대야동 일원에 문화휴양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부터 추진되었다. 이 계획은 'Lake Ville', 'Park Ville', 'Eco Ville', 'Glad Ville' 등 4개 특화구역에 대한 개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타 계획으로 '테마 어린이 공원'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추진된 내용을 보면, 2007년 1월에 대야동지역특화발전 기초조사에 관한 용역계획이 마련되었고, 2007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제 기초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4월부터 대야동발전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이 착수되었다. 2009년 1월부터 각 시설별 행정계획 이행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09년 현재 '반월호수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조성공사', '갈치호수 호안 정비 및 잔디마당 조성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중 전자의 사업은 반월호수 주변인 둔대동 461-2번지 일원에 잔디광장과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 특히 가족단위 휴



대야특화발전계획 조감도⁸⁾

8) 군포시청(<http://www.gunpo21.net>) '10대 역점사업'.

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규모는 8,900m², 사업비는 13억 5,278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다.⁹⁾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2007년 8월 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고, 2008년 2월 기본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으며, 2008년 4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있었고, 2008년 5월 농업기반시설 변경사용 승인이 있었다. 2008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08년 7월 한국농촌공사와 협약서가 체결, 2008년 10월 개발행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반월호수 상류의 홍수위선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지는 행락객, 낚시꾼들로 인하여 오염되고 황폐화되어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수지 연안이 정비되어 오염원이 제거되고, 관찰 데크, 잔디광장 조성 및 수심 중의 수목이 식재되어 주변 지역을 보호하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친수공간이 제공된다.

한편, 이 계획과 연계사업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지정'도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제3도립공원 지정계획에 따라 서남권의 대표적인 수리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생태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도권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보면, 2007년 9월 14일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5개 후보지(수리산, 소요산, 청계산, 명성산, 철마산) 중 수리산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시행되었다. 2009년 7월 16일에 군포시 관내 4.302km²를 포함하여 수리산 일대 6.969km²가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경기도고시 제2009-280호)되었다.

7)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1997년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으로부터 분리된 군포시는 1998년 처음으로 독자적인 군포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했고, 2000년에 2016년 군포시도시기본계획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의 기간을 20년으로 함에 따라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이 새로이 수립되어 2007년에 승인 공고되었다. 군포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종합적 발전 전략과 방안을 2001년부터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이 계획은 신도시 건설 이후 군포시의 장기적 도시개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에서는 도시 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수도권 남부 자족도시로 구현하되, '쾌적한 환경도시', '편리한 정보도시', '꿈이 있는 젊은 도시', '튼튼한 경제도시', '지역 내외 통합도시'로 육성

9) 군포시청(<http://www.gunpo21.net>) '10대 역점사업'

하고, 이를 통해 도시관리 및 운영 시스템의 모델 도시화를 추구하고 있다. 인구지표는 2020년까지의 목표인구를 33만 명으로 설정하였고, 경제지표는 지역총생산액을 2003년 2조 7,696억 원에서 2020년 3조 7,422억 원으로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도시공간구조를 크게 1개 도심, 2개 지역중심, 1개 생활권 중심으로 나누었다. 도심은 '시청을 중심으로 신도시지역에 행정·업무·중심상업 기능을 수용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 강화', 당정지역중심은 '산본 도심 기능의 역할 분담, 금정역세권 개발 및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서비스 기능 강화', 당동지역중심은 '배후 주거단지 증가에 따른 기능 강화, 군포역세권 정비사업 및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을 통한 중심지 구상, 당정근린공원 인접 역사와 연계된 개발 유도', 생활권 중심은 '대야미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서비스 제공,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 해제에 따른 개발사업 시 중심지 역할 부여' 등으로 그 기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구조하에서 생활권을 1개 대생활권(군포대생활권)과 4개 중생활권(산본·당정·당동·대야 중생활권)으로 구분하였다.

〈표 30〉 생활권별 개발방향

(단위 : km², 명)

구분	면적	인구	행정구역	기능	개발방향	
군포 대생활권	36.36	330,000	11개 동	-	-	
중생활권	산본 중생활권	10.55	193,000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공내동, 광정동, 산본1동, 산본2동	중심상업, 업무, 행정, 문화, 복지,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본역세권의 중심상업기능 적극 활성화 시청 중심으로 행정업무, 중추기능 활성화 생태공원 조성 등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문화예술회관 및 각 학교를 연계한 교육특구 지정 금정역세권 재정비를 통한 상업, 주거 기능 정비
	당정 중생활권	4.88	64,000	금정동, 군포1동, 군포2동 일부	공업, 주거, 상업,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정·군포역세권 재정비를 통해 상업, 주거 기능 정비 공업지역 재정비 및 공단배후 주거기능 확충 고부가가치 도시형 업종 공장유치 대규모 공장 이전적지 활용 도로건설 등 지원기능 강화 도시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재개발 추진
	당동 중생활권	5.59	52,000	군포2동, 군포1동 일부	첨단산업, 주거,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화물 터미널의 확장 및 유통기능 활성화 지역현안사업(첨단산업단지) 추진 계획적 개발사업의 마무리 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정비
	대야미 중생활권	15.34	21,000	대야동	주거, 상업, 농업, 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 우선 해제지역 정비로 전원적 정주환경 기반 조성 생태공원조성 등의 문화, 복지, 서비스 기능 정비 택지개발 및 도로망 확충 근교 농업육성으로 농업기능 활성화

출처 : 군포시, 2007, 『2020 군포도시기본계획』, 123쪽.

5. 도시화의 영향과 도시문제

도시화 측면에서 볼 때, 군포 지역은 1979년 읍 승격 이후 비로소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도시의 주요 기능인 주거와 산업활동은 여전히 인접한 안양시에 종속되어 있었다. 1989년 시 승격은 주거, 행정, 교육, 공업, 유통 등 도시 기능의 다양화와 급속한 확장을 초래했고, 도시권역 내로 활동기반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시 승격과 함께 추진된 산본 신도시 건설로 17만 인구가 유입되면서 군포시의 도시적 자립화는 1990년대에 빠르게 진척되었다. 1994년 대야동 편입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되면서 안정적 발전을 위한 도시의 공간적 규모도 확보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군포의 도시화 단계에서 1990년대를 자립기로 부른다.

2000년대 들어서도 거주인구의 지속적 유입,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완료로 신시가지의 확장,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편익시설의 확충, 도시산업의 성장 등으로 군포시는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신·구 시가지의 불균형, 구도심의 노후화, 베드타운형 인구 구성, 도시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과 같이 성숙기 도시화의 문제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가 도시계획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짧은 역사지만 군포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초기 도시화에서 후기 도시화로 빠른 변화를 겪었다. 이 같은 도시화는 군포시가 비록 외곽이더라도 수도권 성장 축에 있고, 신도시로의 계획적 개발이 짧은 기간 내에 추진되는 등 외부적 성장요인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군포 지역의 도시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군포 지역의 도시화는 수도권의 성장 속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도시발전이 외부, 특히 대도시 의존적이다. 군포시는 서울과 경계를 접한 일차적인 주변 도시가 아니라 일차적 주변 도시(예, 안양·과천)에 인접한 도시, 즉 이차적 주변도시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 위치함으로써 겪고 있는 군포 지역의 외향적 도시화는 서울 대도시권의 영향과 함께 인접한 도시, 특히 안양, 과천, 수원 등으로부터의 영향을 이중적으로 받으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이중적 의존성으로 인해 군포 도시권 내에 입지한 주거, 생산, 유통, 위락 활동에는 서울 대도시권의 주변부적 요소와 함께 안양 등 인접도시의 외곽적이거나 대체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도시화의 이중적 의존성은 군포의 장기적 도시발전에 기회요소가 되는 동시에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 기회요소는 수도권 남부지역에 위치한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입지의 상대적 차별성을 말한다. 이 차별성은 서울 대도시로부터 교통거리가 1시간대에 위치한 토지 및 주택의 가격요인, 산업 입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구현되어 그에 상응하는 주거 및 고용활동, 관련 소비문화 활동을 군포 일원에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양, 수원, 과천 등의 인접한 상

위 도시가 성장 발전하면서, 이들 도시에 입지할 수 없는 주거, 고용, 소비, 문화 활동들이 군포 도시권 내로 유입하는 것도 군포가 가지는 입지적 차별성의 또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군포시는 이렇듯 수도권 남부에 분포한 여러 계층의 도시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 간 분업적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이점을 향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바, 이는 군포 지역의 향후 도시화에도 기회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동시에 군포 지역의 도시발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우선 외부 의존성은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도시들의 대규모 개발정책이나 성장세의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군포시는 급격한 성장 위축(예, 인구 및 기업 유출)을 겪을 수 있다.

둘째, 군포 지역의 도시화는 산본 신도시 건설 등 계획적 개발에 의해 획기적이면서 빠르게 진척되었지만, 그에 따른 흔적을 도시공간이나 인구구성 등에 강하게 남기고 있다. 수도권 외곽도시로서 누린 외부적 성장요인이 이 지역 도시화의 필요조건이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된 택지개발 등의 또 다른 외부적 성장 요인은 이 지역 도시화의 충분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수도권 외곽도시라는 외부요인이 군포 지역이 빠른 도시화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면, 국가정책에 의한 계획적 개발이라는 외부요인은 이러한 도시화의 여건과 기회를 도시의 구체적인 형태와 기능으로 실현시켜 주었던 것이다.

수도권의 다른 외곽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군포시에서는 1970년대부터 주택공급을 위한 크고 작은 택지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1989년부터 추진된 산본 신도시 건설은 그 백미라 할 수 있지만, 택지개발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지금까지 추진된 택지개발은 그 수와 규모 면에서 다른 어느 인근 도시보다 앞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 개발에 의한 도시화의 영향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계획적 개발로 신시가지가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신시가지의 도시환경이 월등히 앞섬으로써 경부선 축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의 상대적 낙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신·구 시가지 간의 불균형은 단순히 공간구조나 물리적 형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간에 속하는 인구구성이나 경제활동 간의 차이와 격차, 즉 사회적 형태로까지 표현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통합적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어, 그 해소는 군포의 장기도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계획적 개발은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주택공급 방식은 주택 혹은 주거단지에 수용될 인구의 사회적 특성을 결정하고, 나아가 신시가지 조성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를 겪어 온 군포의 도시적 특성 전반을 규정한다. 군포 일원에 택지개발 등으로 공급된 주택들은 대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서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저렴한 형태의 주거시설이어서, 주거단지 건설 후 군포에 유입된 인구들은 이러한 주거형태의 특징을 반영

한다. 주택요인에 의해 유입된 거주자들이 생업기반을 서울 등지에 둔 채 제한적인 일상소비만 지역 내에서 영위함에 따라 군포시의 베드타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외부 인구가 일시에 대거 유입하여 새로운 주거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내면서 구시가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존 지역 문화와의 단절을 불러오고 있다. 신·구 시가지 주민들 사이의 역사적·문화적 일체성 결여는 지역의 공동체 의식과 유대를 약화시키게 된다. 이는 군포의 통합적 발전에 또 다른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급격한 도시개발에 의한 도시화의 결과는 군포의 미래 도시발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거단지가 단기간에 고밀도 위주로, 제한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지만, 주거시설의 빠른 노후화로 도시의 재정비 수요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시가지의 재정비 수요와 맞물려, 이는 향후 10여 년 이내에 군포 도시 전체에 대한 재정비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접한 과천이 신도시로 건설된 지 20년 만에 도시 전체가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휩싸인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만 경험해 왔지, 일시에 조성된 신도시가 일시에 노후화될 때, 그 도시를 어떻게 재정비하고 재생시켜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노후우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 방식, 즉 개별 건축물 차원의 재정비 방식이 도시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준과 방식으로 대체되어 미래지향적 도시 재정비의 틀을 규정하게 된다.

용적률이 핵심 쟁점이 되는 재건축·재개발 방식은 부동산 개발논리를 철저히 따른다. 따라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비 사업이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동산 개발논리 하나에 도시 전체가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도시가 바람직한지는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인식의 높이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개발 가능성이 고갈되어 있는 군포시의 미래지향적 도시 재정비는 지금의 시가화 구역(신도시 지역과 구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밀도의 문제와 사업의 경제성 문제가 맞물린다면, 도시 재정비가 자칫 왜곡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자립적이면서 통합적인 도시로의 질적 변화가 군포의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의 이정표라 한다면, 앞으로 불어닥칠 도시 재정비 태풍을 막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여 백

제2장 인구의 변동과 특성

손승호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도시화는 인구의 집중현상으로 발생하는 도시의 출현과 도시 규모가 증대되는 도시 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를 파악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명확한 지표는 인구 변화를 통해서도 출되는 내용인데, 그것에는 인구의 증감, 인구밀도, 인구구조, 인구의 이동, 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변화 등이 있다.

사람들의 도시 집중으로 발생하는 인구의 증대는 도시화 현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며, 이러한 인구현상의 분석을 통해 도시화의 과정과 특색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인구밀도는 인구 분포를 토지와 관련해서 그 조밀을 계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도시의 인구밀도를 규정하는 요인으로는 도시의 면적·위치·역사, 도시계획, 가옥의 형태, 도시의 교통망, 도심과의 인접 정도, 대도시와의 접근도 등 여러 요인이 있다. 특정 지역에서 인구 증가 또는 인구의 절대수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나 인구밀도는 다른 지역과 상대적 관계를 고찰할 때 더 의의가 크다. 인구구조는 시간적·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특정 지역의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속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면 복잡 다양한 도시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특히 인구의 성별 및 연령별 구조는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현상과 그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통근·통학·통행 등 인구 이동을 통해서도 거주지역과 활동공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군포 지역의 인구 변동과 인구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군포의 도시화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인구의 성장과 변화

1) 인구 규모

군포시는 1989년 시흥군 군포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적 변화는 도시화와 인구 성장이라는 사회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변화를 이끄는 사회적 동인을 중심으로 군포 지역의 인구 변화는 시 승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시 승격 이전의 인구 변화는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1970년 군포 지역 인구는 1만 1,498명이었으나 1985년에는 5만 2,710명으로 증가하여 15년간 인구 증가율이 358%를 나타내었다. 특히 1970~1975년에는 102.8%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 전국 및 경기도의 증가율을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중심지대에 놓여 있던 안양시나 수원시보다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시기에 군포는 군포역을 중심으로 당정동 일대에 서울 지역의 소규모 공장이 이전하거나 대규모 공장이 신설됨으로써 공업기능의 확대가 이루어져 취업기회가 다양화되었다. 또 1974년 8월 15일에 수도권전철이 개통하여 서울과의 접근성이 증대됨으로써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확대되었다. 이렇듯 군포 지역은 공업기능의 확대에 따라 1970년대에 급속히 도시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표 1> 1970~1985년 군포 지역 및 주변 도시의 인구 변화

(단위: 명)

연도 \ 지역	전국	경기도	군포	수원	안양
1970	31,465,654	2,662,904	11,498	170,560	90,505
1975	34,706,620	3,239,125	23,319	224,145	134,848
1980	37,436,315	3,849,956	40,504	310,476	253,560
1985	40,448,486	4,794,135	52,710	430,752	361,577

출처: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1975;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0·1985.

비고: 군포의 인구는 군포읍의 인구이다.

<표 2> 1970~1985년 군포 지역 및 주변 도시의 인구 증가율 변화

(단위: %)

연도 \ 지역	전국	경기도	군포	수원	안양
1970~1975	10.3	21.6	102.8	31.4	49.0
1975~1980	7.9	18.9	72.8	38.5	88.0
1980~1985	8.0	24.5	30.8	38.7	42.6

출처: 경제기획원,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1970·1975;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0·1985.

비고: 군포의 인구 증가율은 군포읍의 인구 증가율이다.

있다.

반면, 1980~1985년에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1979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도권 지역의 공업기능이 약화되면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둔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포시는 서울시와 수원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안양시·의왕시·안산시 등을 비롯한 많은 도시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인구 규모가 큰 도시가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군포시의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80년대 말에 서울시 인구문제와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 가운데 하나가 군포시에 위치한 산본 신시가지임을 고려하면, 군포시의 인구 변화가 서울시를 비롯하여 주변 도시들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지역 내의 인구 규모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인구 이동에 의해서 구성된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과 사망은 인구의 자연적 증감을 설명하고, 전입과 전출에 따른 인구 이동은 인구의 사회적 증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군포시 인구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인구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군포읍이 시로 승격된 1989년에는 인구 규모가 10만 4,595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9만 9,956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산본리와 금정리 일대의 인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인구는 산본 신시가지 입주가 본격화된 1994년에 20만 명을 넘어선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에 25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2005년 말까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던 것이 2005년 말에 28만 492명으로 정점을 형성한 후 2007년까지 감소하여, 2007년 말 현재 군포시의 인구는 27만 9,536명을 기록하였다. 2007년 말 기준으로 군포시 인구 규모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15위에 해당한다.

군포시의 세대수는 1989년에 2만 9,489세대로 세대당 인구는 3.55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세대수가 9만 9,931세대로 증가하였으나 세대당 인구는 2.79명으로 감소하였다. 세대당 인구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이는 저출산과 핵가족화 현상의 진전 때문이다.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행정동은 궁내동(3.14명), 군포2동(3.03명), 산본2동(3.01) 등의 순이고, 가장 적은 곳은 산본1동(2.47명), 금정동(2.51), 재궁동(2.65) 등의 순이었다.

군포시에서는 시 승격 이후 산본 신시가지 개발과 군포지구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2000년까지는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10%를 상회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부곡지구, 당동2지구, 송정지구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면 인구의 사회적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1988년에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내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지

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울시 주변지역에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시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¹⁾ 이 과정에서 군포시에 산본 신시가지가 조성되기에 이르렀으며, 1992년부터 신시가지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군포시의 인구 변동 추이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즉,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서 1991년 사이에 인구는 불과 8,000여 명이 증가하였지만, 1992~1995년에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나타내어 1992년에 13만 937명이었던 인구가 1995년에는 24만 5,19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가는 군포시의 인구 증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양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현상은 매년 꾸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1998년에 4,0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던 1990년대 초반을 보면, 1992년 2,309명, 1993년 2,628명, 1994년 3,230명, 1995년 3,528명이 자연 증가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 군포시의 인구 증가에서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가의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전입(출생 포함)과 전출(사망 포함)에 따른 사회적 증가는 시기별로 군포시 인구 증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입이 전출을 초과함에 따른 사회적 증가는 매우 두드러졌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1992년 2만 1,241명, 1993년 4만 4,511명, 1994년 4만 2,300명, 1995년 1만 8,056명의 사회적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는 1991년에 10만 7,387명이었던 것이, 1992년에는 13만 937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3년에는 17만 8,076명이 되었으며, 1994년에는 22만 3,606명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4년의 경우, 화성군 반월면의 4개 리(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가 군포시에 편입된 것도 사회적 증가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진행되었으며, 2003년에는 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후 2007년까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전출의 증가로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3> 군포시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단위 : 명)

연도	인구	자연적 증가(출생-사망)	사회적 증가(전입-전출)
1989	104,595	2,073	
1990	99,956	2,195	- 6,834
1991	107,387	2,436	4,995
1992	130,937	2,309	21,241
1993	178,076	2,628	44,511
1994	223,606	3,230	42,300
1995	245,190	3,528	18,056
1996	254,832	3,955	5,687

1) 남영우·최재현, 2007, 『세계화시대의 도시와 국토』, 법문사, 324·326쪽.

연도	인구	자연적 증가(출생-사망)	사회적 증가(전입-전출)
1997	262,860	3,974	4,054
1998	271,106	4,022	4,224
1999	270,951	3,915	- 4,070
2000	271,306	3,838	- 3,483
2001	270,326	3,274	- 4,254
2002	269,889	2,661	- 3,098
2003	276,756	2,948	3,919
2004	278,680	2,658	- 734
2005	280,492	2,338	- 526
2006	278,049	2,532	- 4,975
2007	279,536	2,691	- 1,204

출처 :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이 표에서 사회적 증가는 출생인구와 사망인구를 제외한 순인구 증가를 의미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군포시의 인구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시 승격 이전인 1970년대 이후부터 군포역을 중심으로 하는 당정동 일대에 서울로부터 이탈해 나온 소규모의 공장이 입지하거나 신설됨으로써 군포에서는 공업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여기에 서울과 수원 간의 전철화는 서울을 비롯한 주변 지역과의 접근도를 향상시켜 주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서울에 직장을 둔 사람들이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주거지의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군포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 인구의 사회적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9년에 시로 승격하고 주거기능 위주의 산본 신시가지가 조성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거 유입이 이루어짐으로써, 군포시 인구의 사회적 증가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도시권(DUS, Daily Urban System)은 거대도시가 중심이 되어 그 주변 지역과 지배-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 지역구조를 형성하는 일일생활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심도시인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자리한 주변 지역 간에 형성되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대도시권 전체의 인구는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증가하지만,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의 개별적인 인구 변화는 각기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초기에는 중심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변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심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주변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이 전개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심도시의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주변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대도시권 도시화의 전개 과정은 ‘도시화 → 교외화 → 역도시화 → 재도시화’의 순서로 진행된다.²⁾

위의 내용을 서울대도시권에 적용해 보면, 군포시 인구 변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

2) Clark, D., 1996, *Urban World, Global city*, Routledge, p.53.

다. 서울대도시권에서 첫 번째 단계인 '도시화' 과정이 진행될 때에, 군포는 시흥군에 속한 읍급도시(邑級都市)에 불과하였다. 서울대도시권에서 '교외화' 과정이 전개되던 시기에는 군포가 시급도시(市級都市)로 성장하였고, 이 시기에 중심도시인 서울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서울 주변 지역의 인구는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도시권의 교외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서울시 인구의 유출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군포의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후 서울대도시권이 '역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군포시의 인구는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군포시에서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매년 3,000~4,000명씩 초과하였다. 2003년에 일시적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초과하였지만, 군포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초과하는 인구 유출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사회적 감소가 자연적 증가의 규모를 상회함에 따라 군포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군포시 인구가 증가와 감소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지역 내부의 주거여건 변화와 가장 큰 관련을 가지겠지만, 이곳이 서울의 배후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따라 대도시권의 인구 변화 과정이 투영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요컨대 군포시 인구 변화의 과정은 1980년대까지 서울에서 이탈해 온 공업기능의 입지에 따른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고, 1990년대에는 지역 내부의 주거기능 확대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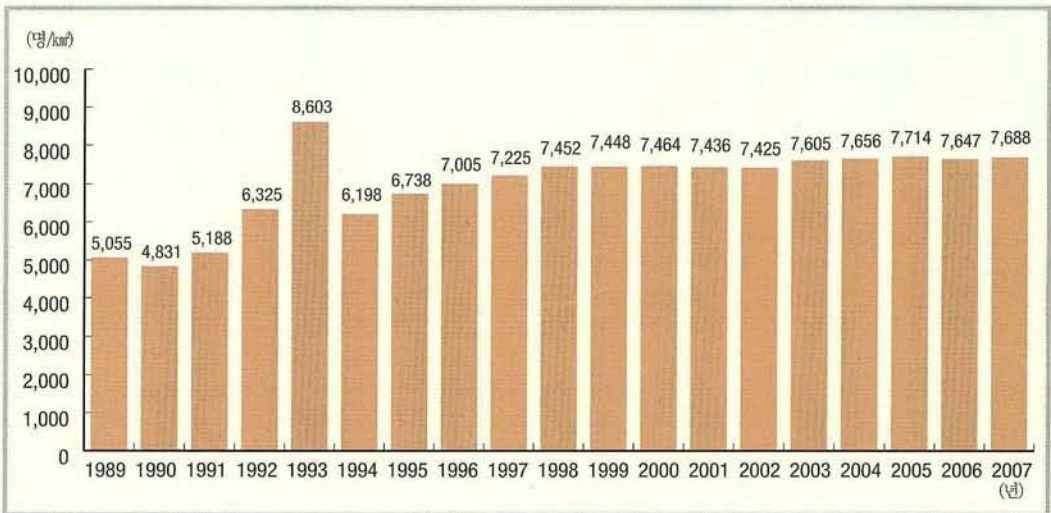
한편,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1995년에는 650명의 외국인이 군포시에 거주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4,185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듯이, 군포시에서도 2003년과 2006년에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1,330명이 거주하였으나 2003년에는 2,99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2,711명이 거주하였으나 2006년에는 3,480명으로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2007년 현재 중국 출신이 2,498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필리핀·미국 등지로부터 이주해 온 외국인의 규모가 큰 편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남녀 구성은 남자인구가 여자인구에 비해 많다. 여자 100명당 남자인구수는 1995년에 199명이었으며, 2000년에는 275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에는 132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남자인구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국적을 보유한 중국 출신의 남녀 구성은 이와 다른 양상이다. 중국인은 2002년부터 여자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기준으로 여자는 1,359명인 데 비해서 남자는 1,139명이다.

2) 인구밀도

인구밀도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사람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각 지역별 인구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추출한 하나의 지표이다. 한 지역의 인구밀도는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도는 시가지 단위 면적당 거주하는 인구밀도이다.

군포시의 전체 면적은 36.36km²에 달한다. 그러나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면적의 63.3%에 해당하는 23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시 전체가 시가화된 지역으로 구성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군포시가 가진 실질적인 주거공간이나 생활공간의 면적은 그리 넓지 않다. 용도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은 1990년 6.45km²이었으며, 이후 큰 변화는 없이 2007년 7.72km²로 소폭의 증감이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2007년 기준으로 71가구 245명으로 그리 많지 않다. 이처럼 도시지역의 전체 면적과 주거지 면적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도시의 전체 면적 대비 인구밀도보다는 용도지역 분류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면적 대비 인구밀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여기에서는 전체 면적 대비 인구밀도와 주거지역 면적 대비 인구밀도를 구분하여 산출해 보았다.



전체 면적 대비 인구밀도 변화

군포시 전체 면적 대비 인구밀도의 변화를 보면, 시 승격 후 인구밀도는 인구 규모가 9만 9,956명으로 가장 작았던 1990년에 4,831명/km²을 기록하였으며, 인구 규모가 가장 컸던 2005년에는 7,714명/km²으로 증가하였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았던 1993년의 경우 8,603명/km²이었는데, 전체 면

적에는 변화가 없는 대신, 산본 신시가지에 주민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다. 2007년 말 현재 군포시 인구밀도는 7,688명/km²이다. 경기도 전체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인구밀도가 2,000명/km²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군포시의 인구밀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산본 신시가지 입주가 완료되고 군포시 인구가 급증한 199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도시지역 가운데 8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인구밀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행정동별로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산본1동으로 3만 2,611명/km²이며,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야동으로 431명/km²에 불과하다. 대야동은 11개 행정동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지만, 인구는 6,616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비시가화된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는 면적도 넓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단위면적당 2만 명을 상회하는 지역은 산본1동을 비롯하여 재궁동(2만 8,834명/km²)과 오금동(2만 5,556명/km²)이다. 이들 지역은 신시가지 개발로 시의 중심이 기존의 군포역 일대에서 산본 신도시가 위치한 북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신규 주거지역으로 등장한 곳이다. 인구밀도가 단위면적당 1만 명 미만인 지역은 대야동을 비롯하여 군포2동(6,700명/km²), 수리동(8,026명/km²), 군포1동(9,849명/km²) 등이다. 이들 지역은 공장이 입지하였거나 농업 및 주거기능이 혼재된 곳인데, 대야동을 제외하면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는 모두 군포시 평균을 상회한다.

〈표 4〉 행정동별 인구밀도

(2007년 12월 말 현재, 단위 : 명/km²)

동	인구밀도	동	인구밀도
군포1동	9,849	오금동	25,556
군포2동	6,700	수리동	8,026
산본1동	32,611	궁내동	14,258
산본2동	19,821	광정동	15,433
금정동	17,260	대야동	431
재궁동	28,834	평균	7,688

출처 : 군포시, 2008, 『통계연보』, 33쪽.

산본 신시가지 조성이 마무리된 1990년대 중반에 인구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인구밀도 역시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하였으며, 여기에는 오금동, 산본2동, 궁내동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산본역을 중심으로 교통은 물론 주거환경이 양호한 주거밀집지역이다. 반면 구시가지라 할 수 있는 군포1동과 군포2동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인구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산본 신시가지 건설과 함께 구시가지 주민들이 이탈해 나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포시의 토지이용 분류에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밀도는 시 전체 면적 대비 인구밀도에 비해 상당히 높다. 1991년까지는 주거지역 면적 대비 인구밀

도가 단위면적당 2만 명을 넘지 못하였으나, 산본 신시가지 입주가 본격화된 1992년부터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주거지역 면적 대비 인구밀도도 1993년과 1994년에 걸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주거지역 면적 대비 인구밀도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 4만 명을 넘었다. 이후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시가지의 면적이 확대되고 인구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2001년까지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2007년 말 현재 주거지역 면적 대비 인구밀도는 3만 5,667명/km²로, 군포시 전체 면적 대비 인구밀도의 4.6배에 달한다.

3) 인구 분포

군포시 인구 분포의 변화는 행정동별 인구 규모를 이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시 내에서는 상업업무기능이 집중한 중심시가지의 인구 규모가 작으며,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중심부에서는 도심인구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의 감소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군포시는 도시 내에서 토지이용의 지역분화가 대도시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심에서의 상주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계도 아니다.

한 도시의 인구 분포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이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군포시의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주거지역은 전체의 약 21%를 차지하며, 그 대부분은 산본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자리한다. 구체적으로는 경부선 철도의 서쪽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철도 연변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밀집지역은 관모봉-태을봉-슬기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동쪽 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군포1동에 포함되는 경부선 철도의 동쪽 지역은 대부분이 용도지역 분류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당정지하차도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남쪽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한편, 시의 남쪽에 자리한 대야동과 군포2동은 매우 넓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대야동은 전체 면적 15.34km² 가운데 14.89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거인구 역시 매우 작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대야동은 1994년에 군포시에 편입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으로, 인구수는 군포시에 편입될 당시에 4,170명이었던 것이 2007년 말에는 6,616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군포2동은 전체 면적 5.89km² 가운데 4.60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시가지의 면적이 주변의 산본1동이나 산본2동에 비해 넓은 편이다. 그 때문에 군포2동은 군포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군포시 인구는 11개의 행정동에 27만 9,536명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3만 9,461명이 거주하는 군포2동이다. 군포2동의 인구는 1996년까지만 해도 1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1997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03년부터는 군포시에서 수위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군포2동에서 실시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택단지 건설 때문이다. 군포시에서는 1995년부터 군포1동과 군포2동에서 4개 지구를 선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다. 현재도 당동2지구와 부곡지구의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군포2동의 인구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인구 규모의 변화에 따라, 인구의 분포 양상도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군포가 시로 승격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여러 차례의 행정동 신설과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군포시가 현재의 행정구역을 확정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인구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1998년에 군포시 인구는 27만 1,106명이었고, 2007년에는 27만 9,536명으로 이 기간에 인구 변화는 크지 않았다(〈표 3〉 참고). 그러나 행정동별 인구 분포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행정동별 인구 변화

(단위 : 명)

연도 지역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군포1동	27,318	27,244	27,244	26,738	26,126	30,536	34,097	34,321	35,465	36,443
군포2동	25,342	25,962	25,962	27,724	29,154	34,890	35,272	38,741	40,071	39,461
산본1동	25,341	25,352	25,352	25,315	24,575	24,173	23,657	24,039	24,348	24,458
산본2동	30,328	30,089	30,089	29,796	29,003	27,573	27,418	26,759	22,668	23,191
금정동	19,817	19,941	19,941	20,725	21,648	21,893	21,339	21,278	21,515	21,748
재궁동	27,953	27,762	27,762	26,932	26,266	26,106	25,765	25,729	25,402	25,086
오금동	29,984	29,865	29,865	29,564	29,014	28,538	28,332	27,854	27,548	27,345
수리동	24,801	24,570	24,570	23,985	23,528	23,065	22,918	22,300	21,999	21,912
궁내동	25,498	25,426	25,426	25,248	24,997	24,661	24,644	24,479	24,209	23,953
광정동	29,003	29,089	29,089	28,855	30,316	30,063	29,920	29,730	29,578	29,323
대야동	5,721	5,651	5,651	5,444	5,262	5,258	5,318	5,261	5,246	6,616

출처 :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동은 2001년까지 산본2동이었다. 그러나 산본2동의 인구는 2001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군포2동의 인구는 200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인구 분포의 수위지역은 군포2동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포함한 인구 변화양상은 군포시의 시가지 개발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산본 신시가지에 입주가 시작된 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이곳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가 현저하였다. 현 산본1동과 산본2동을 비롯하여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시가지 개발이 다소 뒤쳐졌던 군포1동과 군포2동은 1990년대 말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부터 군포시 인구 분포의 중심지로 변화하였다.

행정동별 인구 분포의 변화는 최근 들어 군포시 내부에서 인구 재배치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인구 변화의 중심은 산본 신시가지 권역에서 군포1동과 군포2동 등 기존도시권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군포시 내부에서의 인구 재배치 현상이 고른 인구 분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동별 인구 규모의 편차를 계산해 본 결과, 2006년까지 증가하던 편차가 2007년 들어 감소하였다. 즉 인구 분포는 2006년까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2007년부터 그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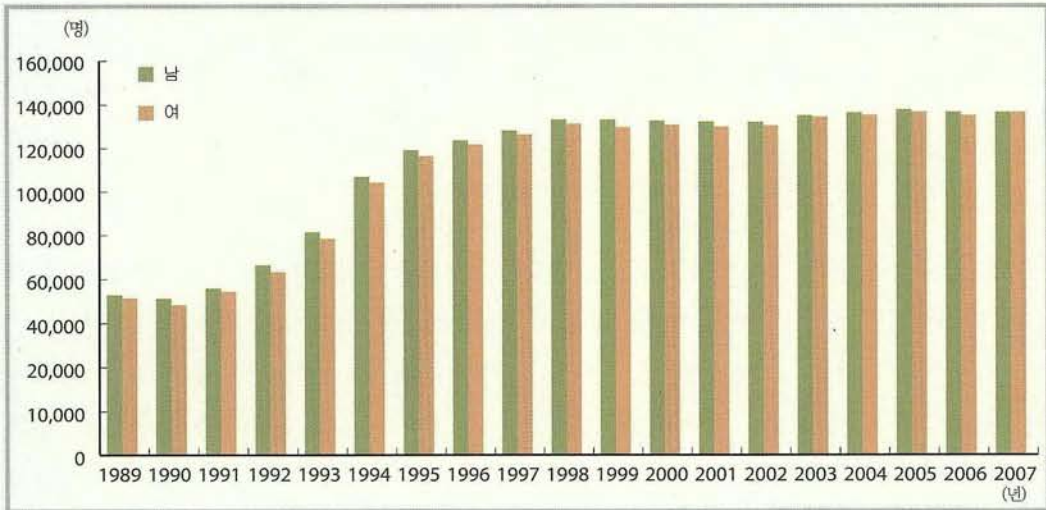
2. 인구구조의 변화

1) 성별 인구구조

성별 인구구조란 한 지역의 남성인구와 여성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인구와 여성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성비(sex ratio)를 통해 확인된다. 남녀의 성별 구성은 직접적으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인구특징의 하나이다. 성비는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인구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도출된 성비가 정확히 100이라면 남성과 여성 인구의 수가 동일함을 의미하고, 100보다 클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남초 지역(男超地域)이고, 100보다 작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여초 지역(女超地域)으로 분류된다. 자연상태에서 출생 당시의 성비는 100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포시가 시로 승격하기 이전인 1980년대 성별 인구구조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었다. 1980년에는 남자가 2만 233명이고, 여자가 2만 271명으로 성비는 99.8을 기록하였다. 1985년에는 남자가 2만 6,349명, 여자가 2만 6,361명으로 남녀 인구가 거의 같아서 성비는 100을 기록하였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에는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경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대체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다소 많은 시기였다.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인구구조는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상회하는 패턴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이후 2007년 말 현재까지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를 초과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군포시는 여초지역에서 남초지역으로 변모하였다.

군포시의 성비는 1989년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1989년에는 전체 인구 10만 4,595명 가운데 남성이 5만 2,659명이고 여성이 5만 1,936명으로, 성비는 101.4를 기록하였다. 성비는 1990년에 103.7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는데, 이 시기의 남성인구는 5만 892명이었고, 여성인구는 4만 9,064명이었다. 군포시의 성비는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말 현재 전체 인구 27만 9,536명 가운데 남성인구가 13만 9,924명이고 여성인구가 13만 9,612명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312명 많은 수준이며, 성비는 100.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군포시에서 남성인구와 여성인구의 비율이 거의 동일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녀별 인구구성의 변화

도시 전체적으로는 남성인구와 여성인구의 비율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행정동별로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 군포시에 존재하는 11개 행정동별 성비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비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군포1동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033명 많다. 반대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은 지역 가운데 그 격차가 가장 큰 곳은 광정동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945명 많다. 남성인구와 여성인구의 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궁내동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27명 많다.

2007년 말 현재 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111.8을 기록한 군포1동이며, 그 뒤를 이어 금정동 106.4, 대야동 103.9, 군포2동 100.8 등이다. 이들 4개 동은 성비 100을 상회하는 남초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군포1동은 남성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성비가 115.4를 기록하였다가 2003년부터 조금씩 성비가 감소하고 있다. 군포1동의 성비는 당정동을 통합하면서부터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당정동은 1998년 10월에 군포1동에 편입되었는데, 편입되기 이전인 1997년의 성비가 150.1까지 치솟았다.³⁾ 즉, 남성인구의 비율이 높은 당정동이 남초현상을 나타내던 군포1동

〈표 6〉 행정동별 남녀의 인구구성

(2007년 12월 말 현재, 단위: 명)

구분	인구			남녀 인구차	성비
	계	남	여		
계	279,536	139,924	139,612	312	100.2
군포1동	36,443	19,238	17,205	2,033	111.8
군포2동	39,461	19,810	19,651	159	100.8
산본1동	24,458	12,097	12,361	- 264	97.9
산본2동	23,191	11,521	11,670	- 149	98.7
금정동	21,748	11,209	10,539	670	106.4
재궁동	25,086	12,221	12,865	- 644	95.0
오금동	27,345	13,564	13,781	- 217	98.4
수리동	21,912	10,790	11,122	- 332	97.0
궁내동	23,953	11,913	12,040	- 127	98.9
광정동	29,323	14,189	15,134	- 945	93.8
대야동	6,616	3,372	3,244	128	103.9

출처 : 군포시, 2008, 『통계연보』, 32쪽.

에 편입됨에 따라, 군포1동의 성비는 두 동을 통합한 이후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이다. 남성인구가 탁월하게 많은 지역으로 금정동도 빼놓을 수 없다. 금정동에서의 성비는 1989년에 101.5로 남성인구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이후 남성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2007년 말 현재 성비가 106.4까지 상승하였다.

군포1동과 금정동이 남성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남초지역이라면, 대야동과 군포2동은 남성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남초지역에 해당한다. 대야동은 1994년 12월에 화성군으로부터 편입된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속달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신설되었다. 대야동의 성비는 1994년에 107.2를 기록하였다가 1997년에 108.2로 상승하였다. 이후 감소와 증가를 되풀이하여 2007년 말에는 103.9로 감소하였다. 군포2동의 성비는 2007년 말 현재 100을 약간 상회하는 100.8로 남녀의 인구구성이 거의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나머지 7개동은 남성인구에 비해 여성인구가 많아 성비가 100에 미치지 못하는 여초지역으로 분류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93.8을 기록한 광정동이며, 그 뒤를 이어 재궁동 95.0, 수리동 97.0, 산본1동 97.9, 오금동 98.4, 산본2동 98.7, 궁내동 98.9의 순이다.

성비가 가장 낮은 광정동은 1995년에 산본2동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행정동으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광정동은 신설 첫해인 1995년의 성비가 96.0에서 시작한 이후 증가

3) 당정동은 1998년 10월 1일 군포1동에 편입되기 전에는 별도의 행정동이었다. 1997년 말 기준으로 당정동의 총인구는 3,496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남성인구는 2,098명이고 여성인구는 1,398명이었다.

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2년 금정동에서 분동한 재궁동은 그해에 99.1의 성비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2001년부터의 성비 감소가 눈에 띈다. 이와 더불어 수리동과 궁내동은 동이 신설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비가 100을 상회한 시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산본1동·산본2동·오금동은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았던 시기가 여러 해 있었다. 그러나 산본1동과 산본2동에서는 1999년부터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오금동에서는 2004년부터 여초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연령별 인구구조

인간의 사회·경제적 행위는 연령구조의 분포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령분포에 관한 정보는 모든 인구분포에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최근에 조사되는 연령자료는 한 살 간격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매세(每歲) 간격별 인구의 특성을 상세하게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매세 간격의 인구자료는 너무 방대한 양의 자료이기 때문에, 한 인구집단이 가지는 연령분포를 개략적으로 알기 위하여 인구를 다시 연령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즉, 유소년층(0~14세), 청장년층(15~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전체 인구에 대한 각 연령층의 비율을 구하여 연령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각 연령층을 다시 5세 간격으로 세분하여 남녀간 구성비까지를 파악함으로써 주어진 연도의 인구구조를 연령별로 분석하는 동시에 성별로 분석할 수 있는 인구피라미드도 인구구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는 연령층별 인구구조를 먼저 살펴본 후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군포시의 인구 속성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겠다.

(1) 연령층별 인구구조 변화

연령층별 인구구조를 파악하고자 군포시의 연령별 인구구성비를 산출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군포시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유소년층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4세에 해당하는 유소년층의 비율은 1989년에 29.4%를 차지하였던 것이 2000년에 25.1%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19.9%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다.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비율이 대체로 25% 내외를 기록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는 높은 출산율로 인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포시에서도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유소년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0~4세

〈표 7〉 연령층별 인구구성의 변화

(단위: %)

연령층		연 도				
		1989	1995	2000	2005	2007
유소년층	0~4세	11.7	10.1	8.5	6.4	5.8
	5~9세	10.7	9.4	8.9	7.6	6.7
	10~14세	7.0	8.4	7.7	7.7	7.4
	소 계	29.4	27.9	25.1	21.7	19.9
청장년층	15~19세	7.1	6.3	7.4	6.9	7.2
	20~24세	9.1	7.2	6.5	7.1	6.7
	25~29세	15.4	10.4	9.0	7.6	8.0
	30~34세	14.0	12.8	10.9	10.4	9.3
	35~39세	7.7	12.1	11.2	10.1	10.5
	40~44세	4.5	6.8	10.0	9.8	9.1
	45~49세	3.4	4.3	5.9	8.8	9.5
	50~54세	2.7	3.3	3.8	5.2	6.3
	55~59세	2.2	2.8	2.9	3.5	3.7
	60~64세	1.7	2.2	2.5	2.7	2.8
소 계	67.9	68.2	70.2	72.0	73.1	
노년층	65~69세	1.2	1.6	2.0	2.4	2.6
	70~74세	0.8	1.1	1.4	1.9	2.0
	75~79세	0.5	0.6	0.9	1.2	1.3
	80세 이상	0.3	0.6	0.6	1.0	1.1
	소 계	2.8	3.9	4.8	6.3	7.0

출처 :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외국인 인구를 제외한 결과이며, 최근 통계연보에서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수록하나 여기서는 각 연도의 비교를 위해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통일하여 수록하였다.

사이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1989년에는 11.7%를 차지하였지만, 2007년에는 5.8%에 불과하였다. 이와 더불어 5~9세 사이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비율도 1989년의 10.7%에서 2007년에는 6.7%로 감소하였다. 반면 10~14세 사이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비율은 1989년의 7.0%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2007년에는 7.4%를 차지하였다. 유소년층의 비율이 감소하였음에도 10~14세 사이의 연령층이 증가한 이유는 산본 신시가지의 건설과 큰 관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10~14세 사이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산본 신시가지에 입주가 본격화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후, 1994년 이후부터는 역시 감소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유소년층 비율이 감소한 반면, 청장년층과 노년층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15~64세에 해당하는 청장년층 비율은 1989년에 67.9%를 기록하였지만, 1999년에 70.1%를 기록하였고 2007년에는 73.1%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도시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였거나 고용기반이 튼튼한 경우 전체 인구 가운데 25~29세층의 인구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외부지역에서 유입되어 온 사람들의 침상도시적 성격을 띠는 신도시에서는 30~34세층의 인구구성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징

이 있다.

군포시의 경우, 1989년에는 25~29세층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산본 신시가지 건설이 마무리되던 1995년에는 30~34세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34세층의 구성 비율은 1996년에는 12.1%로, 199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서 1996년 35~39세층의 인구 비율은 12.3%로, 1995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군포시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즉,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구구성이 변화하였음은 그곳에 특정 연령층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산본 신시가지로 30~39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주로 유입하였음을 보여준다.

15~34세층의 인구는 절대적인 감소와 함께 구성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장년층 인구는 그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4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1989년에 45세 이상의 장년층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은 10.0%였지만, 2005년에는 17.4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장년층 인구의 증가는 노년층 인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노년층의 구성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노년층의 구성 비율은 1989년에 2.8%에 불과하였지만 2001년에 5%를 상회하였으며 2007년에는 7.0%를 기록하였다. 노년층의 인구 규모는 1989년에 2,854명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에는 1만 3,00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만 9,235명을 기록하였다. 군포시의 노년층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연령층별 인구구성에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크고 노년층의 비중이 작다는 것은 유소년 부양비가 전국보다는 높은 동시에 노인 부양비는 전국보다 낮음을 의미하고, 군포시가 아직까지는 젊은 도시임을 의미한다.

2007년을 기준으로 군포시에서 유소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궁내동으로 그 비율이 24.0%에 달하며, 이 외에 오금동 22.9%, 군포2동 21.8%, 광정동 21.0%, 수리동 20.7%, 산본2동 20.6% 등이 군포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5.3%를 기록한 산본1동이며, 금정동·대야동·군포1동·재궁동 등지에서도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금정동 78.1%와 산본1동 77.0%를 비롯하여 군포1동 75.9% 등이며, 이들 지역은 유소년층의 비율이 매우 낮았던 곳이다. 이 외에 재궁동과 산본2동도 군포시 평균을 상회하였다. 반면 유소년층 비율이 제일 높았던 궁내동은 청장년층 비율이 가장 낮은 68.8%를 기록하였으며, 수리동·광정동·오금동 역시 군포시 평균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청장년층 비율이 낮았다.

노년층 비율은 유소년층이나 청장년층에 비해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야동이 가장 높은 9.4%를 기록하였으며, 군포2동이 5.5%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이 도시지역으로 진출해 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대야동은 1994년에 화성군으로부터 군포시에 편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적 성격보다는 농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곳의 유소년층 비율이 낮은 반면, 노년층 비율은 군포시에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공업단지가 밀집한 군포1동은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청장년층의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접한 금정동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표 8〉 행정동별 연령층 인구와 구성 비율

(2007년 12월 말 현재, 단위: 명, %)

연령층 \ 동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대야동	광정동
계	34,363	39,428	23,222	23,161	21,134	25,055	27,320	21,882	23,938	6,551	29,297
유소년층	6,038 (17.6)	8,582 (21.8)	3,563 (15.3)	4,782 (20.6)	3,306 (15.6)	4,675 (18.7)	6,262 (22.9)	4,533 (20.7)	5,744 (24.0)	1,148 (17.5)	6,142 (21.0)
청장년층	26,093 (75.9)	28,682 (72.7)	17,870 (77.0)	17,022 (73.5)	16,514 (78.1)	18,557 (74.1)	19,282 (70.6)	15,408 (70.4)	16,477 (68.8)	4,788 (73.1)	20,648 (70.5)
노년층	2,232 (6.5)	2,164 (5.5)	1,789 (7.7)	1,357 (5.9)	1,314 (6.2)	1,823 (7.3)	1,776 (6.5)	1,941 (8.9)	1,717 (7.2)	615 (9.4)	2,507 (8.6)

출처: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경제가 성장하고 근대화되어 감에 따라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져 인구구조는 점차 고령화되어 간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에 의거하여 국제연합(UN)에서는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라 하며, 14.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라 부른다. 선진국일수록 유소년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는 물론 군포시에도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에 노년층 인구가 총인구의 7.0%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해 보면 군포시의 노년층 비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군포시도 2007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노년층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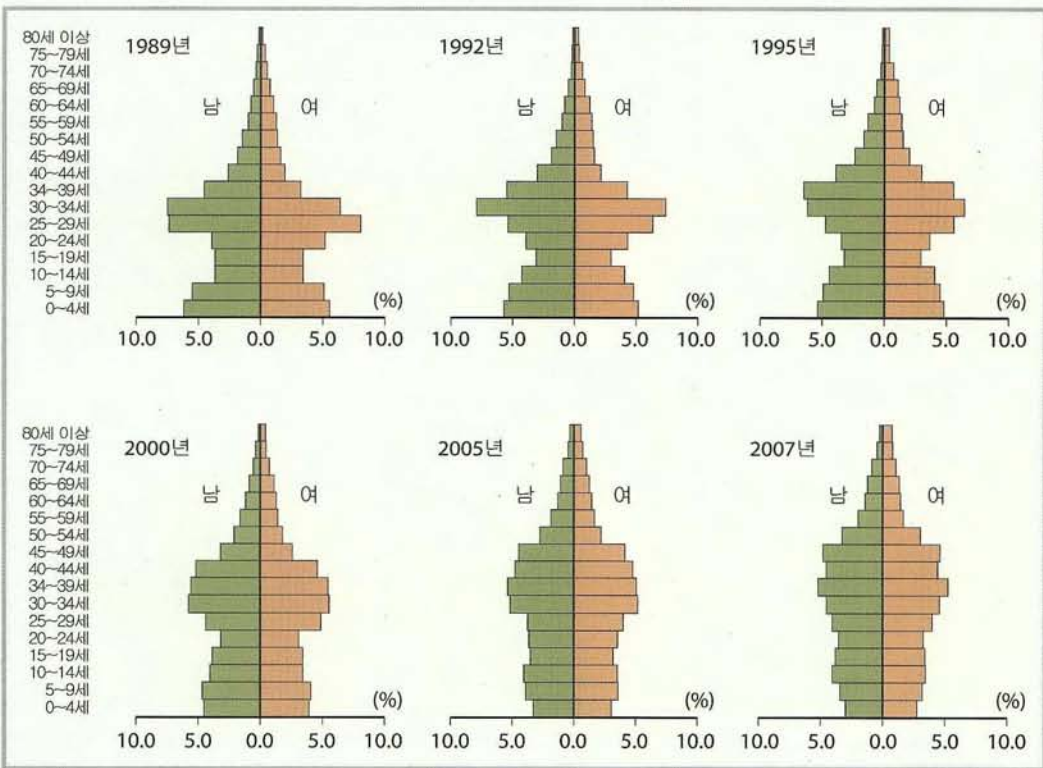
(2) 인구피라미드

인구피라미드는 인구의 연령구조를 조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인구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롯하여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개괄적이고 일차적인 정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전입·전출 등 인구가동의 결과, 출산력과 사망력의 변동

등에 따른 인구 변화 현상 등을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보인다.

인구피라미드는 모양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뉘기도 하며, 선진국형과 개발도상국형으로 나뉘기도 한다. 도시형은 선진국형과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도시는 청장년층의 유입이 많고, 선진국은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소년층에 비해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농촌형은 개발도상국형과 같은 모양을 보인다. 농촌은 청장년층의 유출이 많고, 개발도상국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농촌형 또는 개발도상국형은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삼각형 모양을 취한다.

앞에서 살펴본 군포시의 연령층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구피라미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인구피라미드에서 세로축은 연령층을 5세 간격으로 구분한 것이고, 가로축은 각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군포시의 인구피라미드는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양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 승격 초기부터 도시형의 인구피라미드를 보여 주었으며, 시간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양상⁴⁾

4)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이 흐름에 따라 유소년층의 비율이 더욱 낮아져 전형적인 선진국형의 인구피라미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1989년에 시로 승격할 당시만 하더라도 군포시의 인구피라미드는 전형적인 ‘별형(star-shaped pattern)’으로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은 동시에 청장년층의 비율도 높은 형태였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남녀의 구성비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20~29세층에서는 여성인구가 많았던 반면, 30~49세층에서는 남성인구가 여성인구에 비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층은 전체적으로 25~29세층이었다.

1995년까지의 인구피라미드는 도시형이라 할 수 있는 모양을 유지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35세 이상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구성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1992년의 인구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듯이, 산본 신시가지 건설이 마무리되고 군포시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거주자가 전입해 오면서 인구피라미드의 모양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30~34세층이 인구피라미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이 되었다는 점과 연령층별 성비도 비교적 균형을 이루었다.

군포시의 인구피라미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구별된다. 출생률이 비교적 높았던 1990년대 초반과 중반에는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출생률이 낮아지고 사망률이 저하됨에 따라 유소년층 비율은 감소하고, 40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망률이 낮아지고 출생률도 급격히 낮아지는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유소년층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40세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방추형(constrictive type)’ 인구피라미드를 보인다. 방추형의 인구피라미드는 1970년대 서부 유럽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출생률이 저하됨에 따라 중위연령(中位年齡)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3. 인구의 이동

앞에서 살펴본 인구 속성은 인구의 정태적 측면을 보여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인구 속성은 인구 이동이라는 동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인구가 이동성(mobility)을 가지기 때문이다. 인구 이동은 일상적인 활동 가운데 나타나는 일일 인구유동과 주거지 이전에 의한 인구의 사회적 증감 패턴 등을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일일 인구유동

인구의 일일유동이라 함은 주거지의 이동을 동반하지 않고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 간의 인구 이동에 대한 분석은 도시 간 지배-종속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간주된다. 일일 인구유동에는 통근통행, 통학통행, 쇼핑통행, 업무통행, 귀가통행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통근·통학·통행량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일일 인구유동을 분석한 원자료는 통계청에서 5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통학·통행량이며, 분석 대상 시기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군포시에서 발생한 총 통근·통학·통행량은 1990년에 4만 1,884통행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11만 2,393통행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3만 6,358통행을 기록하였다. 해당 연도의 통근·통학·통행량을 시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보면 1990년에는 통근·통학·통행률이 41.9%에 달하였지만,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48.6%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통행의 목적지 가운데 군포시를 제외한 상위 10개 지역으로의 통근·통학·통행률은 1990년에 40.6%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46.0%를 기록하였다. 군포시에서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통행량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은 외부지역에의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군포시의 자족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포시 거주자들이 일일 단위로 만들어내는 통행량 가운데 가장 많은 목적지는 군포시로서, 지구 내 통행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한다. 수도권 도시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동일 시군 내에서 종결된 지구 내 통행률은 1990년에 49.1%를 기록하였고, 2000년에는 57.1%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군포시 내에서의 지구 내 통행률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겠다. 지구 내 통행률이 낮다는 것은 군포시의 생활권이 광역화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군포시와 다른 시군 간의 교통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군포시의 자족기능이 낮기 때문에 관내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음을 설명해 준다. 지구 내 통행률은 신시가지 건설 이후인 1995년에는 더욱 낮았는데, 이는 관외 지역에 경제적 기반인 직장을 두고, 쾌적한 환경과 저렴한 주택가격의 이점을 누리면서 교통이 편리한 군포시로 주거지를 이전해 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군포시에 거주하면서 외부지역으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도시는 서울이다. 서울로의 통행량이 군포시 전체의 통근·통학·통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22.5%를 기록하였지만, 산본 신시가지 건설이 완료되는 1995년에는 29.1%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산본 신시가지가 서울시의 인구를 흡수하기 위하여 건설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서울로의 통행률은 점진적인 감소 경향을 나타

내며, 목적지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울로의 통행량에서 1990년에는 서울시 구로구와 영등포구 등의 상공업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지만, 1995년 이후에는 강남구·서초구·중구 등 업무중심지로 이동하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크다. 1980년대 말에 조성된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서울로부터 중산층을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이 때문에 군포시에서 서울시로 유출되는 통행의 주요 목적지가 변화하였다는 것은 서울시 또는 군포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군포시로 이주해 온 거주자의 속성이 기존 거주자들의 그것과는 다름을 의미한다.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통행량을 기록한 지역은 군포시와 인접한 안양시이다. 안양시를 목적지로 하는 통행량과 서울시를 목적지로 하는 통행량이 1990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1995년에는 격차가 크게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두 지역으로의 통행률 격차가 비교적 크게 형성되었다. 즉, 안양시로 통행률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안산시·수원시·의왕시로 유출되는 통근·통학·통행량의 비율도 1990년에 비해 2005년 들어 감소하였다.

〈표 9〉 목적지별 통근·통학·통행량의 분포

(단위: 명, %)

목적지 \ 연도	1990	1995	2000	2005
군포시	17,008(40.6)	40,072(35.7)	53,890(41.2)	56,445(41.4)
서울시	9,422(22.5)	32,686(29.1)	31,717(24.3)	30,042(22.0)
안양시	8,277(19.8)	18,227(16.2)	19,335(14.8)	19,366(14.2)
안산시	2,112(5.0)	5,424(4.8)	6,041(4.6)	6,638(4.9)
화성시	397(0.9)	425(0.4)	1,243(0.9)	4,465(3.3)
수원시	1,366(3.3)	4,190(3.7)	5,415(4.1)	3,884(2.9)
의왕시	1,318(3.2)	1,992(1.8)	2,501(1.9)	2,890(2.1)
시흥시	120(0.3)	486(0.4)	946(0.7)	2,006(1.5)
성남시	85(0.2)	699(0.6)	1,071(0.8)	1,727(1.3)
과천시	455(1.1)	1,980(1.8)	2,158(1.7)	1,682(1.2)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 연도.

비고: 2005년 기준 상위 10개 지역이다.

2005년 들어 군포시에서 유출되는 통행률이 감소한 지역이 있는 반면, 증가한 지역도 확인할 수 있다. 군포시에서 화성시로 유출되는 통행량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만 해도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화성시로 유출되는 통행률이 3.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5년에 군포시에서 시흥시와 성남시로 유출된 통행량의 비율도 1990년과 비교하면 증가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 군포시와 행정경계를 접하지 않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유출되는 통행량의 규모는 작은 편이며, 소폭의 변화만이 있었을 뿐이다.

2) 주거지 이동

인구의 동태적 측면 가운데 하나인 주거지 이동은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의 사회적 증감 패턴을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외부지역으로 나가는 전출인구와 외부지역으로부터 유입해 들어오는 전입인구에 의해 파악이 가능하다. 1998년까지 타 지역에서 군포시로 이주해 오는 전입인구는 전출인구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군포시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전입인구에 비해 전출인구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인구 증가현상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출인구와 전입인구의 총량을 분석하기보다는 공간적 패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군포시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유입되는지와 군포시를 빠져 나가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새로운 주거지로 선정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군포시에서 주거지 이동에 관한 전출입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해가 2002년이므로, 여기에서는 2002년 이후를 주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먼저 군포시 내에서의 주거지 이동을 보면, 1997년 이후에 관내에서 주거지 이동을 한 사람은 매년 전체 인구의 6~7% 정도였고, 2002년과 2003년에는 전체 인구의 7.9%였다. 2006년에는 전체 인구의 8.3%를 차지하는 2만 3,000여 명이 관내에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군포시 내에서의 주거지 이동 비율이 높은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신규 주택단지가 건설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신규 택지개발공사가 마무리되고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3년에 일시적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초과하기도 하였다.

타 지역에서 군포시로 이주해 온 집단은 다시 경기도 내에서 전입해 온 사람과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 시기를 통틀어 경기도 내의 다른 시군에서 군포시로 이주해 온 사람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많다. 경기도 내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규모는 군포시 택지개발의 시기와 맞물려 증가와 감소를 반복적으로 보여 주지만,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의 규모는 2000년대 초반에 소폭의 증가가 있었을 뿐,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군포시로 이주해 온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전 주거지가 서울이었다. 그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지에서 군포시로 이주해 온 사람의 규모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수도권에 자리한 서울시나 인천시 등의 대도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대도시권의 도시화에서 나타나는 주거지 교내화(郊內化)의 과정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군포시에서 군포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람들 중에서도 경기도 내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비중은 경기도 이외의 시도로 전출한 비중보다 크다. 반면 경기도 이외의 시도로 주거

〈표 10〉 주거지 이동의 출발지와 도착지

(단위: 명)

연도	구분	전입인구		군포시내 이동	전출인구			
		총전입	경기도내 전입		경기도외 전입	총전출	경기도내 전출	경기도외 전출
1997		64,598	25,431	20,809	18,358	60,392	25,288	16,746
1998		57,155	22,036	19,443	15,676	52,365	21,584	15,105
1999		59,890	21,382	20,291	18,217	63,684	27,400	18,067
2000		55,428	19,697	17,852	17,879	58,949	25,633	15,437
2001		57,200	20,078	18,402	18,720	61,248	27,624	14,904
2002		61,110	21,272	18,611	21,227	64,103	29,033	13,843
2003		60,783	20,985	18,026	21,772	58,319	22,953	13,594
2004		49,762	17,254	16,139	16,369	50,172	21,161	12,642
2005		54,018	18,694	15,528	19,796	54,173	20,649	13,728
2006		59,480	20,657	15,800	23,023	64,987	26,814	15,150

출처: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지를 이전한 사람들의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들어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군포시에서의 전출자 규모가 2005년에 비해 1만여 명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내로 전출한 경우는 물론, 경기도 이외의 시도로 전출한 규모도 증가하였다.

경기도 이외의 시도로 전출한 사람들의 주요 도착지는 서울이었다. 2000년대 들어 군포시에서 경기도 이외의 시도로 이주해 간 사람들 가운데 서울시로 이주해 간 사람들의 비율은 경기도 이외의 시도로 이주해 간 사람들의 50%를 넘어선다. 그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를 비롯하여 충청남도·전라북도 등지로 전출해 간 사람의 규모가 상위권에 자리한다.

이상과 같이 인구의 전입과 전출에 의한 군포시 인구의 사회적 증감 패턴을 간략하게 고찰하였다. 군포시의 인구는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보다 많아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진행 중에 있지만, 1990년대 말부터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져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최근에는 인구 증가가 정체단계에 있다.

군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주거지 이전은 군포시와 경기도 시군 지역 간에 발생하는 주거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포시 내에서의 주거 이동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군포시와 경기도 이외의 시도 간에 발생하는 주거지 이동에서는 서울시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가장 강하게 형성되었다. 경기도 이외의 시도와 군포시 간에 발생하는 전입 및 전출 규모의 50% 이상은 군포시와 서울시 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군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및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등지와 주거지 이동 규모가 전입 및 전출에서 크게 형성되었다.

향후 경기도의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군포시만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이미지 개발이 필요하다.

여 백

제3장 토지이용의 변화

범선규 |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인구 변동에 따른 토지이용

오늘날의 군포시 지역에 거주했던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자료는 대체로 20세기 중반 이후에 작성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반적인 변화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 후기까지의 각 군현별로 작성된 인구 규모 자료가 없지 않으나 행정 구역의 변동이 적지 않았던 지역 사정상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다만, 몇몇 자료는 군포 지역의 인구 추세를 대략적이거나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 18세기 중반 상황이 반영된 『여지도서』에는 당시 과천현 남면(현 군포시 중 대야동을 제외한 지역)의 호수와 인구가 378호에 1,74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8세기 후반의 인구 현황이 담긴 『호구총수』에는 460호에 1,92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의 인구 규모와 토지이용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거칠게나마 추정할 수 있다. 18세기에는 군포장터가 있던 현 안양시 호계동 일대(당시 도양리)와 군포시 당정동 일부가 군포 지역의 중심지로서 인구가 밀집한 곳이었다고 짐작된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적 토지이용이나 임야가 일반적이었던 주변 지역과 달리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장터'를 비롯한 상업적 토지이용 경관도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군포시의 인구변동과 그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아마도 경부선철도 부설과 그에 따라 군포장역이 업무를 개시한 20세기 초라고 판단된다. 1905년을 전후로 군포 지역에서 일어난 이러한 근대교통체계로의 대변화는 당시까지의 토지이용 경관과 인구 규모를 일거에 개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부터 군포 일대의 중심지가 차츰 군포장역 주변으로 이전하였고, 1925년 말에는 호계동에 서던 군포장도 역 앞으로 이전해 왔다. 그 결과 당동이 산본 신도시 개발 전까지 군포 지역의 중심지로 잡았다.

그 이후에 조사·파악된 군포 지역의 인구 규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¹⁾ 1925년 시흥군 남면의 인구는 3,842명이었고, 1930년에는 4,005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35년에는 4,178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토지이용 모습을 추적할 수 있는 1930년의 인구 자료에는 당시 시흥군 남면에는 모두 4,005명(남자 2,036명, 여자 1,969명)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직업별로는 농업 1,176명, 공업 66명, 상업 64명, 교통업 23명, 공무자유업 26명, 가사 사용인 19명, 기타 직업 36명, 그리고 무직이 2,59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4세 이하가 1,612명으로 40.2%, 15~59세가 2,177명으로 54.4%, 60세 이상이 216명으로 5.4%였다. 이 같은 인구 구조로 보아 당시 시흥군 남면(현 군포시 산본·금정·당정·부곡동)은 소수의 공업·상업·교통업 종사자가 거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서 농업적 토지이용이나 임야 중심의 토지이용 경관을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에는 수원군 반월면에 속했던 오늘날의 군포시 대야동은 지형 조건으로 보아 시흥군 남면의 한적한 농촌지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한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4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까지 군포 지역 인구 및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신뢰도 있는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해방과 한국전쟁 등 각종 정치·사회적 환경 때문에 자료의 생산과 보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1950년 간행된 『금천지』에 의하면,²⁾ 1949년 5월 말 기준으로 당시 시흥군 남면에 1,055호 6,055명의 인구가 거주하였고, 의원·약종상·제매상 각 1개소, 음식점 6개소, 여인숙 2개소, 이발소 2개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군포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1957년 발행된 1:50,000 지도 중 군포장 도엽과 남양 도엽을 통해서 취락 분포와 토지이용 경관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지도를 보면, 1920년대 이래 경부선철도 군포역이 위치한 당리가 가장 큰 취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당정천 상류인 당리의 용호동과 하류인 금정리의 안금정, 산본천변 산본리의 능안과 광정, 대야미리의 뒷뱅이, 둔대리의 죽안과 둔터 등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마을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마을 일대에 농경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1960년에 1,046세대 6,145명, 1965년에 1,136세대 6,704명 등으로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는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에 2,305세대 1만 1,498명, 1975년에

1) 군포시, 1999, 『군포시사』, 66~74쪽.

2) 시흥군, 1950, 『금천지』, 32·48~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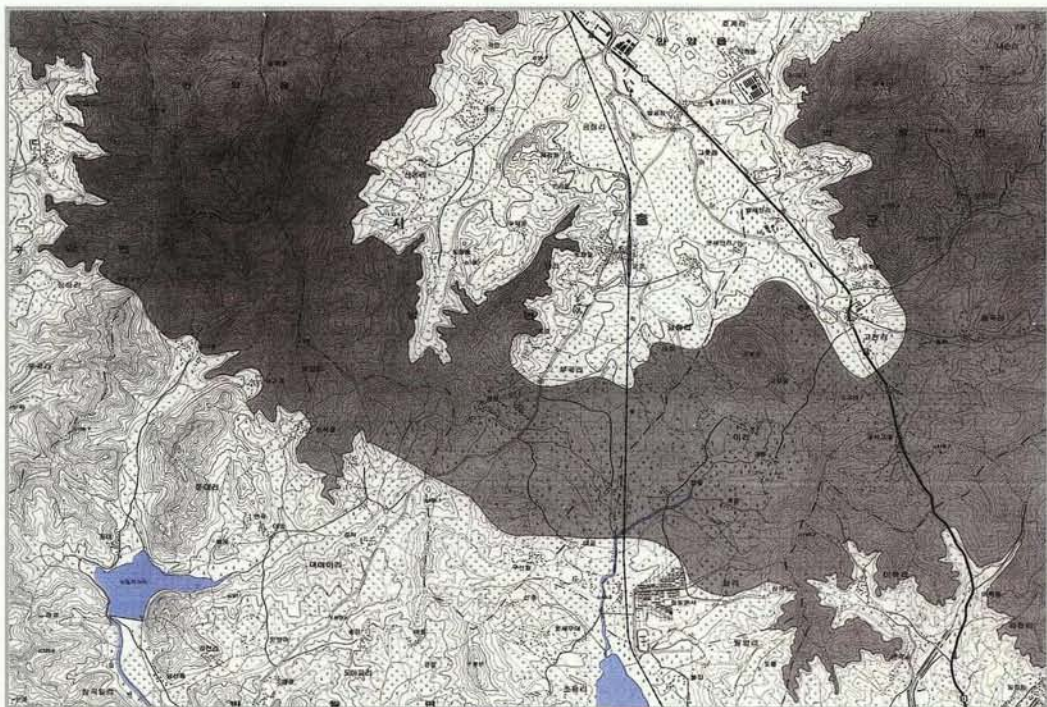
1950년대 토지이용

이 지도는 1957년 발행된 1:50,000 지도의 일부이며, 중앙부의 검은 가로 실선 위쪽은 군포장 도엽, 아래쪽은 남양 도엽이다. 지도상에서 대야미리에 표시된 죽골은 오기(吳記)로 현재의 갈티마을 위치이며, 현 대감마을(또는 죽암마을)을 의미하는 죽골은 그 좌측 안골 입구 우측에 있는 마을이다. 행정경계 중 시흥군 남면은 지도에 표시된 것을, 화성군 반월면 쪽의 경계는 2008년 행정지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5,401세대 2만 3,319명,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한 1979년에 8,087세대 3만 5,823명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군포 지역은 지방소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의 인구 증가는 토지이용의 변화도 수반했다. 토지이용의 변화는 특히 북동부의 안양천 양안(지류인 산본천, 당정천 포함)의 범람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안양시와 의왕시 시가지에 맞닿아 있다. 군포역 주변, 당정리와 금정리 일대를 중심으로 공장들이 들어서고 주택지가 넓혀지기 시작했다. 결국 1970년대 들어 농업과 임야를 제외한 공장용지, 상업용지, 주거지(대지) 등의 토지이용 면적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군포의 인구 증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정책과 관련된



1970년대 초반 토지이용과 개발제한구역

이 지도는 1972년 발행된 1:50,000 지형도 중 군포 도엽이다. 지도에서 녹색으로 표현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반월저수지 주변의 현 대야동 일대는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시행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도권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등에 의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중도에서 차단하고 수도권 내의 인구 재배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울을 비롯한 외곽 도시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설정도 포함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greenbelt, G/B)라고도 하며,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 등이 제한을 받는다.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이 점이 개발제한구역이 토지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은 시의 중앙부에서 볼 때 북서-동남 방향으로 대략 1~2km의 띠 모양으로 가로질러 지정되어 있었다. 군포시를 지나는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의 일부인데, 수도권개발제한구역은 1972년에 서울의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의 약 70km² 지역에 걸쳐 지정되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오늘날 군포시의 핵심적인 식생분포지대로 남아 있다.

읍 승격 1년 후인 1980년 군포읍의 인구는 다시 8,347세대에 4만 304명으로 늘었고, 1985년에는

1만 3,006세대에 5만 2,710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인구성장세는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1989년 군포시로 승격하면서 반듯한 수도권 도시 중의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 시 승격 당시 군포시의 인구는 2만 9,489세대에 10만 4,595명이었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된 군포 지역의 인구성장 추세는 수도권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아 나타난 현상이다. 1970~1980년대 군포는 안양8지구 택지개발과 반월신도시(현 안산시) 개발로 유입 인구가 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었으며, 1980년대 말부터 산본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1989년 이후 신도시 입주가 완료된 1995년까지 군포시의 인구는 1990년(전년 대비 4,500여 명 감소)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1990년의 인구 감소는 산본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불가피했던 일시적인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 이주가 원인이었다. 이 여파는 1991년에도 일부 영향을 주어 인구 증가 추세가 다소 약화되어 약 8,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후 군포시 인구는 매년 2만 명 이상씩 증가하였다. 특히 1994년에는 전년 대비 4만 5,500여 명이 증가하여 최대 증가수를 보였다.

군포시는 1990년 이후 5년 동안에 인구는 2.5배, 인구밀도는 1.4배, 시가지 면적은 1.8배가 증가하여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인구집중화와 그에 따른 토지이용 경관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94년 12월에 당시 화성군 반월면의 4개리(현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가 군포시에 편입되어 현재의 시 영역이 완성되었으며, 새로 편입된 지역은 이후 군포시 전체의 인구 증가 양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군포시의 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증가에서 벗어나 199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 27만~28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군포시에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단기간의 인구 변동은 그 유례가 드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인구 변동은 토지이용에 반영되기 마련이지만, 한편으로는 토지이용의 원인이자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군포시의 인구 변동을 토지이용면의 측면에서 보면 시가지·대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은 확대되어 온 반면, 임야와 농업적 토지이용은 축소되어 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군포시의 도시적 토지이용은 인구가 급증하기 직전인 1970년대에 비해서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비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급격한 변화 없이 토지이용 경관이 점차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다시 부곡지구 택지개발, 당동2지구 임대주택단지 개발, 송정지구 임대주택단지 개발 등이 진행 중이고, 향후 부곡동 첨단산업단지 개발도 계획되고 있어 다시 한 번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인구 증가 추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 이후로는 급격한 토지이용의 변화보다는 토지이용의 안정화를 지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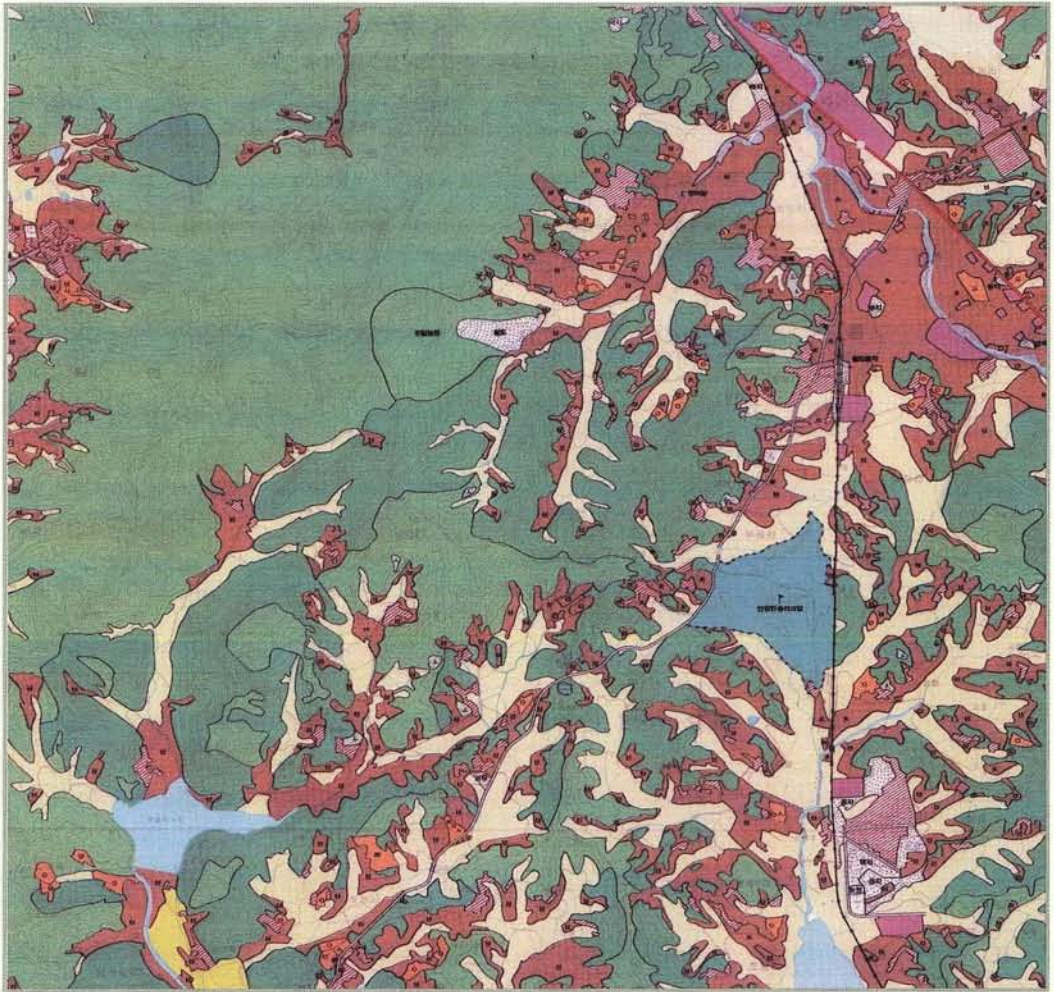
2. 시기별 토지이용의 변화

지목(地目)은 「지적법」 제5조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垵地),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로 구분된다. 「지적법」에서는 지목을 설정할 때에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지만, 1필지가 둘 이상의 지목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을 기준으로 지목을 정하게 되어 있다.

토지이용과 그에 따른 경관 변화상은 통계연보나 토지등기부에 올라 있는 지목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군포 지역의 토지이용 양상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전통적인 농업이 산업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1970년대 초반 무렵까지이고, 두 번째 시기는 그 이후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 지속된 산업화·도시화의 도입 및 정착시기이다. 마지막 시기는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산본 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인구 급증 현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도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토지이용 양상이 크게 달라진 상태에서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기의 토지이용은 앞서 살펴본 몇몇 지도와 자료 외에 1972년 발행된 1:25,000 「토지이용 현황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 지도에서 연두색과 녹색 계열은 숲이 우거진 정도에 따라 임야를 성림지, 미입목지 등으로 구분한 것으로 짙은 녹색은 성림지, 옅은 연두색은 미성림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포시의 북동부를 제외하고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임야가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야와 경지가 만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붉은색 계열의 사선 표시는 취락 분포 지역을 나타낸다. 주황색 계열은 밭인데, 주로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보통작물 재배지, 특수작물 재배지, 채소밭, 묘목밭 등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북동부의 안양천 양안 범람원의 대부분이 논이 아닌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주로 하천 상류 계곡을 따라 표시된 노란색과 흰색 계열은 논을 수리 상태에 따라 수리불안전담(노란색), 수리안전담(무늬 없는 흰색), 경지정리담(격자무늬가 있는 흰색)으로 세분한 것이다. 분홍색 계열은 공업요지, 경부선철도 연변에 주로 나타나는 선홍색은 공업 용지를 의미한다. 중남부의 짙은 청색은 골프장을, 옅은 청색은 저수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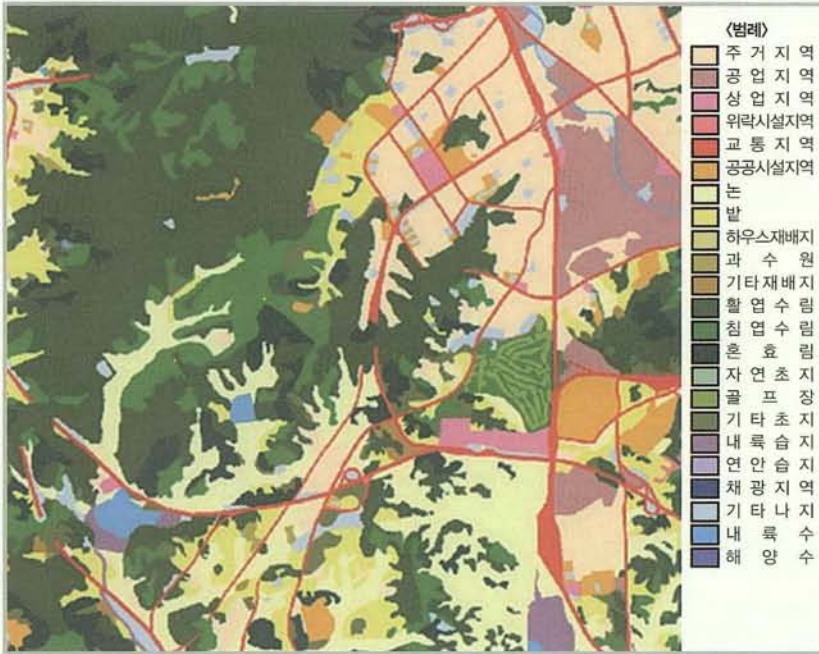
두 번째 시기의 경우, 1999년 현황 기준으로 환경부가 제작한 「토지피복분류지도」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Landsat TM(1999년 5월 21일 촬영)을 기본으로 제작되었다. 그 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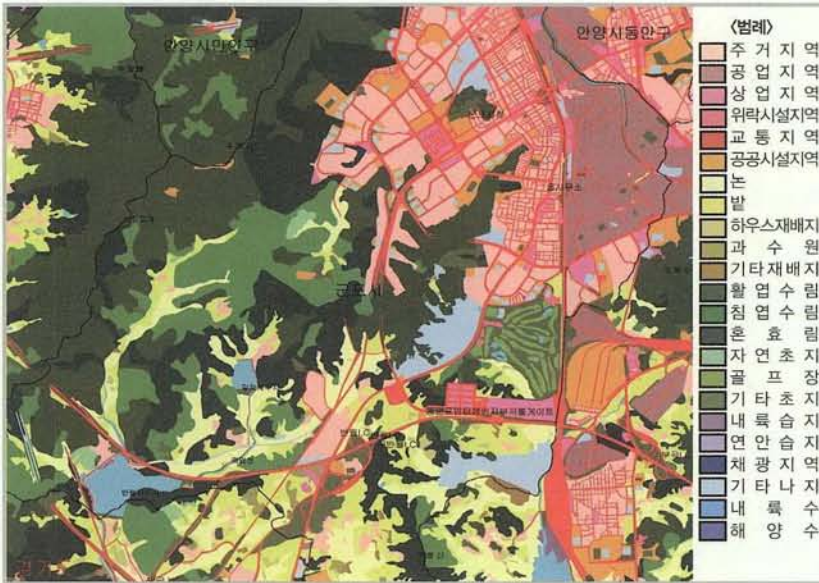
1972년 토지이용 현황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공공시설지역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역은 북동부의 하천 연안과 임야였던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공업지역은 북동부 안양천변의 범람원상에 대규모로 자리 잡았는데, 이 지역은 1970년대 초반까지 주로 밭으로 이용되던 곳이다. 공공시설지역은 산본동과 대야미동에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지도에서는 임야를 활엽수림과 침엽수림, 혼효림 등으로 세분하였는데, 주목을 끄는 것은 수리산지의 산림이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활엽수림이고, 낮은 산록부는 침엽수림이나 혼효림이 우거져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의 경우, 앞의 내용을 환경부가 2009년에 수정 제작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군포시 서부는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임야가 넓고, 동부는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산본 신도시 외곽과 대야미동 일대에 주거지역이 증가하였고,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부곡동 일대에 기타 나지가 증



1999년 토지이용 현황³⁾



2009년 토지이용 현황⁴⁾

가하였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아파트촌으로 변한 당정동 큰말 일대에 상업지역이 증가하였다.

3) 환경부지리정보서비스(<http://egis.me.go.kr>) '이미지자료실'.
 4) 환경부지리정보서비스(<http://egis.me.go.kr>) '이미지자료실'.

3. 지목별 토지이용의 변화

1) 주요 지목의 변화

여기서는 군포시가 현재와 같은 행정영역의 틀을 갖춘 1994년 이후를 중심으로 지목별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그에 앞서 지목 전체 면적의 변화를 보면, 1993년에 20.70km²에서 1994년에 36.08km²로 늘었으며, 2007년 현재 36.36km²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지목의 면적이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은 당시 화성군 반월면에 속하던 대야미리·둔대리·속달리·도마교리가 군포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편입된 지역은 군포시의 행정동인 대야동과 법정동인 대야미동·둔대동·속달동·도마교동으로 편제되었다.

〈표 1〉 주요 지목 변화 추이

(단위 : 천m²)

구분 연도	전체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대 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철도 용지
1993	20,695.6	2,312.8	2,813.5	3.5	-	9,071.4	2,484.0	804.2	72.8	1,115.5	390.6
1994	36,083.8	4,108.1	4,894.7	15.0	10.3	18,513.7	2,765.4	868.7	81.2	1,810.9	476.6
1995	36,386.6	3,246.8	3,973.1	11.5	10.3	16,815.7	4,743.2	893.1	397.4	2,493.7	569.2
1996	36,380.7	3,196.9	3,930.2	-	12.1	16,808.6	4,685.9	1,125.9	397.4	2,496.8	570.9
1997	36,379.4	3,236.0	3,781.8	-	15.6	16,684.7	4,704.2	1,149.0	397.7	2,684.3	570.9
1998	36,380.2	3,220.6	3,675.6	-	18.3	16,683.2	4,768.0	1,171.8	407.6	2,685.3	570.9
1999	36,380.2	3,215.7	3,415.2	-	19.1	16,658.5	4,813.2	1,160.9	456.4	2,772.5	570.9
2000	35,353.8	3,220.9	3,244.8	-	25.1	16,655.3	4,869.3	1,171.0	457.8	2,820.0	568.2
2001	36,354.2	3,156.4	3,117.5	-	26.2	16,558.4	4,861.8	1,183.6	457.8	3,016.6	567.9
2002	36,354.8	3,202.7	3,028.5	-	27.7	16,546.4	4,819.6	1,236.8	458.3	3,005.4	567.9
2003	36,395.5	3,306.2	2,914.9	-	36.8	16,584.7	4,819.6	1,259.2	458.3	3,008.1	567.9
2004	36,393.6	3,365.7	2,820.5	-	42.0	16,547.2	4,823.5	1,255.0	458.3	3,005.8	621.5
2005	36,361.8	3,424.7	2,796.8	-	45.2	16,543.3	4,823.5	1,259.0	458.4	3,031.4	505.5
2006	36,356.5	3,421.2	2,673.8	-	47.8	16,356.4	4,985.7	1,267.0	496.9	3,114.8	508.9
2007	36,359.0	3,315.2	2,459.5	-	53.3	16,169.2	5,209.0	1,302.4	587.9	3,222.4	503.9

출처 :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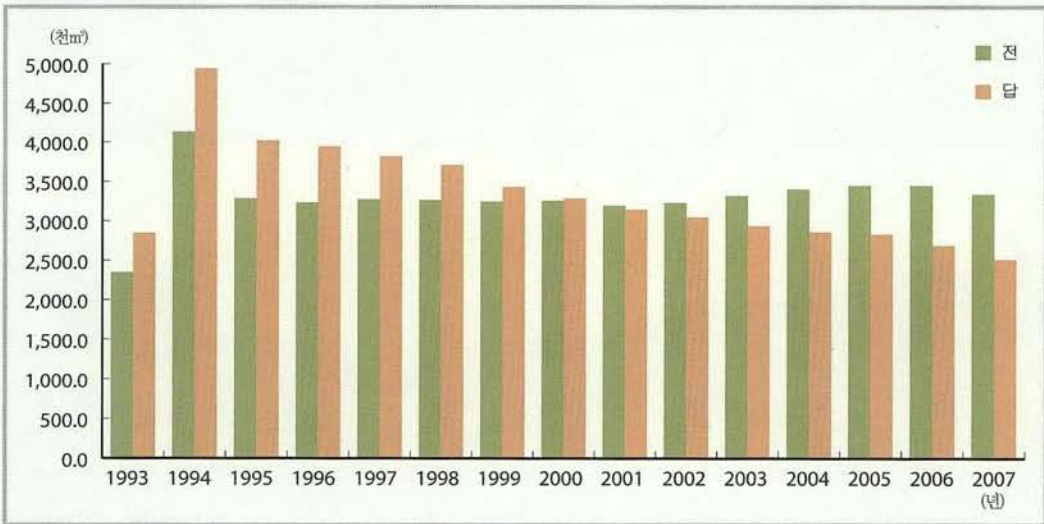
비고 : 편의상 m²로 수록된 면적을 반올림하여 천m²로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표 1〉을 통해서 전답 등의 농경지와 임야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대지나 공장용지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개발로 이들 지목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표에 제시된 지목들 외에도 다양한 지목이 존재한다. 이를 정리하면, 제

방·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의 면적은 증가한 반면, 하천·구거·묘지 등의 면적은 감소하였다. 한편, 군포시의 경우 「지적법」에서 지목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 광천지, 염전, 유원지에 대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는다.

2) 농업적 토지이용 관련 지목

군포시의 통계 자료들에 소개된 지목 중에 농업적 토지이용의 성격이 강한 전·답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과수원은 1996년 이후 집계가 중단되었고, 목장용지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전의 경우에는 1994년에 전체 면적의 11.4%를 점유하고 있다가 2007년에는 9.1%로 낮아졌으며, 답은 같은 기간에 13.6%에서 6.8%로 낮아졌다. 전답의 감소 추세는 모든 행정동에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산본 신도시 건설지와 국민임대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과 답 모두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감소폭이 컸으나 이후 전은 큰 폭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답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 왔다.



전답 면적의 변화

2007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가장 넓게 분포하는 동은 부곡동으로 98만 528㎡이며, 그 뒤를 이어 대야미동 54만 8,711㎡, 도마교동 54만 2,698㎡, 속달동 44만 7,632㎡, 둔대동 39만 9,862㎡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금정동이 4만 2,063㎡로 가장 적었다. 금정동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안양천 변으로 넓게 분포하였다. 답의 경우에도 부곡동이 67만 6,218㎡로 가장 넓었고, 뒤를 이어 도마교

〈표 2〉 동별 전답 면적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m²)

구분	계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금정동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전	3,315,230.6	92,426.0	117,749.0	980,528.0	143,561.6	42,063.0	399,862.0	447,632.0	548,711.0	542,698.0
답	2,459,450.4	53,863.0	72,108.0	676,218.0	55,971.5	26,019.9	387,628.0	312,058.0	384,165.0	491,419.0

출처 : 군포시, 2008, 『제19회 통계연보』, 18쪽.



죽암천변 농경지^{*)} 분포(위)와 복개마을 주거지에 위치한 밭(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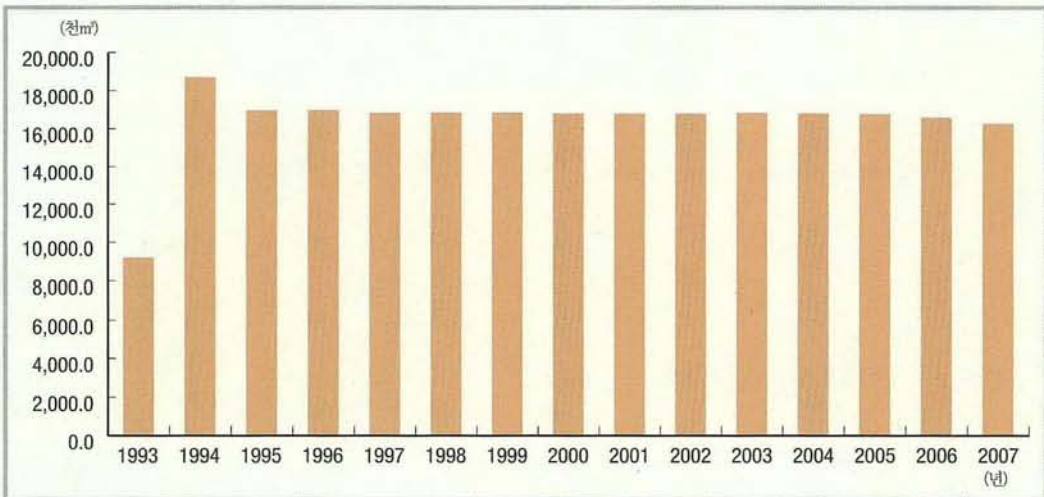
둔대동 죽암천변의 농경지 및 마을의 경관을 보면, 하천변에는 주로 논이 분포하고, 산지 경사면이나 주거지 가까이에는 주로 밭이 분포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동 49만 1,419㎡, 둔대동 38만 7,628㎡, 대야미동 38만 4,165㎡, 속달동 31만 2,058㎡ 등의 순이었다. 답의 면적이 가장 좁은 동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정동이었다. 답은 그 상당 면적이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대지, 공장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었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부의 산지와 구릉지 사이의 곡간 충적지 등에만 분포되어 있다.

과수원 면적은 1995년 이후 집계 자료가 없어 전체적인 경향성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그 면적이 넓지 않아 지목별 변화 추세를 이해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목장용지는 군포시의 관할 면적이 크게 넓혀진 1994년의 면적부터 집계되어 있다. 목장용지도 과수원과 마찬가지로 전체 면적은 군포시 지목별 토지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07년의 목장용지는 1994년 대비 약 5배 가까이 늘었다. 목장용지는 대부분 도마교동, 대야미동, 부곡동에 위치하며, 둔대동과 속달동에도 일부 있다.

3) 산림 관련 지목

임야는 지목 변경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목이다. 군포시의 임야는 수리산 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임야는 1994년에 1,851만 3,699㎡로 시 전체 면적의 51.3%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지목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산본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1995년에 크게 감소된 이후 지



임야 면적의 변화

5) 다음스카이뷰(<http://local.daum.net/map>) 부분 수정



속달동의 인공조림지

〈표 3〉 동별 임야 면적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m²)

계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금정동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16,169,187.6	615,284.0	63,138.0	1,428,970.0	4,409,548.2	272,011.4	3,062,314.0	4,724,474.0	973,066.0	620,382.0

출처 : 군포시, 2008, 『제19회 통계연보』, 19쪽.

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07년에는 시 전체 면적의 44.5%인 1,616만 9,187m²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임야의 감소는 그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하여 가벼이 여길 수만은 없다. 절대면적의 감소분이 약 234만 4,000m²에 달하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라진 임야는 아마도 대지, 도로, 학교용지 등의 도시적 토지이용 지목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07년을 기준으로 동별 임야 면적을 보면, 속달동이 472만 4,474m²로 가장 넓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본동 440만 9,548m², 둔대동 306만 2,314m² 등이며, 이에 비해서 금정동은 27만 2,011m²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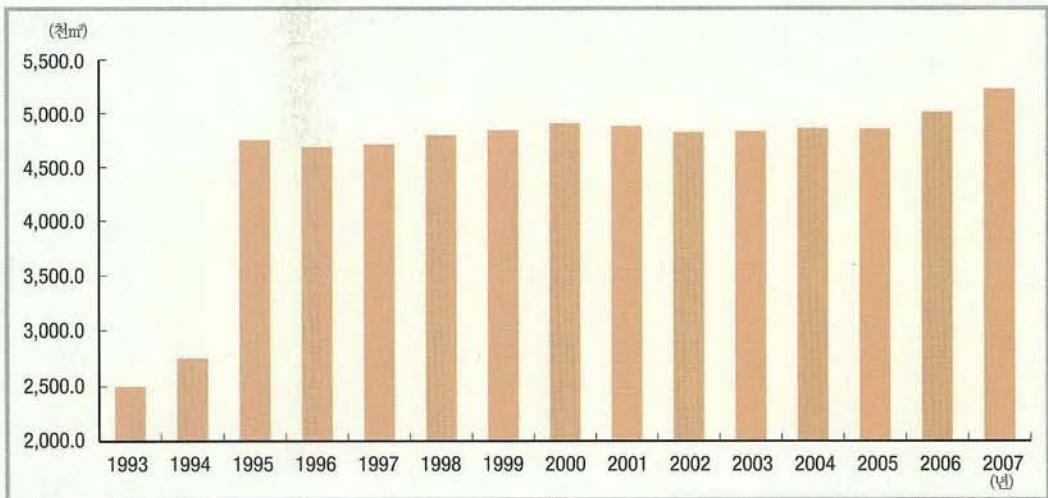
4) 도시적 토지이용 관련 지목

도시화 및 산업화 경관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는 지목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등이다. 일찍부터 철도교통이 발달한 군포시의 경우에는 철도용지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목의 면적은 크게 증가하여 그 변화가 뚜렷하다.



군포시 중심부의 위성영상⁶⁾

군포시가지 경관은 경부선철도를 기준으로 왼쪽의 주거지와 오른쪽의 공장지대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주거지는 다시 아파트단지과 연립주택 내지 단독주택지로 나뉜다.



대지 면적의 변화

6) 구글 어스(<http://earth.google.com>).

2007년 현재 군포시 주택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9.8%에 달하고, 다음으로 다세대주택 10.4%, 단독주택 5.4% 등의 순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대지도 주로 아파트부지, 다세대주택지, 단독주택지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지는 1994년에 시 전체면적의 7.7%인 276만 5,371㎡였으나 2007년에는 14.3%인 520만 9,000㎡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대지가 넓어진 것은 농경지와 임야를 택지로 전환한 결과로 판단된다. 대지의 면적은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매우 신장되었는데, 이는 산본 신도시 건설 및 입주와 관련이 있다.

2007년 현재 대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동은 산본동으로 약 214만 1,494㎡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금정동 99만 8,805㎡, 당동 97만 2,604㎡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동에 비해서 도마교동은 4만 2,115㎡에 불과하다. 즉, 군포시의 주거지는 특정 동을 중심으로 고밀도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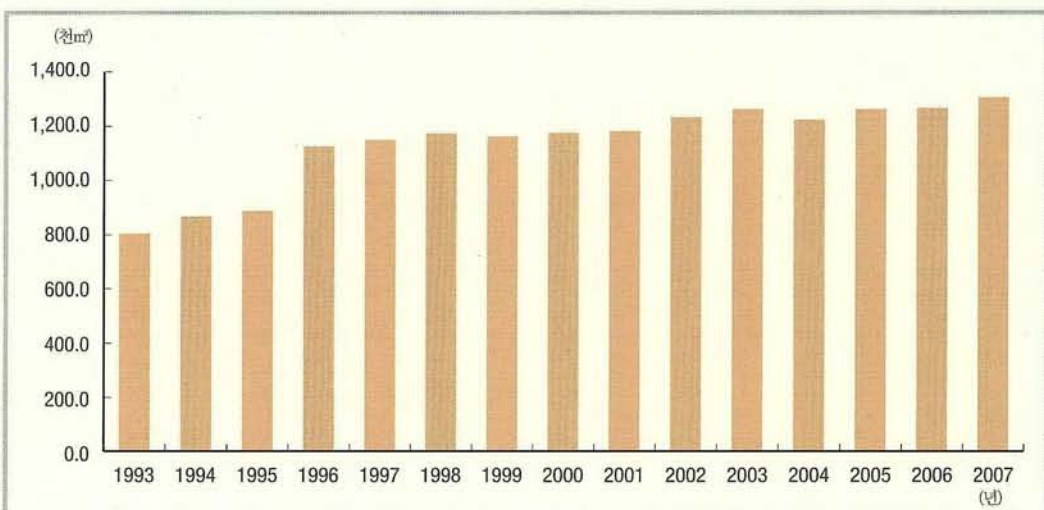
〈표 4〉 동별 대지 면적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계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금정동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5,209,000.4	972,604.2	698,798.7	118,613.0	2,141,493.7	998,804.8	62,412.0	48,950.0	125,209.0	42,115.0

출처: 군포시, 2008, 『제19회 통계연보』, 18쪽.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1994년에 시 면적의 2.4%인 86만 8,700㎡ 정도에 불과하였다. 2007년에는 3.6%인 130만 2,433㎡로 증가하였다. 공장용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1995~1996년에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군포시의 공장들은 당정동과 금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반면, 반월면에서 편입된 4개 동에는 공장용지가 그리 넓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1993년과 1994



공장용지 면적의 변화

년 사이에 이 지역의 공장용지 면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공장용지는 2007년 기준으로 당정동이 87만 6,940㎡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금정동 19만 886㎡, 당동 11만 6,461㎡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서 둔대동과 속달동, 도마교동, 부곡동에는 공장용지가 전혀 없다. 다만, 부곡동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다소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표 5〉 동별 공장용지 면적

(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

계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금정동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1,302,433.3	116,461.0	876,940.0	-	83,768.7	190,885.6	-	-	34,378.0	-

출처 : 군포시, 2008, 『제19회 통계연보』, 19쪽.

군포시의 공업지역은 고밀도 인구 밀집지역과 이웃해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릉지 상에는 상대적으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가 넓고, 충적지(범람원)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시가지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로 하천 양안의 충적지에 들어서 있다.

학교용지와 도로용지도 도시화와 상관성이 깊은 지목이라 할 수 있다. 학교용지는 2007년을 기준으로 지역의 확장이 크게 이루어진 1994년에 비해 7.2배나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율은 대지의 경우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에서 1.6%로 급증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학교용지는 절반 이상이 산본동에 자리하고 있다. 도로용지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1993년과 1995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1994년에는 옛 화성군 반월면 일부의 편입, 1995년에는 산본 신도시 건설이 큰 영향을 끼쳤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용지는 2007년 기준으로 1994년에 비해서 1.8배 증가하였다.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등도 도시화 경관을 대변할 수 있는 지목이지만, 2002년부터 통계가 집계되어 변화상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전체 지목에서 이들 지목이 차지하는 면적도 극히 적어 2007년 기준으로 주차장 5만 822.3㎡, 주유소용지 2만 944㎡, 창고용지 1만 2,757.8㎡에 불과하다.

제4장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문채 | 성결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1. 도시기반시설의 정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의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내 거주자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특정 소수가 아니라 도시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도시기반시설은 각종 법령에서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에서는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용어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먼저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총 53종의 기반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은 도시민이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일종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구분	내용	비고
교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용차고지
공간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 교통광장, 일반광장, 미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유통·공급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열공급설비	
공공·문화체육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	하천, 우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설은 해당 도시의 여건에 따라 그 종류와 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군포시의 경우에는 53종의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로서 도로·철도·주차장·자동차정류장, 공간시설로서 광장·공원·녹지, 유통·공급시설로서 시장·공동구·수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학교·운동장·공공의 청사·사회복지시설, 방재시설로서 하천, 보건위생시설로서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등 총 19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표 2〉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단위 : 개소, 천㎡)

시설명	개소	면적	시설명	개소	면적
도로	565	2,862	수도	6	113
주차장	21	46	공동구	1	18
자동차정류장	5	438	전기공급설비	16	10
철도	8	798	가스공급설비	3	14
광장	25	499	운동장	2	972
공원	90	548	공공의 청사	38	141
녹지	43	412	학교	41	584
하천	1	41	사회복지시설	2	62
폐기물처리시설	2	27	종합의료시설	2	14
시장	3	11			

출처 : 군포시, 2008, 『시장백서』, 465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광역시설을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는데, 이는 크게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서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35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4개)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제외)
-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21개)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제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끝으로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로·공원·철도·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22개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군포시는 1970~1980년대의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1989년 시로 승격하였다. 그러나 시 승격 초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 산본 신도시 건설이 진행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은 빠르게 확충되었다. 이 글에서는 자료로써 파악 가능한 시 승격 이후 군포시의 도시기반시설 변화를 다루되, 편의상 군포시의 도시기반시설을 크게 교통시설, 공원·녹지시설, 공공시설, 상·하수도시설에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

2. 교통시설

1) 도로

(1) 도로 확충

군포시는 시 승격 초기에 비해서 도로가 대폭 확충되었다. 1989년에는 도로 연장이 총 4만 8,361m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16만 5,312m로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에는 시도(市道)의 확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1989년 4만 3,399m에 불과하던 시도는 2001년에 14만 8,760m가 되어 이후로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 군포시 관내를 지나는 고속도로 노선의 증가도 도로 연장이 늘어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대야미~안산시계 간 도로

2008년 1월 개통된 이 도로는 그간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던 둔대동·속달동의 교통여건 개선과 수리산·반월호수 등 주변 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 3〉 도로 현황

(단위 : m)

연도	구분 총연장	상태별			등급별			
		포장	비포장	미개통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1989	48,361	48,361	-	-	-	4,962	-	43,399
1992	51,361	51,361	-	-	2,000	4,962	-	44,399
1995	100,211	94,311	-	5,900	1,440	10,400	5,900	82,471
1998	135,802	124,714	-	11,088	5,780	10,342	11,100	108,580
2001	180,432	118,892	1,800	59,740	13,030	10,342	8,300	148,760
2004	179,272	125,909	1,800	51,563	11,870	10,342	8,300	148,760
2007	165,312	151,132	-	14,180	10,190	6,362	-	148,760

출처 :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2) 도로망체계

군포시의 현행 광역도로망체계를 보면, 도시 남쪽에서는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로 관통하고 북쪽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동서로 통과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해안고속도로가 남동쪽 경계 부근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등 고속도로와 잘 연계되고 있다. 고속도로 이외에 국도1호선과 47호선이 시를 남북을 관통하고 있어 광역도로망체계는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 성격이 강하여 수도권 광역화나 자동차 증가에 따라 통과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4〉 광역도로망체계

구분	노선명	구간	연장(m)	폭(m)	차로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	금정동~산본동	1,180	38.8~65	8
	영동선	의왕시~안산시	5,116	40~100	8
	서해안선	둔대동~안산시	1,630	35~54.6	6
국도	국도1호선	산본동~산본동	510	40	8
	국도47호선	금정동~안산시	7,650	3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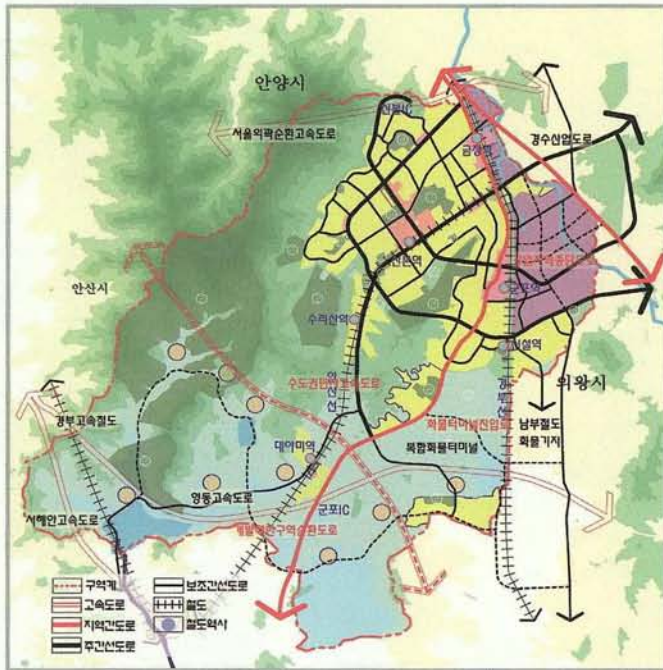
출처 : 군포시, 2007,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166쪽.

군포시의 내부가로망은 전반적으로 격자형과 환상형의 구조를 보인다. 특히 산본 신도시의 경우 계획도시인 관계로 격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로망체계도 도로위계별로 잘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나 공업지역은 도로망형태가 불규칙적이고 폭원이 협소하여 전체적인 도로망체계와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편 군포시는 도시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 지역에 산재된 소규모 취락 등 도시 외곽지역의 도로가 아직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군포시의 내부가로망체계는 〈표 5〉와 같다.

〈표 5〉 내부가로망체계

구분	구간	연장(m)	폭(m)	차선수
광로3-7	산본동~금정동	840	40	8
대로1-1	금정동~안산시	7,650	35	6
대로1-4	산본동~당정동	5,824	35	6
대로1-5	산본동~산본동	994	35	6
대로1-6	금정동~당정동	2,566	35	6
대로2-2	산본동~산본동	1,870	30	6
대로2-4	금정동~금정동	1,050	30	6
대로2-10	산본동~산본동	1,930	30~35	6
대로2-11	산본동~금정동	1,168	30~35	6
대로2-13	산본동~금정동	1,340	30~39.9	6
대로3-28	산본동~산본동	1,291	25	4

출처 : 군포시, 2007,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166쪽.



2020년 군포시 교통계획도¹⁾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포시는 광역도로망체계는 비교적 양호하나 내부도로망체계는 산본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특히 공업지역에서는 불규칙한 도로망과 협소한 도로 폭으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군포시는 구시가지의 교통망체계 개선을 위해 수원~광명 간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개설이나 국도47호선의 확폭 등 다양한 교통개선대책을 준비하

1) 군포시, 2007,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190쪽.

고 있다.

(3) 도시계획도로 현황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군포시의 주요 도시계획도로는 광로 3개 노선 7,136m, 대로 16개 노선 3만 5,934m, 중로 70개 노선 4만 2,731m, 소로 474개 노선 8만 1,207m로 계획되었다. 총 도로 연장은 16만 7,008m에 달한다. 이 중에는 대로1류·2류, 중로1류 등 비교적 간선도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2004년 12월 현재 광로 3개 노선, 대로 14개 노선, 중로 65개 노선, 소로 464개 노선에 총 도로 연장은 15만 244m이며, 아직 1만 6,764m의 도로가 미개설 상태였다.

〈표 6〉 도시계획도로 현황

(2004년 12월 현재, 단위: 개, m)

구분		계		개설 현황		미개설 현황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계		563	167,008	546	150,244	17	16,764	
도로	광로	2류	1	1,180	1	1,180		
		3류	2	5,956	2	5,956		
	대로	1류	5	18,664	4	17,250	1	1,414
		2류	7	7,955	6	7,675	1	280
		3류	4	9,315	4	9,315		
	중로	1류	25	23,700	21	17,556	4	6,144
		2류	20	10,334	20	10,334		
		3류	25	8,697	24	8,452	1	245
	소로	1류	79	24,291	71	16,209	8	8,082
		2류	247	40,700	245	40,101	2	599
		3류	148	16,216	148	16,216		

출처: 군포시, 2007,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167쪽.

2) 철도

군포시는 철도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일반철도 2개 노선(경부선, 안산선)과 도시철도(과천선)가 운행되고, 이 외에 고속철도 노선이 둔대동 서쪽을 관통하여 지나간다. 일반철도 중 경부선의 군포시 관내 연장은 5.1km이고, 안산선은 8.1km이다.²⁾ 안산선은 1994년 과천선의 개통으로 과천선과 통합 운행 중이다.

2) 군포시, 2007,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1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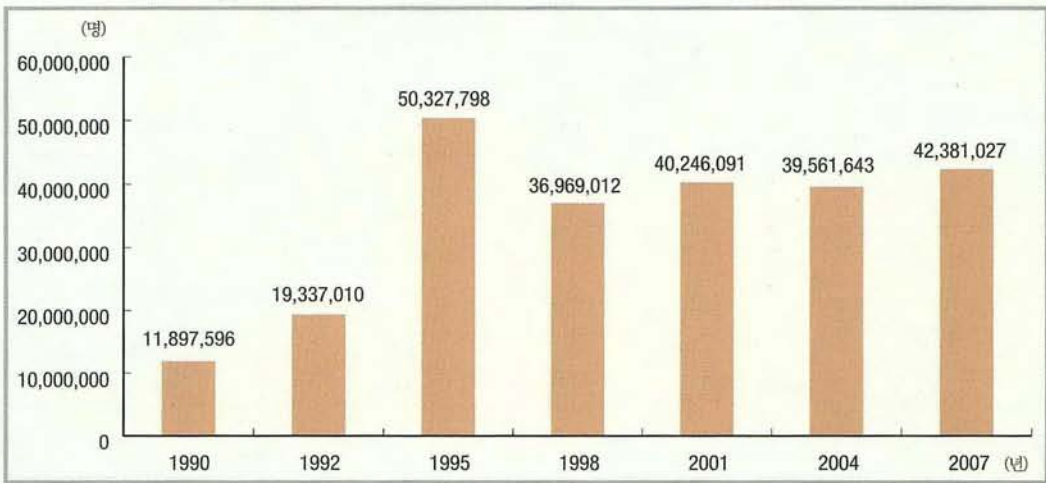
〈표 7〉 도시계획시설 중 철도 현황

(2008년 12월 말 현재, 단위 : 개, m, m²)

계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4	17,635	644,174	2	15,115	600,704	1	770	8,470	1	1,750	35,000

출처 : 「2008 도시계획현황 통계」,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현재 군포시 관내에는 군포역, 금정역, 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등 총 5개의 전철역이 설치되어 있고, 2009년 현재 당정역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중 금정역은 경부선과 안산선의 환승역으로, 중요한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5개 역의 연간 철도 여객 운송 현황을 보면, 1990년 1,189만 7,596명에서 2007년 4,238만 1,027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철도 여객수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철도 여객수의 변화³⁾

〈표 8〉 역별 여객 및 화물 수송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단위 : 명, 천원, 톤)

역	여객			화물		
	승차인원	강차인원	여객수입	발송톤수	도착톤수	화물수입
계	21,453,495	20,927,532	21,503,422	-	700	-
금 정 역	8,809,122	8,674,008	8,829,535	-	-	-
산 본 역	6,507,712	6,675,604	6,482,452	-	700	-
군 포 역	3,718,764	3,510,444	4,110,926	-	-	-
수리산역	1,535,982	1,234,616	1,341,122	-	-	-
대야미역	881,915	832,860	739,387	-	-	-

출처 : 군포시, 2008, 「통계연보」, 228~229쪽.

3)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철도 여객 수송 현황을 역별로 보면,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승역인 금정역이 1,748만 3,130명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산본역, 군포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등의 순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에 비해서 화물 수송은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 전철의 기능이 주로 여객 운송에 있기 때문이다.

3) 주차장

군포시의 주차시설은 처음 통계가 기록된 1993년에는 423개소 9,063면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총 3,226개소에 6만 9,023면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군포시 관내의 주거지 건축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의 면수를 늘려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표 9〉 주차장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단위: 개소, 면)

구분		개소	주차면수
계		3,226	69,023
노상주차장	유료	4	304
	무료	54	4,578
노외주차장	공영	37	3,085
	민영	17	1,469
건축물부설주차장		3,114	59,587

출처: 군포시, 2008, 『통계연보』, 226~227쪽.

4) 자동차정류장

군포시의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1개소, 물류터미널이 1개소, 공영터미널 2개소 등 총 4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그 면적은 44만 7,146㎡이다.

〈표 10〉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현황

(2008년 12월 말 현재, 단위: 개소, ㎡)

구분	계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터미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현황	4	447,146	1	6,845	1	377,650	2	62,651

출처: 『2008 도시계획현황 통계』,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자동차정류장 중 공영차고지로 이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은 7개 운수회사가 시내버스의 회차지 및 차고지로 이용 중이다. 물류터미널로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이 있으며, 이 시설은 연간 1,127만 톤의 화물 수송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물류거점으로 서 군포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공영차고지

〈표 11〉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현황

위 치	부지면적	연간 화물수송능력	준공연월
군포시 부곡동 451번지	380,000㎡	11,270,000t	1998년 12월

출처 : 군포시, 2007,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173쪽.

5) 대중교통

군포시의 대중교통 수단 중 버스노선은 2007년 기준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시외·직행버스 4개 노선과 도시형의 시내버스 21개 노선, 그리고 이밖에 일반 버스노선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전철역과 연계하는 마을버스 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총 운행대수는 507대이며, 그중 시내버스는 415대, 시외·직행버스는 35대, 마을버스는 57대이다. 지역별로 보면, 과천·사당 방면이 8개 노선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양·구로 방면 7개 노선, 그리고 관내 순환(마을버스) 7개 노선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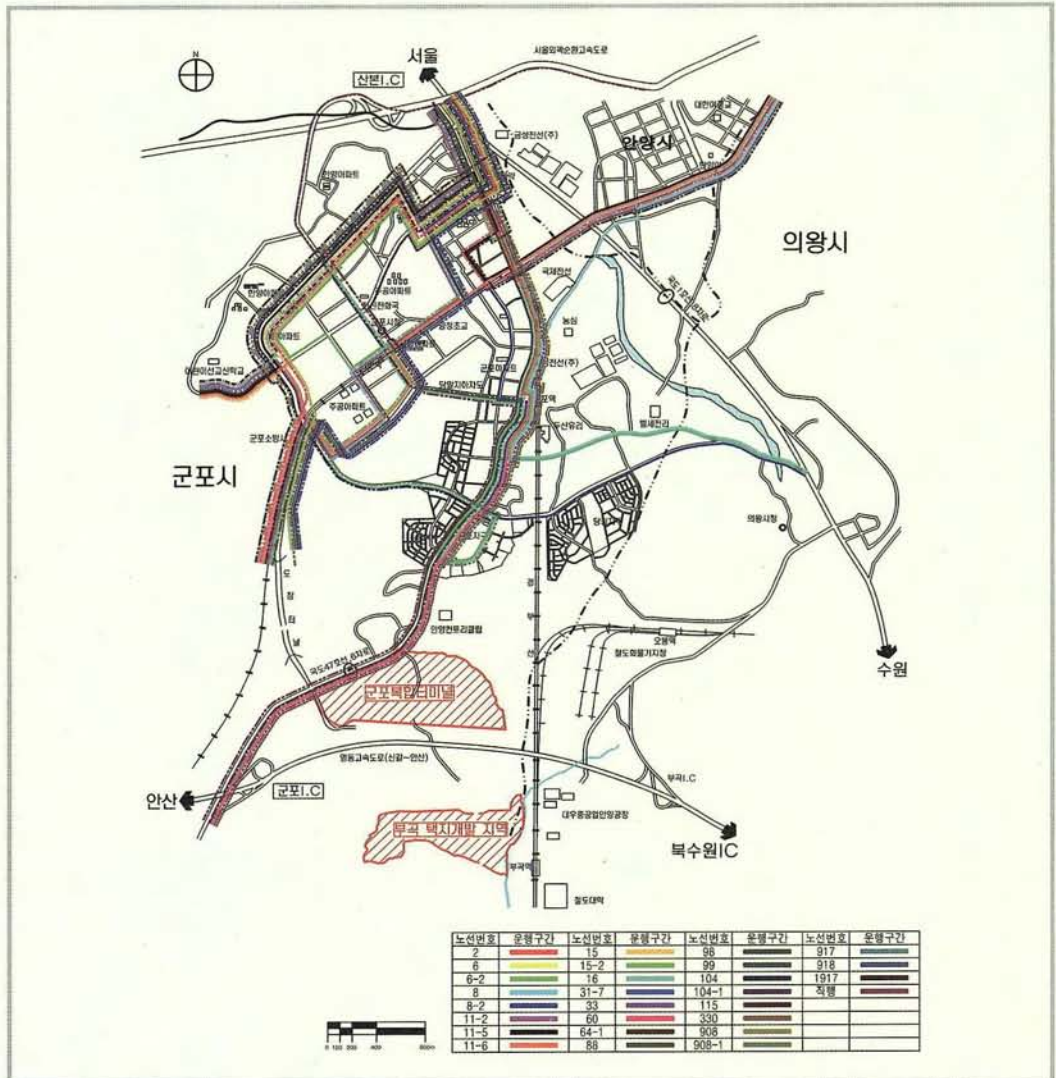
〈표 12〉 버스 운행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단위 : 개, 대)

구 분	구 분		노선수	운행대수
	유형	계		32
시내버스			21	415
시외·직행버스			4	35
마을버스			7	57

구분	노선수	운행대수	
지역별 노선	계	32	507
	과천·사당 방면	8	169
	안양·구로 방면	7	145
	의왕시	3	59
	부천시	1	25
	안산시·화성시	3	24
	인천시	1	10
	성남시	2	18
	관내 순환(마을버스)	7	57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353쪽.



3. 공원 · 녹지시설

1) 공원

군포시의 2008년 『시정백서』에 의하면, 군포시의 공원은 총 97개소에 2,264km² 면적이다. 그중 근린공원이 14개소, 어린이공원이 82개소,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이다. 이는 2000년 『시정백서』 기준 31개소 0.380km²였던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전체 공원 가운데 91개소에 0.555km²만 조성되어 전체 면적 대비 24.5%의 낮은 조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2m² 정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지역 안의 공원 면적 기준인 1인당 6m²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표 13〉 공원 현황

(단위 : 개소, 천m²)

구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97	2,264	14	1,483	82	167	1	614
시행	91	555	10	392	81	163	-	-
미시행	6	1,709	4	1,091	1	4	1	614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500쪽.

〈표 14〉 근린공원 현황

(2008년 10월 현재, 단위 : m)

공원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조성면적		
계		1,482,978.1	391,742.1		
채궁공원	금정동 850-2	10,288.6	10,288.6	1994. 9. 15.	
오금공원	금정동 871-6	10,140.2	10,140.2	1994. 9. 15.	
노티울공원	금정동 875-10	13,073.1	13,073.1	1994. 9. 15.	
양지공원	산본동 1153	24,280.5	24,280.5	1994. 9. 15.	
도장공원	산본동 1145-7	32,801.8	32,801.8	1994. 9. 15.	
둔전공원	산본동 1151-2	37,500.8	37,500.8	1994. 9. 15.	
한얼공원	금정동 산83 일원	150,333.7	150,333.7	1994. 9. 15.	구 금정4호 근린공원
능안공원	산본동 1065	63,271.5	63,271.5	1994. 9. 15.	
궁내공원	산본동 1119-5	10,031.2	10,031.2	1994. 9. 15.	
중앙공원	산본동 1122	40,020.7	40,020.7	1994. 9. 15.	
수리산공원	산본동 840 일원	103,990.0	미조성	2002. 12. 5.	

공원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조성면적		
당동공원	당동 산39-6	410,000.0	미조성	2002. 12. 5	실시설계 중
초막골공원	산본동 915 일원	550,000.0	미조성	2002. 12. 5	실시설계 중
당정공원	당정동 761 일원	27,246.0	미조성	2005. 2. 7	기본설계완료

출처 : '공원결정 및 조성 · 관리현황', 군포시 공원녹지와 제공자료(2008년 10월).

한편, 2009년 7월 16일에 수리산 일대 6.969km²가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그중 62%에 달하는 4.302km²가 군포시 관내에 속해 있는데, 향후 이 현황이 통계에 반영될 경우, 군포시의 공원 면적은 대폭 늘어나 도시지역 안의 공원 면적 기준인 1인당 6m²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본 신도시 5단지 옆에 위치한 양지공원

2) 녹지시설

군포시의 녹지시설은 경부선이나 안산선 등의 철도변이나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도로변, 시가지나 개발제한구역 경계부 등 시가지화구역의 경계지역 등에 지정되어 있다. 군포시의 2008년 『시정백서』에 의하면, 총 37개소에 0.387km²가 기초성되었으며, 이는 2000년 『시정백서』 기준 31개소 0.380km²과 비교하여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을 뿐이다. 이미 조성된 녹지의 1인당 조성 면적은 1.4m² 정도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의 녹지 면적 기준인 1인당 3m²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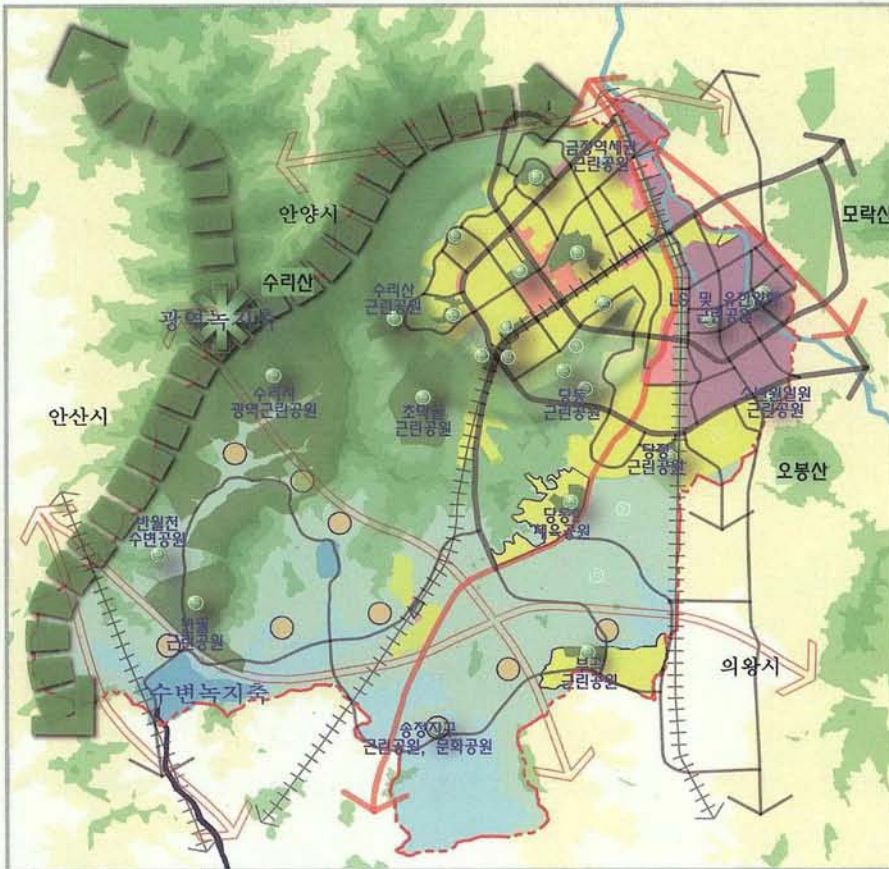
(표 15) 녹지 현황

(단위 : 개소, 천㎡)

구분	개소	면적
계	37	387
완충녹지	21	217
경관녹지	16	170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498쪽.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포시는 공원·녹지 현황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도 크게 못 미쳐 다른 도시에 비해 열악한 편인데, 이들 공원·녹지의 상당 부분이 산본 신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도시권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하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기존도시권을 비롯한 도시 외곽의 개발 가용지나 도시 내 소규모 잔여지,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녹지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원·녹지계획도⁵⁾

5) 군포시, 2007,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301쪽.

제 4 장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4. 공공시설

1) 공용청사

군포시 소재 공용청사는 1989년 시청 1개소, 동사무소 6개소, 경찰파출소 4개소, 소방서 1개소 및 소방파출소 1개소, 교육청 1개소, 우체국 관서 1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말 기준으로, 시청 1개소, 동주민센터 11개소, 경찰서 1개소 및 지구대 2개소(치안센터 7개소), 소방서 1개소 및 소방파출소 3개소, 우체국 관서(우체국, 분국, 우편취급소 등) 8개소, 전화국(분국 포함) 3개소, 등기소·교육청·보건소가 각 1개소 등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대부분 산본 신도시에 집중 배치되어 이들 지역으로의 통행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기존도시권이나 대야동권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표 16〉 공용청사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단위: 개소)

구분	시청	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교육청	우체국 관서	전화국 (분국 포함)	보건소
			본서	지구대	본서	파출소					
현황	1	11	1	2	1	3	1	1	8	3	1

출처: 군포시, 2008, 『통계연보』, 404~405쪽; 군포시, 2008, 『시정백서』, 651~698쪽.

이들 시설 가운데 군포경찰서는 군포시와 의왕시 오전동·고천동·부곡동을 관할하였으나, 2009년 4월에 의왕경찰서가 신설되면서 군포시 관내만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2개의 지구대에 치안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던 대야동에 대야파출소가 설치되었다.

2) 교육시설

군포시의 교육시설은 1990년 4월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대학 1개소에 불과했으나, 2008년 4월에는 유치원 41개소,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1개소, 고등학교 7개소, 대학교와 대학원 각 1개소로 증가했다. 이러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하였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보면, 1990년 4월에는 학생수 1만 6,073명, 교원수 407명으로 39.5명에 달했으나, 2008년 4월에는 학생수 5만 2,763명, 교원수 2,480명으로 20.9명(대학원 제외)으로 낮아져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학교 현황

(2008년 4월 1일 현재, 단위: 개소, 개, 명)

구분	학교수	학급(과)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대학원 제외)
계	83	1,431	52,763	2,480	20.9
유치원	41	129	3,156	204	15.5
초등학교	22	645	22,373	890	25.1
중학교	11	316	11,846	603	19.6
고등학교	7	303	11,007	685	16.1
대학교	1	21	3,453	94	36.7
대학원	1	17	928	4	-

출처: 군포시, 2008, 『통계연보』, 332~333쪽.

3) 문화·체육·복지시설

(1) 문화시설

군포시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말 기준으로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은 공공공연장 3개소와 영화관 2개소, 지역문화복지시설은 시민회관과 복지회관 각 1개소, 기타 시설로 전수회관 1개소가 있다. 그중 공공공연장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 2개소와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 1개소이다. 시민회관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은 군포문화센터, 전수회관은 방짜유기전수관을 말한다.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 이외에 국제회의장이나 전시장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군포시 문화시설의 중심이 되고 있다.

〈표 18〉 문화시설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단위: 개소)

구분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시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현황	3	-	2	-	-	1	1	-	-	-	1

출처: 군포시, 2008, 『통계연보』, 354~355쪽.

문화시설에서 영화관 2개소 중 기존의 산본시네마는 2008년 7월 말 폐관되었다. 이 외에 등록 시설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산본아트홀과 같은 민간공연장도 존재하고 있다. 문화원의 경우, 별도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통계에서 제외되었으며, 2010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산본도서관, 당동도서관, 대야도서관 등 일반도서관 3개소와 어린이도서관 1개소로 총 4개 도서관이 있다. 좌석수와 장서수도 1993년에 650석, 1만 5,365권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2,154석, 38만 4,227권으로 늘어났다. 이들 도서관은 지

〈표 19〉 공공도서관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구분	좌석수(석)	자료수			연간이용자수(명)	연간이용책수(권)
		계	도서(권)	비도서(개)		
계	2,154	411,765	384,227	27,538	2,325,682	1,417,478
산본도서관	1,148	189,825	170,717	19,108	1,302,237	419,621
당동도서관	474	100,428	95,068	5,360	435,199	183,433
대야도서관	196	69,445	67,613	1,832	462,007	462,007
어린이도서관	336	52,067	50,829	1,238	126,239	352,417

출처 : 군포시, 2008, 『통계연보』, 348~349쪽.

〈표 20〉 기타 도서관 현황

(단위 : 석, 권)

명칭	좌석수	자료수
갈릴리공부방문고	30	3,000
군포문화센터 동화나무어린이도서관	45	9,786
군포새마을문고	20	3,700
금정주민자치센터 어린이도서관	15	8,122
사랑이 있는 문고	30	2,069
산본소망문고	15	3,000
새롬모든이의 문고	22	1,008
신산본마을문고	21	2,525
울곡마을문고	18	1,021
재궁꿈나무도서관	30	9,047
큰노티나무문구	18	1,550
큰꿈어린이도서관	22	2,600
푸른문고	30	2,000~2,500
LG신산본자이2차아파트문고	40	550

출처 : 『작은도서관』, 군포시립도서관(<http://www.gunpolib.or.kr>).



군포시 중앙도서관(좌)과 산본도서관(우)

역별로 적정히 배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편이다.

도서관의 경우, 2008년 4월에 중앙도서관이 개관하여 총 5개 도서관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 각종 주민센터나 민간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2) 체육시설

군포시의 체육시설은 2007년 말 기준, 공공체육시설로 실내체육관 3개소, 종합경기장 1개소, 테니스장 1개소, 수영장 1개소, 기타 시설 2개소, 이밖에 등록체육시설로 골프장 1개소가 있다. 신고체육시설에는 수영장 3개소, 체육도장 72개소, 골프연습장 49개소, 체력단련장 32개소, 당구장 114개소, 썰매장 1개소, 무도장 1개소, 무도학원 7개소가 있다. 최근 사회체육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고려할 때 군포시는 향후 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체력 향상이나 여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시장배 배구대회

〈표 21〉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체육시설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공공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기타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현황	3	1	1	1	2	1	-	-

출처 : 군포시, 2008, 『통계연보』, 356~357쪽.

(3) 사회복지시설

군포시의 사회복지시설은 1989년 1개소에 불과했는데, 이는 엘림복지원으로 당시 수용인원은 70명이었다. 2007년 말에는 현재 총 9개소로 늘어났고, 생활인원은 217명이다. 시설의 유형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여성복지시설 1개소이다. 이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고 사건·사고에 의한 소년·소녀 가장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2〉 사회복지시설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기타 시설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현황	9	217	-	-	7	177	1	31	1	9	-	-

출처: 군포시, 2008, 『통계연보』, 282~283쪽.

4) 의료시설

군포시의 의료시설은 1989년에는 34개소에 불과했다. 그중에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없었고, 의원 22개소, 치과의원 7개소, 한방의원 3개소, 조산소 2개소였다. 2007년 말 현재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3개소, 의원 130개소, 요양병원 1개소 등 총 257개소에 병상수는 1,260병상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 공공시설로 보건소가 있으며, 2003년 이후 조산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23〉 의료시설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단위: 개소, 병상)

구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현황	257	1,260	1	325	3	326	130	423	1	95	74	8	1	71	46	12	1	-

출처: 군포시, 2008, 『통계연보』, 242~243쪽.



군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1병상당 인구는 221.9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시설 여건이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1개소에 병상수가 325병상에 불과하여 최근 의료시설의 대형화 추세나 진료 여건 등을 고려하면 규모가 작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군포시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시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형 종합병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상·하수도시설

1) 상수도

군포시 상수도는 1982년 처음 급수를 개시하였고, 1989년 시설용량은 1일 2만 m³, 급수량은 1일 1만 4,057m³, 1일 1인당 급수량은 183ℓ였다. 2007년 말 현재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2~4단계 계통으로 1일 총 15만 6,000m³의 정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다. 1일 평균 급수량은 7만 7,015m³, 1일 1인당 급수량은 276ℓ로 증가하였고, 급수보급률은 1989년 74%에서 2007년 10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의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정수시설이나 배수시설, 급수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포시 수도사업소

〈표 24〉 급수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구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시설용량(m ³ /일)	급수량(m ³ /일)	1일 1인 급수량(ℓ)
현황	279,536	279,536	100.0	156,000	77,015	276

출처 : 군포시, 2008, 『통계연보』, 156~157쪽.

2) 하수도

군포시 하수도는 1989년에 시설연장이 10만 3,202m였고, 배수구역 면적은 7.9km², 하수도 보급률은 76.1%였다. 2007년 말 현재 시설연장은 26만 6,500m, 배수구역 면적은 13.8km², 하수도 보급률은 97.6%에 달한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종말처리 인구는 27만 2,920명이고,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는 대야동의 6,616명인데, 대야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군포시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도시정비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수질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산본 신도시 이의 지역은 하수도 보급률은 높으나 하수시설이 노후화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대단위 공장들이 입지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업폐수에 대한 하수처리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표 25〉 하수도 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구분	행정구역 인구(명)	하수종말처리 인구(명)	하수관거 시설연장(km)	하수도 보급률(%)
현황	279,536	272,920	266.5	97.6

출처 : 군포시, 2008, 『통계연보』, 164~171쪽.